

# 동행

*Special*

어제의 동행이 오늘의 동행을 만나다  
[동행 1호 국장단 인터뷰]

*Talk concert*

팡세 이성준 대표님



*Episode*

동물원  
관악산 등산  
겨울 여행

*모교방문*

장안제일고등학교, 늘푸른 고등학교

*Interview*

김명후 교수님  
권기현 선배님  
2025 동자과 회장단  
2025 동행 국장단  
영양학실 학부연구생



# 국장의 한마디

동행이 열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어느덧 스무 번째 소식지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꾸준히 동자과를 담아낸 동행이 새삼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동행은 20호라는 이름이 주는 책임 덕분에 더욱 다채로운 소식지가 되었습니다. 동행 20호의 인터뷰팀과 토크콘서트, 모교방문팀은 동행의 정규 활동을 더욱 알차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졸업생 인터뷰팀은 20호를 기념하며 동행 초대 국장단 선배님들을 만나뵙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견학, 동아리, 기업, 동자행사팀이 활동하며 동자과의 유익한 경험과 소중한 추억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정규 활동 외에는 관악산 등산, 동물원 방문 등으로 오래 간직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한 뒤 다녀온 경주 여행은 부원들이 서로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동행 19호와 20호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열심과 욕심의 경계를 지키는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이 부원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지 않도록, 많은 이야기를 전하려다 피로감까지 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신경 써 준비했지만, 때로는 짧은 생각이 자잘한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제게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고 채워준 모든 부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을 함께 한 43명의 훌륭한 부원들 덕분에 평생 느껴보지 못한 큰 보람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기대가 큰 응원이 된다는 것을 실감한 일 년이었습니다. 늘 따뜻한 시선으로 동행에 조용한 응원을 건네주시는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식지 제작 과정에서, 단지 동자과 후배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동행 국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큰 행운인지 실감하였습니다.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1년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2학년을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동행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한 '동행' 두 글자가 주는 반가움으로 동아리를 떠나는 아쉬움을 달래야 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겨울  
이진현 올림

# 목차

## Contents

동자과 타임라인	4
동행 타임라인	6
<b>인터뷰</b>	
김명후 교수님	8
권기현 선배님	15
동행 1호 국장단	21
2025 동자과 회장단	30
2025 동행 국장단	39
학부연구생	44
<b>동물생명공학전공 행사</b>	
카길 직무별 인터뷰	40
오픈랩	54
선진 기업탐방	60
한국마사회 기업탐방	65
송년의 밤	68

**동물생명공학전공 동아리**

동창 10기	72
동백 6기	77
FC동자 홈커밍	86
동요	88

**동행 활동**

모교방문	92
제2회 토크콘서트	97
강의 소개	106

**동행 이야기**

동물원	111
관악산 등산	113
겨울 여행	116
동행 20호를 만든 사람들	122
에디터의 한마디	123
도움을 주신 분들	132

# 동자과 타임라인



## 2025.8.18. 카길 직무별 인터뷰



2학기 개강을 앞둔 8월, 졸업을 앞두고 취직을 고민하는 학부생들이 카길애그리퓨리나를 찾았습니다. 동자과 선배님들로부터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질문을 하며 크고 작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2025.11.4-6. Open Lab

3일 동안 동자과 오픈랩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과 대학원생 선배님들로부터 연구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진로를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2025.9.5. 동자과 개강파티

2025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신입생과 재학생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여 돈독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김유용 교수님과 윤철희 교수님,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김명후 교수님까지 참석하시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셨습니다.





**2025.11.16.  
한국마사회 기업탐방**

한국마사회를 견학하고, 선배님들로부터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2025.12.19.  
동자과 종강파티**



2학기 종강을 기념하는 종강파티가 열렸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종강파티에는 윤철희 교수님께서 함께하시어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025.11.7.  
선진 기업탐방**

선진 공장을 견학하고 선배님들의 설명을 들으며 '선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김유용 교수님과 김명후 교수님께서 함께하시어 더욱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2025.12.11.  
동자과 송년의 밤**

2025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양재 AT센터에서 동자과 송년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들과 졸업하신 선배님들,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가 함께 웃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 동행 타임라인

## 8월

---

8.18. 카길 직무별 인터뷰

## 9월

---

9.1. 4차 정기회의

9.24. 진바이오텍 동행 소개

9.27. 농협 안성팜랜드 견학

## 10월

---

10.13. 다비육종, 도드람, 팜스토리한냉 견학

10.15. 5차 정기회의

10.24. 김명후 교수님, 학부연구생 인터뷰

10.30-31. 한국식품클러스터 진흥원 견학

10.31. 단체사진 촬영

## 11월

---

11.5. 2025 부회장 신지은 인터뷰

11.6. 동행 1호 국장단 인터뷰

11.7. 선진 기업탐방

11.10. 2025 국장단, 회장 권태은 인터뷰

11.12. 6차 정기회의

11.13. 2025 부회장 송강 인터뷰

11.15. 동물원

11.16. 한국마사회 기업탐방

11.21. 장안제일고등학교 방문

11.28. 늘푸른고등학교 방문, 권기현 선배님 인터뷰

11.29. 관악산 등산

## 12월

---

12.19. 제2회 동행 토크콘서트

12.20-21. 겨울 경주 여행

# 인터뷰

*Interview*

# 교수님 인터뷰

김명후 교수님



2025. 10. 24. (왼쪽부터) 서지현, 조서연, 김명후 교수님, 박민권, 김다운

## 교수님 소개

**1. 아직 교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번학기 동물생명공학전공 교수로 부임한 김명후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를 졸업하였고, 하종규 명예교수님의 지도하에 반추동물 영양생리학 실험실에 석사로 입학하여 석사과정 동안 반추동물영양 연구와 송아지 면역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퍼듀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입학하여 대동물 대상의 장관면역 연구와 마우스를 활용한 영양 대사체 및 영양면역 분야를 연구하여 면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과정 후에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베일러의과대학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에 부산대학교에 교수로

오게되어 여러 연구와 교육활동을 진행하다가, 이번 2025년 2학기에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부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동물영양학을 기반으로 면역학, 미생물학, 대사체학 등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반추동물영양생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맡은 반추동물영양생리학 연구실은 저희 학과 내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실험실인 만큼 큰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서울대 학생들의 니즈를 충족할 만한 새로운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반추동물을 대상으로 영양학과 동물명공학 분야를 연결하는 새로운 융합학문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연구자가 되어 축산분야와 동물생명공학 양쪽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2. 학생으로서 수업을 듣던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돌아와 강의하시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학부생 시절에 수업을 듣던 모교에 교수로서 돌아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 담당하고 있는 수업은 '반추동물영양학및실험'입니다. 9월 첫째 주 목요일에 수업을 하러 강의실에 갔는데, 제가 학부 시절에 수업을 들었던 강의실이었습니다. 2003년에 제가 이 수업을 하종규 명예교수님께 들었고, 약 20년이 더 지나 그때 그 강의실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을 실감한 순간 매우 몽클한 감정이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모교에 정말 돌아왔구나 하고 실감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모두 저의 사랑하는 후배들인 만큼 더 열정적으로 반추동물영양생리학을 가르쳐야겠다는 다짐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 3. 서울대학교에 와서 보내신 한 달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물론 하루하루가 모두 이벤트로 가득한 새로운 시간들이었지만 제가 서울대학교에 오게 된 것을 너무 기뻐했던 나머지, 이곳저곳 사람들 만나며 돌아다니다가 너무 무리를 한 탓인지 학교에 오게 된 시점에 허리 디스크 탈출로 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웃음). 할 일도 많고 인사도 다녀야 하고 해서 가능한 빨리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으나 서울대에 와서 첫 수업을 할 때에도 걸어 다니기도 서있기도 힘들어서,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어쨌든 첫 수업은 무사히 마치긴 했습니다. 그렇게 꿈꾸던 모교로 돌아왔으니 서울대 이곳저곳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싶었는데 허리가 아파서 돌아다녀보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선배 교수님들께 많은 애정어린 핀잔도 들었지만, 잘 버텨내서 지금은 잘 걸어 다니고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인터뷰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진부한 얘기지만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이었습니다.

## 연구 및 진로

### 4. 석사 시절에는 반추동물영양학을 전공하셨는데, 이후에 박사과정을 면역학 분야로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석사 과정을 준비할 때에는 반추동물영양생리학 분야가 전통 축산학의 요인과 미생물학과 같은 동물생명공학과와 새로운 확장성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석사과정을 보내다 보니 영양학만을 배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학문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분야를 스스로 개척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제 자신이 경쟁력 있는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추동물영양생리학을 공부하면서 대동물 사육 시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당시 저희 학과에 윤철희 교수님께서 오시게 되어, 저에게 면역학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 동안은 영양학을 기반으로 송아지 기능성 첨가제 개발 연구와 스트레스 모델 개발 연구 등을 진행하였고, 박사과정에서는 영양학 기반의 면역학 연구를 심화해서 해보자는 결심으로 영양면역학 분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공부했던 영양학과 면역학에 대해 공부하면서 두가지 학문의 융합적 시도를 끊임없이 고민하다보니 현재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5. 미국 유학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연구자로서 경험하셨던 점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또한 유학이나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부생들을 위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반드시 다양한 형태로 외국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해 보면 좋겠다 것입니다. 물론 학부졸업 후 취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R&D 분야나 교수처럼 박사급 이상의 연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박사유학이나 포스트닥 등 외국 연구경험을 꼭 가져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도 이제는 정말 많이 발전하였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문화적 다양성과 학문의 자유성 그리고 창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조금 튀게 행동하거나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더라도 이에 대해 비난하거나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학문분야에 녹아들어 다양한 분야가 지원을 받고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원하는 학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면 충분히 존경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유학의 경우, 학생들이 비용문제를 걱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학생들 이라면 누구든지 열심히 준비한다면 학비 지원을 전액 받고, 경제적 걱정 없이 유학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또한 꼭 연구가 아니라더라도 외국에서의 삶을 살아보는 것은 본인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평생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만 살아보는 것 보다는 꼭 기회가 된다면 다른나라에 가서 살아봐야 여러가지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학부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만큼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은 듯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진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교수’라는 직업과 ‘연구’를 진로로 정하신 건가요?

처음부터 제가 교수가 되기를 희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릴적에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저녁이 되는 그런 바쁜 삶을 살고 싶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꿈꾸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도 학부생때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사료회사, 생명공학 기업, 연구자, 고시, 교수 등 다양한 직업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진로선택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계기도 필요하기도 한데요. 저의 경우 학부생 때 선배들과 조별 발표를 할 기회가 있어 제가 발표를 담당하게 되었고, 기대보다 선배들과 동기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저에게는 인생에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발표경험을 통해 저는 여러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흥미와 만족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더 쌓으려고 노력했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청중들 앞에서 연구내용을 발표하는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 옵션 중 하나가 교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수라는 직업이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심 끝에 결심을 한 이후에는 우선 제가 잘하고 싶은 또한 잘 할 수 있는 연구분야를 선택하는데 누구보다 고심하였고, 그리고 선택 한 후에는 후회없이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 최근에는 학생들이 의생명, 제약 혹은 데이터와 같은 화려하고 융합된 진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학과의 뿌리와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과는 축산학 분야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세포공학, 번식학, 면역학 등 다양한 생명공학 분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서울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학문 간의 경계가 흐려져 기술적으로 큰 차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추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 학과만의 차별성이나 강점을 살리면서도 융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학과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먼저 깊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길로 나아가길 응원하지만, 그 시작점은 자신이 속해 있는 학과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가 중요하고 그 도전을 응원하지만 단순히 최근의 트렌드에 본인을 맞추어 뛰어들었을 때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과 한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인기 있는 특정분야를 따라가기 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현재 트렌드에 가장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8. 학부시절을 돌이켜 보셨을 때, 해보지 못해서 아쉬운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학교의 과동아리나 학과 활동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개인사정도 있었고 그냥 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한 것도 아니어서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가거나 학교에서 나와서 다른 활동들을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쉽게 느껴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이랑 소모임 같은 것도 자주 즐기고, 관심 있는 동아리에도 많이 들어가보고, 서울대 내에 타전공의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시절의 생활 자체는 정말 행복했지만, 동아리나 교내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해보았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저희 학과 후배들은 적극적으로 여러가지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진로 선택에도 큰 도움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 미래와 조언

### 9. 반추동물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고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에 반추동물영양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물론 반추동물산업은 축산학의 대표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전적이라는 것이 뒤쳐졌다는 거나 중요하지 않다거나 새롭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추동물 영양생리학은 동물산업의 중심을 이루는 산업이자 학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처럼 첨단 연구 중심 대학이 여전히 이 분야를 유지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필요성, 미래 산업적 가치가,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반추동물 영양생리를 전공하는 연구실은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 분야는 전문성이 매우 강하고 무엇보다 서울대학교가 어느 학문 분야보다도 경쟁력을 가져 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은 반추동물영양생리학은 학생들이 고전적인 축산 분야라는 인식과 다르게, 면역학, 미생물학 및 분자영양학 등 현대적인 학문 분야에 가장 강하게 융합 가능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 서울대학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0.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반추동물의 영양생리학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목표는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면역학, 분자영양학, 대사체학, 동물세포배양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접목할 수 있는 저희 실험실만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의 차별성있는 실험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그 지향점은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반추동물생산이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일겁니다.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목표도 있는데, 요즘 학생들의 진로를 보면 축산업 관련으로 분야로 진출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것

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응원하지만, 매년 서울대에서 1-2명이라도 반추동물 연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 연구실에 들어와서 석사나 박사과정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하면서 국내외 축산학이나 동물생명공학 분야를 리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 실험실에서 동물영양생리 분야 전문과를 양성하는 동시에 대사체 분석 등 동물생명공학으로 확장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반추동물 연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1. 세부전공 선택을 앞둔 1학년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학년 학생들이 ‘식품동물생명공학개론’이라는 전공 선택 수업을 별로 수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공 선택 이전에 반드시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물생명 분야 안에는 반추동물영양, 생명공학 기술 등 흥미로운 주제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막상 배워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실질적인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수업을 들어보아야 그 분야의 매력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공 선택 이전에 이 수업을 꼭 한 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을 직접 찾아 뵙고 질문하는 적극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해당 분야의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 12. 마지막으로 동물생명공학전공 재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세부 진로를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대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원을 가는 친구들은 어느 연구실로 갈지에 대한 고민도 생길 것입니다. 이럴때 충분한 고민없이 또는 단순히 겉으로 멋있어 보이고, 최근에 트렌드라고 성급하게 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상담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교수님께 상담을 받으면 그 실험실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오해를 하고는 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진로 상담은 선택을 위한 탐색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교수님 세 분 정도를 미리 찾아뵙고, 진로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가 인생의 정말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후회없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반추동물영양생리학에 관심이 생긴다면, 꼭 한번 저를 찾아와주면 좋겠습니다.

# 교수님 인터뷰팀 활동 후기

## 조서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 부임하신 김명후 교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궁금한 점들을 여쭙볼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교수님 인터뷰는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교수님께서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친절하게 말씀해주셔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데, 인터뷰를 통해 교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진심이신지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 김다운

이번 교수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한 분야를 오랫동안 탐구해 온 연구자의 깊이와 진정성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추동물 영양생리학이라는 전통 있는 분야를 기반으로 영양학, 면역학, 미생물학을 융합하며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계신 교수님의 말씀은 학문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 환경 속에서도 본질을 지키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교수님의 태도에서 학문에 대한 진정한 열정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준비하며 교수님의 연구 주제와 학문적 배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전공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 박민권

이번 학기 동행에서는 교수님 인터뷰팀에 속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동자과에 새롭게 부임하신 김명후 교수님을 인터뷰하며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소중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교수님 면담은 감사하게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훌륭한 팀원분들과 함께하여 너무나도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하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졸업생 인터뷰

## 98학번 권기현 선배님



2025. 1.. 28. 허세희, 박가현, 권기현 선배님

### 1. 인터뷰 시작 전 선배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동물자원과학과 98학번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2004년에 아르바이트로 처음 회사에 들어와 현재 21년차로 진바이오텍에 근무 중입니다.

### 기업 소개 [진바이오텍]

### 2. 진바이오텍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바이오텍은 2011년에 다원케미칼을 인수하여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바이오텍은 주로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취급하고 있고, 다원케미칼은 배합사료에 들어가는 비타민, 미네랄 프리믹스 같은 사료 첨가제를 주력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진바이오텍에서는 사료의 품질을 좋게 만들어 가축들의 이용성을 높이는 것이 주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력 상품인 발효 대두박, 펩소이젠이라는 상품의 경우 먹지 않는다고 가축이 죽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원케미칼의 경우는 필수적인 물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의 프리믹스를 급여하지 않을 경우 동물의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역할이 다른 두 회사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3. 현재 회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무엇인가요? 또한 향후 관심을 두고 확장하고자 하는 분야나 계획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바이오텍의 경우 발효라는 기술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체 발효를 이용한 펩소이젠 발효 대두박 판매는 지난 9월 창사 이래 역대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급격한 생산량 증가에 대한 생산 안전성과 증가된 판매량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확장 분야로는 염소 시장에 진출하거나, 비타민을 펠렛 가공 형태로 개발하거나,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 등을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로는 발효를 통해 축산에 도움이 되는 특정 기능이 강화된 생균제 출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현재 사료 시장 속에서의 진바이오텍의 중요성은 어느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축산분야에서 없다고 문제되는 기업은 아니겠지만 진바이오텍과 같은 사료첨가제를 취합하는 회사들은 배합사료 업체들과 다른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합사료 업체들이 경제동물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주요 영양소의 공급에 집중한다면 진바이오텍은 그 중에서도 단백질의 이용성 개선을 타겟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 또 다른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매출액 부분에서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제가 입사했을 무렵인 2004년 대비 10배 정도 성장을 하였고 이제 국내 사료첨가제 회사에서는 국내 시장만으로 한정한다면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이라기 보다는 사료회사와는 다른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5.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나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대답에 앞서,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 그동안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와 시간의 장벽이 있고 여러 문화적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국내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로 넘어갈 때 물류비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고부가가치 제품을 팔아야 진출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보다 해외로 진출했을 때 훨씬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우 앞에서 기술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 시장을 개척하기 보다는 이미 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여러 업체들을 활용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직접 판로를 개척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란 출신의 박사급 인력을 채용하였으며 현재 그 분은 VIV MEA에 나가 계십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해외 시장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6. 배양육 시장의 전망과, 배양육 시장이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배지를 만드는 것을 진행했었으나, 지금은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배양육 시장이 활발해지는 시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의 경우는 상당히 배양육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스테이크나 삼겹살 같이 구워 먹는 형태는 그 자체로도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수 축산 시장이 사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회사에는 주로 어떤 전공이나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영업, 마케팅의 경우 대부분 축산 또는 수산을 전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경영지원 분야는 회계 및 경영 전공자 분들이 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연구나 품질관리 분야에서도 관련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매 분야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분들이 절반정도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을 할 때 예전에는 아무래도 우리 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축산전공자를 선호 했었는데 요즘은 각 업무 분야에 맞는 전공자 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또 입사하고 있습니다.

**8. 마케팅 담당자 채용 시, 마케팅 전공자와 축산 전공자 중 어떤 전공을 우대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같은 규모의 회사들은 일반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는 대형 업체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의미의 마케팅 보다는 기술지원 및 인허가 파트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마케팅 부서는 석박사급 인력 분들이 시장분석과 이를 통한 제품개발, 기술자료 작성 및 교육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군들의 경우 MBA 학위 소지자나 BCG (Boston Consulting Group) 출신과 같은 전문가들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축산관련업체에서는 축산전공자나 수의 전공자 분들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며 됩니다. 따라서 어떤 전공을 우대한다기 보다는 축산관련 전공자 분들이 대부분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선배님 소개

### 9. 선배님께서 속하신 B2B 영업본부는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으며, 선배님은 그 안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B2B는 ‘Business to Business’의 줄임말로,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우리 회사는 사료 첨가제 회사이기 때문에 B2B 영업본부는 사료 회사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진 바이오텍과 다윈, 양사의 B2B 영업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B2B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거래처 관리, 인력 관리와 영업에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10. 팀을 이끌 때 선배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리더십 원칙이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는 팀원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는 큰 방향을 설정해 두고 팀원들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박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 ‘그럼 허 대리는 어떻게 생각해?’와 같이 묻습니다. 그러면 팀원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팀원들의 결정이 회사에서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만 하고 팀원들이 직접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스스로 결정해서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회사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한 저는 복잡한 상황, 예를 들면 원료 가격 사정이 좋아 평상시보다 더 성과에 욕심을 낼 수 있으나 부작용 또한 있을 수 있는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가자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세울 때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팀원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회사 방침에 대해서는 어기지 않는 선을 정합니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 두면 제가 해외 출장 중이거나 연락이 잘되지 않을 때에도 팀원들이 제가 있을 때와 똑같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매번 똑같은 것을 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말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활동들을 팀원들이 하게끔 하려고 노력합니다.

### 11. 지금의 선배님을 만든 핵심 경험이나 전환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핵심 경험을 말하자면, 지금의 이사 자리에 오기까지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겪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회사에서 약 20년 동안 근무했던 시간이 가장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사가 성장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부족하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 입사 초기 저와 지금 다윈의 대표로 계시는 박주선 대표님 (96학번 선배님이십니다) 둘이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10명이 넘는 인원이 해야 할 일들을 했었습니다. 구매, 마케팅, 해외사업 지원, 인허가 업무, 영업지원 등등 정말 많은 파트의 일들을 했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업무량 때문에 퀄리티는 지금보다 낮았을 수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못 자는 날이 많았고, 회식도 업무의 일부라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회식을 하고 돌아와 다시 일을 하고, 회사에 침대까지 가져다 두고 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 보면 그 시기에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행정 업무, 해외 손님 의전 및 관광 안내, 박람회 준비를 위해 충무로를 뛰어다니며 실제 샘플을 만들어 보고, 연회장이나 다이어리를 제작하기 위해 인쇄소를 다니며 견적을 받는 일까지 몸으로 부딪히며 배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치가 쌓였고, 회사 안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다 보니 흔히 말하는 ‘가장 즐거운 직급이 대리’ 라는 시기도 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주임에서 과장으로 바로 특진을 했는데, 아마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시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중요한 포인트를 돌아보면, 가장 열심히 일하며 가장 많은 경험을 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수분이 그만두신 이후 거의 혼자 일을 감당하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을 정말 미친 듯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좋았고, 앞뒤 가릴 것 없이 오직 영업만 생각했습니다. 수입이나 회사 비용 집행 같은 것은 위의 고참분들이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영업만 해라”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쌓아두었고, ‘그래도 권기현은 정말 열심히 영업한다’ 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해주셨던 것이 이후에도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와 주었고, 그분들이 방향을 잘 따라주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지금까지의 핵심 경험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바이오텍 X 동창 산학협력 프로젝트

### 12.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의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의는 ‘연결고리를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선후배 분들이 오고 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후배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흐름이 끊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와도 겹쳤고, 학번 차이도 점점 커지다 보니 점점이 줄어들고, 후배들과 이어지는 고리가 약해졌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송년의 밤 같은 과 행사들에 계속해서 참여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태은이(20학번 권태은)를 통해 동창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후배들이 회사에 와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회사 선배들 사이에서도 “이번에 졸업하는 후배들 중에 괜찮은 인재가 있나”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요즘 후배들이 업계로 잘 안 나온다”는 말도 종종 들리지만,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연결 자체만으로도 이번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충분히 큰 의의를 갖는다고 봅니다.

### 13.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성장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저는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우는 지점은 현실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미팅을 잡는 것부터 쉽지 않고, 게시물을 업로드해도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과정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흔히 말하듯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핑계가 보이고,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인다’ 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공부, 인터뷰, 취업 준비처럼 하고 싶은 일이 많을 때 오히려 이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우선순위

를 세우는 기준,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을 정리하는 방법론을 배우게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산정하고 승인받는 과정, 협업에서 생기는 절차와 제약 같은 것들은 실제 현장에서 반드시 겪게 됩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도 “이건 이미 누가 해봤던 건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왜 그 아이디어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경험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은 비슷할 수 있지만, 거기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차별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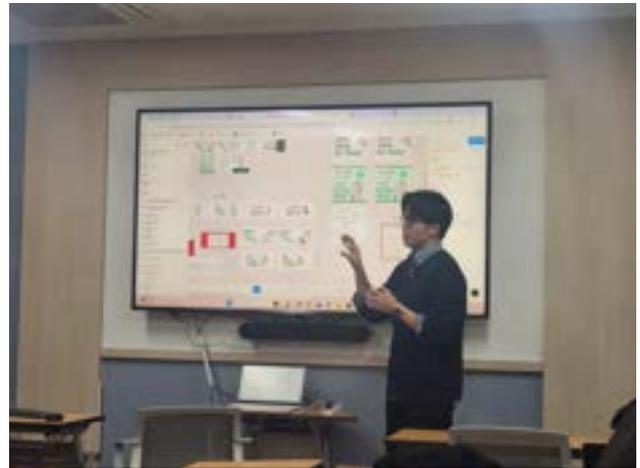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이 이번 경험으로 '선배들이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아니구나'를 느끼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동문이 우리 학교, 우리 과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회사 예산을 쓰느냐”라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 과에서 이 분야가 이어져야 하고, 회사와 후배들이 현장에서 만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왜 하는가’가 분명하면, 그 뒤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학생들도 더 당당하게, 더 멋진 사회인으로 선배들을 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4. 기업 입장에서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갖는 장점과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인 기업의 산학협력이 때로는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바이오텍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저는 학생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실제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후배들이 진바이오텍을 더 많이 접하게 되면, 이는 장기적으로 인재 채용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배들이 저희 회사로 직접 올 수도 있고, 혹은 좋은 인재들을 서로 소개해 주는 연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저는 대표님의 철학이 이번 협업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학생들과 후배들의 성

장이 실제로 의미 있다고 느끼고, 그런 점에서 뿌듯함을 갖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이를 우리 분야 회사의 의무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15. 이번 프로젝트 이후에 추가로 시도해보고 싶으신 협업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pet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pet뿐 아니라 축산, 동물영양 분야까지 넓혀서, 이쪽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과 더 깊은 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창업을 고민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회사와의 접점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학기에도 대표님께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볼 생각인데, 다만 현실적으로 프로모션 기획안이 다음 학기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런 산학협력은 1~2년 단위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다음 후배들이 이어간다면 한 학기 단발이 아니라 3~4기 이상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 형태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창업 의지가 있는 후배들이 회사와 함께 실제로 같이 창업하는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좋은 사례가 더 큰 회사로 성장하고, 업계 다른 회사들도 부러워하며 비슷한 모델을 확산시키는 흐름이 생긴다면, 결과적으로 축산과 pet 분야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기업팀 활동 후기

## 박가현

진바이오텍에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응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 동안 진바이오텍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경험 자체가 큰 영광이었으며, 특히 권기현 선배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과 개인이 성장해 온 과정과 현업에서의 실제 경험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선배님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진솔한 조언을 통해 진로와 산업 전반에 대해 한층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준 세희와 수민이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행 소식지 활동을 통해 선배님들과 직접 연결되고, 현업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험은 앞으로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진바이오텍과 모든 관계자분들, 1년 동안 고생해준 국장 진현이와 부국장 지현이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허세희

학년이 올라가면서 대학원 진학, 취업, 창업 등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활동은 기업 취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취업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진바이오텍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이론적인 공부를 넘어 실질적인 배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학기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항상 저희 학과를 응원해 주시는 권기현 선배님께 감사드리며, 늘 고생해 주시는 동행 회장·부회장인 진현 언니와 지현이, 그리고 함께한 팀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 최수민

바쁘신 시기에 시간 내어 인터뷰 응해주신 권기현 선배님과 가현, 세희 선배님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동창에서 진바이오텍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행에서도 권기현 선배님의 인터뷰에 함께하게 되어서 더욱 의미있었습니다. 수업 일정과 겹쳐서 인터뷰 당일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인터뷰 질문들을 준비하고 기사를 작성하면서 선배님의 회사에 대한 애정과 우리 분야에 대한 관심과 사랑, 후배들을 위하여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동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배님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들었던 것에 더하여, 이번 인터뷰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뜻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축산 분야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시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시하시는 선배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바쁜 학교생활과 진로 고민이 많은 시기에 오랜 경험이 담긴 조언 들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작성에 힘써준 동행 기업팀에게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어제의 동행을 만나다

동행 1호 국장단 인터뷰

13학번 김도경, 김수지, 권태성 선배님



2025. 11. 6. (왼쪽부터) 유혜인, 김민환, 이영표, 권태성 선배님, 김도경 선배님, 김수지 선배님

졸업생 인터뷰팀은 『동행』 발간 10년(20호)을 맞아, 1호 발간을 이끌었던 초대 국장단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는 목요일 저녁,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팀은 선배님들께 현재 『동행』의 모습을 간단히 소개드렸고, 선배님들께서는 학부 시절 동자과에서의 추억을 들려주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당일 모두 저녁을 먹지 못한 채 모였던 터라, 선배님들께서 수제 햄버거를 사주셨고, 인터뷰팀은 맛있는 식사를 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Episode 1. 초대 국장단... 누구인가요?

### 1.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도경]** 안녕하세요, 동행 1호 국장을 맡았던 13학번 김도경입니다.

**[김수지]** 안녕하세요, 동행 1호 부국장이자 디자인팀 총괄을 맡았던 13학번 김수지입니다.

**[권태성]** 안녕하세요, 저도 동행 1호에서 부국장 겸 학부생팀을 맡았던 13학번 권태성입니다.

### 2.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하며 지내고 계신가요?

**[김도경]** 저는 지금 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도 각자 맡는 분야가 조금씩 다른데, 저는 전공을 살려 생명과학 분야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에 다니며 공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졸업학기 진행 중이라 논문을 작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김수지]** 저는 현재 당근에서 프로덕트 매니저(PM)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만드는 일을 좋아해서 퇴근 후에는 책도 두 권 썼고 최근에는 폴댄스를 열심히 배우며 의상 제작 수업도 듣고 있습니다.

**[권태성]** 저는 졸업 후 장교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여러 일을 경험하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을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 3. 전공 지식이 진로 선택이나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었나요?

**[김도경]** 저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 시절 배웠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때 배운 지식만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한 다기보다는, 생명과학 기술 전반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점이 큰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발명품이 들어올 때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지]** 저는 전공이 현재 업무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부 때 벤처경영을 복수전공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하는 일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생명과학과 IT 등 여러 분야가 서로 융합되는 분위기이다 보니, 생명과학 기반에 IT 기술을 결합한 회사들에서 제 프로필을 보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은 전공 지식을 많이 잊기는 했지만, 완전히 기초가 없는 사람보다는 생명공학 분야를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태성]** 전공 지식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저는 생명공학 전공을 직접적으로 살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경영지원 직군에 들어가 구매·통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공 지식보다는 장교 경력이나 행정고시 준비 경험 등이 지금의 업무에 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Episode 2. 『동행』, 그 시작의 순간들

### 4. 『동행』을 만들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김도경]** 저는 대학 생활 4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4학년쯤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4학년이 되었을 때도 1학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 다. 사회로 나가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 다. 그때, ‘졸업한 선배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 의문이 『동행』을 기획하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도대체 동자과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진로의 폭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나가시거나, 연구실에 남아 계시는 다양한 선배님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동행』은 선배들의 실제 진로와 삶을 알고 싶다는 질문에서 출발해,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소식지로 정착한 프로젝트였습니다.

### 5. 초창기 『동행』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나요?

**[김도경]** 당시에는 직장인 팀, 대학원 팀, 학부생 팀 등으로 나누어 활동했습니다. 각 팀에는 디자인 팀 인원을 1명씩 배치해서 기사 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고, 각 팀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할지 팀별로 정하고는 했습니다. 활동 운영비는 장터를 열어 마련했었습니다. 정기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행했었고, 회의 이후에도 함께 남아 늦게까지 작업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권태성]**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각자 세미나도 한 가지씩 맡아서 진행했었습니다. 디자인할 때 필요한 소스나 규격을 맞추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세미나도 진행했었고, 제 경우에는 맞춤법이나 작문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잘 모르는 부분은 그때그때 새로 공부하여 팀원들에게 설명하면서, 함께 배우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 6. 『동행』을 처음 발간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김도경]** 마감할 때가 되면 거의 매일같이 녹두 근처 카페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작업을 했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때 수지 씨와 ‘소연’이라는 친구가 함께 있었는데, 셋이서 새벽까지 계속 작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서너 시쯤 작업이 끝나면, 같이 PC방에 가서 오버워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행 1호를 만들 때 작업 방식에 대해서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1호를 만들 때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호였기 때문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20~30페이지 정도로 간단히 할 수도 있었지만, 처음인 만큼 최대한 공을 들이자는 생각으로 작업했습니다. 오래 이어지는 잡지를 만들고 싶어서, 첫 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자인팀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분량도 많이 넣으려고 했고, 다양한 형식도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톡 형식의 구성, 중간중간에 만화 삽입 같은 방식이었는데, 그 만화는 태성 씨가 직접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워낙 잘 그려서 자연스럽게

잡지에 녹아들었습니다.

**[권태성]** 제 생일이 7월 19일인데, 그때도 마감 준비 때문에 한참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작업하던 친구들이 케이크를 사서 카페로 가져와 축하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도경씨의 경우 동행 활동 초반의 동아리 운영 방식에 대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수익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유료로 갈지, 혹은 무료로 발행하고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할지를 두고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경씨가 “후원을 받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설득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도경]** 당시에는 후원 경제나 구독 모델이 익숙하지 않던 시기였지만, 선배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위해 졸업생 명단을 받아 구독 의사가 있는지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7. 당시 과사와 선후배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김도경]** 그땐 과사에서 별도의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13학년이 저희 셋이었고, 함께 만들던 인력도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에는 여러 학년이 있었지만 실제로 참여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14·15학년 친구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4학년이었기 때문에, 후배들과 함께하는 편이 더 편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그렇게 팀을 꾸렸습니다. 참여 인원 중에는 정말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1학년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4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첫 호를 제대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회의도 자주 잡고, 일정도 엄격하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2학기에 시작해서 학기가 끝나기 전에 1호를 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모여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완성되고 나서는 모두

재미있어 했고, 저희가 군대에 간 뒤에도 후배들이 이 잡지를 계속 이어갔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 중에는 과에 특히 애정을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재언이 형, 재학이 형, 상현이 (14학년) 같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 형들은 “나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 앞으로도 계속 잘 이어가라”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교수님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한다고 “공부 안 하고 장사만 한다”고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지가 나온 뒤에는, 대학원에 학생이 잘 오지 않던 시기였다는 점도 있어, 학생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창구가 생긴 것을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Episode 3. 1호 국장단, 책임의 자리를 마주하다**

**8. 국장단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권태성]** 아무래도 본분이 학생이다보니 시험과 시기가 맞물릴 때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들 공감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에 특별히 다른 활동을 더 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동행 활동을 하면서 여러 압박이 들어오는 것들을 관리하고 이겨내야 했던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지]** 저는 사실 당시에 동행을 엄청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과 친구들과 놀면서 동행을 통해 진로 탐색도 하고, 활동이 끝난 후에 또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평소에 놀던 것에 틀을 심어둔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순간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 9. 그와 반대로, 국장단으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김수지]** 뿌듯했던 순간은, 저는 당연히 동행 활동을 마무리하고 1호를 완성했을 때입니다. 아직도 동행이 끝나고 선배님들께 출간 홍보 메일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역시 그때가 가장 뿌듯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도경]** 아무래도 저희가 동행 1호를 만들 때 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저도 잡지를 완성했을 때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형식이 어느 정도 통일된 부분이 있기에 디자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크진 않을텐데 1호를 제작할 때는 글과 별개로 이걸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잡지처럼 만들고 싶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출간물의 형식을 정해놓지 않으면 동행이 지속가능해가 어렵겠다고 생각되어 따로 템플릿을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디자인 인재들이 한 학년에 한두 명밖에 되지 않을뿐더러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애당초 글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기에 좀 고행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팀과 동행 팀원들 모두가 고생하고 노력해서 만든 동행 1호가 잡지의 형태로 성공적이게 나왔을 때 더욱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권태성]** 저는 사실 동행 잡지를 만들면서 가장 주안을 뒀던 부분이, 저희끼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에피소드가 많고 서로 친한데 이 자세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때 좀 끼리끼리 노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3자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기에, 동자과에 대해 잘 모르는 타인이 동행의 잡지를 읽으면서 '아 또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하며 웃어줄 때 되게 뿌듯했었습니다.

## 10. 창간 당시의 『동행』이 추구했던 방향, 꼭 이루고 싶었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권태성]** 9번 질문에서 했던 답변과 이어지는데, 저희가 과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되 그게 너무 끼리끼리 노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모두가 공감하면서 웃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또 동행을 읽는 졸업생분들이나 동자과와 관계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 동행 잡지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도가 적을 수도 있다는 것에 유념하여 이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김도경]** 저는 동행을 통해 동자과 학부생들에게 과 선배님들의 진로 등과 같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며 이 과에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1호를 만들 당시에 전 4학년이었기에, 제가 보기 위해 만들었다기보다 그때의 1학년, 2학년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목표로 동행을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동행'이라는 이름처럼 학부생들이 같이 으쌰으쌰해서 진로 고민도 해보고, 서로 도우면서 즐겁게 동아리를 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길 바랐습니다.



**[김수지]** 아마 국장단 내에서도 목표는 각자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저 동행 1호가 생각한대로 무사히 잘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 Episode 4. 그때의 『동행』이 지금의 『동행』에게

### 11. ‘동행’이 20호를 맞은 지금, 어떤 기분이신가요?

**[김수지]** 일단 정말 신기했고 사실 인터뷰 장소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당시에는 거창한 생각 없이 항상 같이 놀던 친구가 동아리를 만든다기에 함께 시작한 것이었는데, 회사도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서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동행도 처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서 신기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인생에서 어떤 조직이나 성과물 같은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학부생 시절에 그런 걸 하나 만들었었구나 라는 사실을 뒤늦게 좀 알게 돼서 되게 기분 좋고,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김도경]** 기분이 신기하고,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동행을 처음 만들고 1호 활동을 할 때 부원들을 너무 고생을 시켰는데, 당시에 저희 국장단은 4학년 2학기였어서 저는 이후에 군대에 가야했고 태성이는 장교, 수지도 취준과 졸업 준비를 하느라 1호를 완성한 후 세 명 모두 동아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 힘들었을텐데도 이후에도 애들이 계속 같이 동행을 이어서 하는 모습을 보며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한편으로는 ‘그래. 좋았나 보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습니다.

**[권태성]** 신기하고 뿌듯합니다. 이 동아리를 계속 이어서 해왔다는게 참 기분이 새롭네요. 동행을 만들 당시에는 물론 자발적으로 가입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냥 친한 후배들과 얘기하거나 놀면서 같이 하자고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호 활동 이후에도 새로운 부원들을 계속 모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였는데 지금까지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사람이 더 많아져서 로드를 맞추며 다같이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 좋습니다.

### 12. 지금의 ‘동행’에 기대하시는 점과 앞으로의 바람을 들려주세요.

**[김도경]** 저는 사실 동행에 부담을 갖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어떻게든 재미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도 놀고 선후배들이랑 이걸 하면서라도 얘기를 더 하고, 그렇게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학 다닐 때가 너무 재밌었는데, 그걸 더 재밌게 하는 요소로 썼으면 좋겠고 동행을 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김수지]** 저도 완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냥 부담 안 갖고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걸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그냥 재밌어서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도경]** 그리고 뭐, 이거(동행) 없이도 선배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동행’ 없이 만나기는 정말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보자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랑 소통할 만한 창구로 잘 써 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동행을 보면) 선배들을 불러서 진로 세미나 같은 것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권태성]** 저는 약간 관점은 다른데, (동행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있고 시간이 쌓여서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고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는 것도 동감합니다. 근데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창조적인 파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똑같은 걸 다 답습하려 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번에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활동한다든가 하는 것 같이 새로운 시도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Episode 5. 학부 시절을 돌아보며

### 13. 학부 시절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김수지]** 아 너무 많은데, 사실 저는 1, 2학년 때 그냥 하루 종일 붙어 있었던 데서 나오는 소소한 일들? 그런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그때 기숙사를 살았었는데, 야식 먹고 배부르니까 그냥 걸어서 학관 앞에 앉아 있고 자하연 앞에 앉아 있고(웃음) 했던 일들이 기억에 남네요.

**[김도경]** 우리과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선배들이 항상 밥을 엄청 사줬어요. 그래서 2학년이 20명 있을 때 1학년이 들어오면, 20번씩 1대1로 약속을 잡아서 무조건 밥을 한 번씩은 사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항상 후배들에게 ‘나한테 밥 사달라고 해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친한 애들 셋이 모여서 ‘오늘은 누구 불러?’ 이랬거든요(웃음). 그렇게 선배들이 밥을 사주면 선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선배들) 놀아주는 거였습니다. 선배님들도 돈은 내지만 즐거워하셨던 것 같습니다(웃음).

그렇게 2~3시까지 놀고 각자 방에 들어간 다음에는 <모두의 마블> 같은 게임에 접속해서 컴퓨터로 또 놀았습니다. 한 5시까지 그러고 놀았는데, 그런 생활을 1학년 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버워치>도 많이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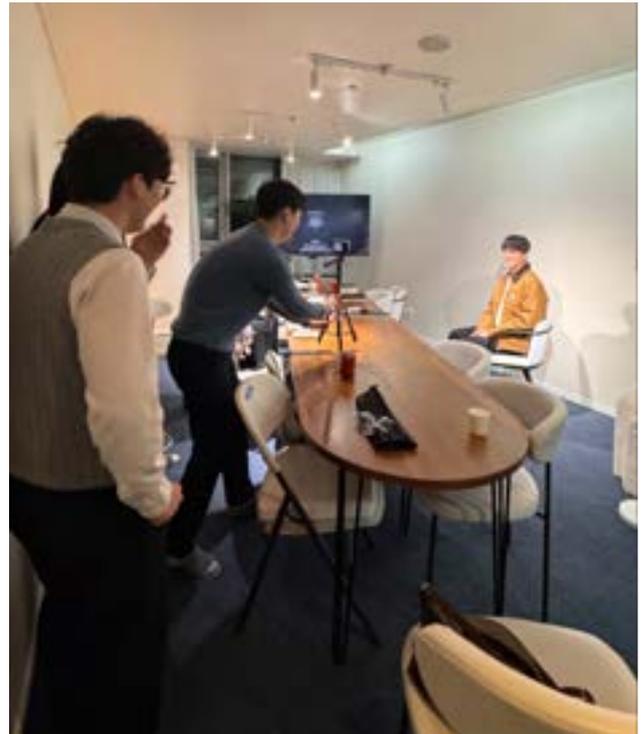
**[김수지]** 도경이가 <오버워치> 진짜 많이 하던 모습 생각나네요.(웃음)



### 14. 그 시절의 ‘나’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권태성]** 정해진 인생은 없습니다. 장난스럽게는 “비트코인을 사라”고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웃음). 그 시절에는 돈도 없고 생활도 빠듯해서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조차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방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영어는 꼭 해 두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김도경]** 학부 시절을 잘 보냈다고 생각해서 크게 후회되는 건 없습니다. 그때도 분명 고민과 부담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지나간 일들이죠. 다들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결국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때의 나에게는 그냥 “더 놀아라, 더 재밌게 지내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김수지]** 저는 “중앙동아리 한 번 해 봐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했던 활동들도 좋았지만, 학교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해 보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15. 마지막으로, 동자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김도경]** 대학에서는 재미있는 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가볍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기이니, 동아리든 외부 프로그램이든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 서울대에는 생각보다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와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교환학생, 언어교육원, 각종 교내 지원, 운동·예체능 교양수업 등 다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생각 보다 세상은 따뜻하고, 먼저 연락을 하면 대부분 잘 받아줍니다. 사람을 만나며 배우는 것들이 앞으로 큰 자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수지]** 새로운 활동을 해보는 데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SNU in Washington’ 같은 외부 프로그램 참여와 복수전공을 하면서 “우리 과 학생들은 정보가 적어서 기회를 못 누리는 경우가 많다” 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어 억울한 마음 도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는 운동 수업부터 언어교육원, 교환학생까지 학교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경험이 정말 소중한입니다. 대학은 금방 친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태성]** 저도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공부 는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회비용이 커져서,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공부를 이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 더 크게 느끼 게 됩니다. 동시에, 대학 시절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 보고 연애도 해보고, 여러 활동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자신 의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자과에 들어왔 다고 해서 꼭 한 길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전공을 들어보고 다른 분야도 배워보면서 적응하는 능 력을 키우는 것이 결국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 공부는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두면 분명 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창간기의 기억부터 오늘의 ‘동행’ 에 이르기까지, 국장단이 걸어온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도 ‘동행’ 하나로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이 남긴 발자취 위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왔던 것처럼, 이번 20 호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행』 20호 특집: **어제의 동행을 만나다.**  
 끝.

# 졸업생 인터뷰팀 활동 후기

## 이영표

이번 졸업생 인터뷰는 저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선배님들 인터뷰 섭외부터 진행, 정리까지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분명히 헤쳐나가기 어려웠을 순간들이 있었지만,과의 선배, 동기들과 함께였기에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으며, '동행'이 어떻게 10년 동안 이어져왔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동행 활동 역시 이런 연결이 이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후배가 서로의 길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앞으로도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 김민환

비록 긴 시간 동안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때만큼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만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유혜인

우선 인터뷰와 기사 작성에 큰 도움을 준 영표 팀장님과 민환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바쁜 시기에도 선뜻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배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선배님들과 마주하며 대화할 기회가 많이 없기에 이번 활동이 더욱 뜻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장소를 정하고 어떤 질문을 드려야 할지 마냥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팀원들의 노력과 선배님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신 덕에 무사히 그리고 재밌게 인터뷰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행의 의미에 대해 크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오늘의 동행이 어제의 동행을 만나다”라는 컨셉으로 동행 1호 국장단 선배님들을 뵈고 질문하며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동행이 만들어진 배경, 초반의 목표와 방향성, 당시 분위기, 선배님들의 생각 등을 듣고, 초반의 동행의 의식을 넘겨받아 동행 20호도, 또 그 이후의 동행도 신입생과 재학생이 모여 좋은 관계를 이루고 즐겁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형식 또는 활동 등도 도전해보며 더 발전해나가는 동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의 말씀대로 동행을 하는 모든 부원들이 부담감보다는 즐겁고 재밌게 활동을 했으면 하며, 앞으로 있을 동행의 모든 활동들도 기대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 2025 회장단 인터뷰

20학번 권태은, 22학번 신지은, 24학번 송강



## 동자과 회장단으로 보낸 1년

### 2. 회장단을 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권태은]** 작년 회장이 같은 20학번 찬영이였는데, 6월부터 조금씩 차기 회장 출마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22학번 지은이로부터 같이 회장단을 하고 싶다고 제의가 왔습니다. 지은이와 함께라면 어떤 험난한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끼는 후배인 24학번 강이까지 함께 회장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지은]** 옛날부터 집단의 장을 맡아 여러모로 기여하고, 이끌어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25년도 전공 회장단에 관심을 가지던 중 마침 태은언니한테 전 회장인 찬영 선배가 차기 회장을 제안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언니에게 바로 함께 회장단을 꾸리자는 얘기를 했고, 24학번 중 그 당시 친했고, 성격도 좋은 강이에게 부회장을 제안하며 셋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송강]** 평소에 학과에 관심이 많았던 편이었고 특히 동물생명공학전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배들에게 회장단 제의를 받게 되어 운이 좋게도 부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특별한 계기는 없었는데 평소 과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 소개

### 1.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권태은]** 안녕하세요, 현재 동물생명공학전공의 회장을 맡고 있는 20학번 권태은입니다. 이번 학기가 졸업 학기입니다!

**[신지은]**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생명공학전공 22학번 신지은이고, 동물생명공학 회장단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송강]** 안녕하세요, 동자과 24학번 송강입니다. 현재 동자과 부회장을 맡고 있고 얼마 뒤면 임기가 끝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곧 군대를 갈 예정입니다. 입대까지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웃음).

### 3. 회장단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권태은]** 기억에 남는 순간이 많아 오히려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새터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새터를 그때 처음 가 봤어요. 1학년 때 코로나로 새터가 취소되었거든요...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새터에서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아서 조금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회장단은 춤 무대가 필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깜찍한 춤을 췄던 게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20학번이 왜 아직도 학교에... 라는 눈빛을 받으며 신입생들과 친해졌던 기억이 나네요!



2025. 2. 18. 농업생명과학대학 새내기 새로배움터

**[신지은]**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새내기 배움터에서 새내기들을 만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새내기 때 새터를 가지 못했어서, 조금 더 설레는 마음으로 새터를 갔던 것 같습니다. 수시, 정시 오티에서 보았던 친구들과 구호를 외치며 했던 게임과 다과회, 급하게 준비해 보여줬던 춤마저도 즐거웠고, 피곤할텐데 함께 하여 분위기를 더욱 복돋아 준 재학생 친구들에게 고마웠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새내기를 맞이하는 한편 졸업예정자들을 위해 졸업식 및 졸업선물 전달을 준비하는 것이 첫 전공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 찾고, 주문한 선물을 다들 너무 잘 쓰고 있다는 후기를 남겨주셔서 무지 뿌듯해했던 게 생각납니다.

**[송강]** 활동을 정말 많이 했어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정말 많긴 하네요. 부회장을 맡고 하게 된 첫 활동이 등자와 종강파티였는데 임기 첫 업무라 그런지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2025 새로배움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처음으로 통솔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새내기 친구들이 처음 대학교에 들어온 것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재밌고 즐거운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을 무박 3일처럼 보내고 나니(웃음) 끝나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와서 몸살이 난 기억이 있네요.



2025. 11. 6. 오픈랩

최근에 진행했던 오픈랩 행사도 기억에 남는데, 여러 연구실들을 돌아보면서 군대를 다녀오고 난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4. 동물생명공학과와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권태은]** 학부생 선후배들간의 끈끈함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입생 친구가 말해줬는데, 20학번 25학번이 서로 반말하는 과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자과는 학번 차이가 크더라도 굉장히 친하고 끈끈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지은]** 아무래도 선후배간의 관계가 좋은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부생끼리도 그렇지만 졸업하신 선배님들과도 만나면 밥 한 끼는 꼭 사주려고 하시고, 뭐든 챙겨주려고 하시는 그런 정이 우리 전공의 고유한 문화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공 행사가 다양하다는 것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동물생명공학 전공의 베이스는 축산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텐데, 기본적인 생명과학, 생명공학적인 지식에 더불어 축산 현장에 특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전공에서만 배울 수 있는, 우리 생활과 경제에 밀접한 경제동물 및 축산 분야의 경험은 큰 경쟁력을 지니는 것 같습니다.

**[송강]** 대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새내기 때 느꼈던 장점 1순위를 뽑자면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와 단합하는 분위기가 다른 과에 비해서 특별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2학년이 되고 느끼게 된 또 다른 장점은 취업을 비롯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의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동자과가 좋은 학과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025. 11. 13. 송강, 추채윤

5.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소감이 궁금합니다.

**[권태은]** 1년을 무사히 마무리했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물론 단순히 좋기만 한 건 아니고, 아직 모집을 받지 않는 않지만 다음 회장단이 될 친구들에게 잘 인수인계를 해줘야겠다는 책임감도 생깁니다. 격년으로 1회만 진행했던 기업탐방을 올해는 선진, 카길, 마사회 이렇게 세 곳이나 가게 된 배경 등, 이번에 새롭게 하게 된 활동에 대해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신지은]** 벌써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고, 돌아보면 많은 일을 해온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학부생들과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어 좋았고 회장단을 시작하며 복지, 진로 설계 도움 등의 차원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꽤나 많이 달성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송강]** 빠르다면 빠르고 느리다면 느리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네요. 처음 임기를 시작한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동안 여러 활동과 행사를 진행했고, 그 와중에 전공 수업도 처음 들으면서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행사도 없고, 남은 일이 다음 회장단을 선출하는 일밖에 없네요.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나면 끝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보니 진짜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벌써 대학 생활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서 그것도 같이 겹치다 보니까 감회가 좀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 개인 질문 [회장 권태은]

#### 1. 벤처경영 전공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벤처경영 연합전공은 하다가 졸업을 위해 그만 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이 많아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업 중에 여러 프로젝트를 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벤처경영연합전공에서는 창업을 배우기 때문에, 창업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거의 매 수업마다 진행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력을 확실히 기를 수 있습니다. 꼭 창업할 생각이 없어도 졸업하면 경영학사가 나오니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창업하고 투자를 받아보신 분이냐,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 시야가 넓어지고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 11. 10. (왼쪽부터) 추채윤, 권태은, 황은규

#### 2. 차세대 축산리더 아카데미 팀프로젝트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그 과정과 소감이 궁금합니다.

‘차세대 축산리더 아카데미’ 프로그램 공지가 올라왔으나, 이전까지는 아무도 해 본 사람이 없어 베일에 싸여 있던 대외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해보고 전공 내에 후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학교 축산과 학생들은 어떤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과는 한 학년에 소속된 인원이 비교적 적어 다양한 진로를 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아쉬웠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축산과 학생들과 진로 목표와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세대 축산리더 아카데미를 통해 카길 평창 연구소에서 여름방학 때 3주간 실습을 했습니다. 한우 실험농장에서 기호성 테스트 실험을 직접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을 카메라로 찍으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기록되는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해보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대학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이 궁금합니다.

대학 입학 직전 코로나가 시작되어 절망했던 것이 가장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2학년이 끝날 때까지 학교에서 정식으로 대면수업을 하지 않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대학교에 오면 술도 먹고, 다같이 모여서 많이 놀고 할 줄 알았는데 처음 신년회 행사 이후로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입학식을 포함해서 어떤 행사도 개최되지 않았던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3학년부터는 즐거운 대학 생활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네요(웃음).

4. 후배들 또는 앞으로 입학할 새내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입학 직전까지도 타 대학 수의대와 우리 전공 중 매우 고민하다가 동물생명공학 전공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각 분야의 정점에 계신 교수님도 많이 만나 뵙고, 수업 프로젝트나 동아리도 많이 해보면서 열정 있고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성장의 큰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열어놓고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서울대의 장점이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해 보고, 본인의 꿈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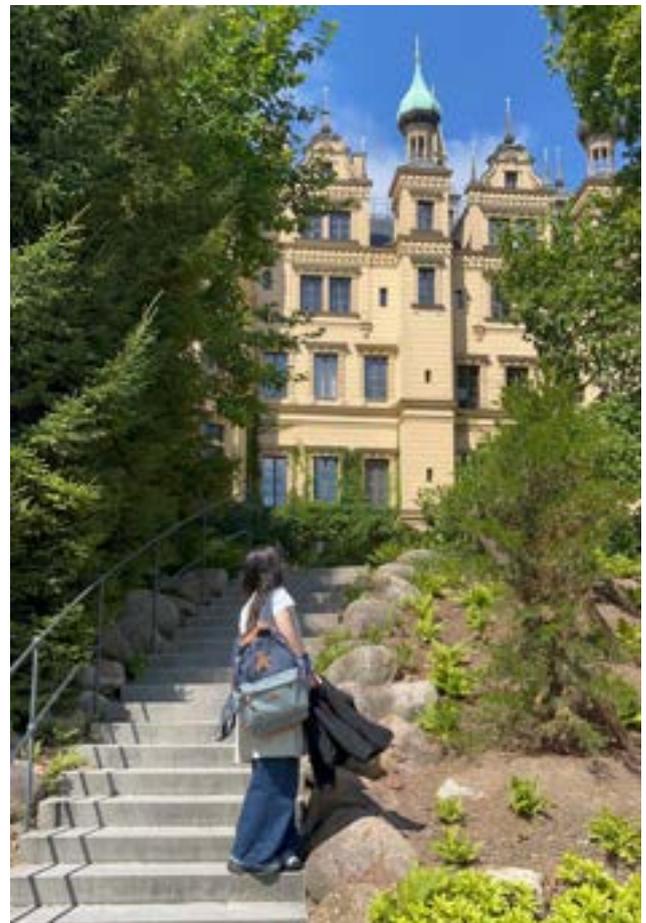


2025.7. SNU in World Program (신지은)

개인 질문 [부회장 신지은]

1. 스누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누인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단과대 친구들이 관심있는 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모여 해외탐방을 약 2주정도 다녀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스누인 런던 & 라이프치히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의 교수님께 강의를 들어볼 수도 있었고, 큰 규모를 자랑하는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 오픈 시간 전에 들어가 큐레이터 분께 설명을 듣는 등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너무 좋은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항상 즐거웠고, 아직까지 연락하고 종종 만나는 소중한 인연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시기가 다 되어서야 스누인 프로그램을 알고 다녀온 것이 너무 아쉬웠을 정도로 얻어온 것이 많았기에, 이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친구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2. 현재 하시는 동아리 또는 과거에 하셨던 동아리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궁금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동아리는 없고, 예전에는 과동아리 위주로 활동했습니다. 동행, 동창, 동백에 참여했는데 아무래도 회장을 맡았던 동백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동백이라는 학술동아리 성격 상 분위기가 딱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마니또도 운영하고, 회식에서도 선후배가 많이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는데, 동아리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화기애애한 동아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논문 분석하던 활동에 더해 생물정보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는 나름의 도전을 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생물정보학 쪽으로는 초보라, 어떻게 다 함께 성장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하던 중 나이셈(NICEM)과 컨택하여 과사에서 동물생명공학 전공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정보학 특강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 내용에 조금은 힘들었지만 단순히 학생들끼리만 해보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전문성을 조금 더 부여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던 활동이었습니다.

**3. 후배들이 학부생 시절에 꼭 해봤으면 하는 활동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누인도 너무 추천하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 회사에서의 대학생 인턴 등의 프로그램이 꽤 많습니다. 마이스누, OIA, 경력개발센터, 다양한 융합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관심있는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떤 유형이든 해외 경험은 앞으로의 삶과 가치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융합대학 홈페이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알기로 빅데이터, AI, 그린바이오 등의 혁신융합대학 차원에서도 해외 견학프로그램을 풍부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경험을 쌓는 동시에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경험과 지식까지 얻을 수 있는 귀한 경험들을 많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경로마저 좀 늦게 알게 된 편이라, 졸업 전에 남아있는 방학은 한정적인데 관심이 가는 활동들은 너무 많아서 더 일찍 알아볼 걸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ㅠ.ㅠ



**4. 실험실 인턴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2학년 이후로는 거의 매 방학마다 연구실 인턴을 해본 것 같습니다. 농생대에서는 매년 학부연구생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양하게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연구기관에서도 대학생 인턴, 알바 등을 뽑습니다. 이런 것도 대학생일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진로 설정에 있어 좋을 듯 합니다.



2025. 2. 21. 동백 5기 최종발표 및 회식

5. 졸업 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입학 전부터 미생물 연구에 관심이 많아 동물미생물학실 인턴도 해왔는데, 여전히 흥미로워 큰 이변 없이 졸업 후에도 동물미생물학실 석사과정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석사과정을 밟으며 앞으로 어떤 진로로 나아갈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6. 후배들 또는 앞으로 입학할 새내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조언을 해도 될만한 사람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웃음) 친구들과 좋은 추억, 즐거운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소중한 동기, 선배들과 함께 과제에 힘들어하다가도 즐겁게 놀고, 여행을 다녀왔던 기억이 많습니다.



해보고 싶은 일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단 해보고, 하게 된다면 후회없이 열심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보고 싶다는 게 굳이 거창하지 않아도 그를 통해 얻은 경험과 깨달음은 어떤 방면에서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저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 과외도 다양하게 해보았는데 그 중 특히 올리브영 아르바이트는 그냥 해보고 싶어서 고민없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약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맛볼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동안 아쉬움이 남는 점은 관심 분야, 진로에 대한 정보 탐색의 중요성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일단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과, 현재 동향을 살펴보며 계획과 고민을 실체화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충분히 찾아본 다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을 선배, 교수님들께 여쭙보면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여러 구인구직 사이트, 서울대 경력개발센터, 직장인들 및 연구원들의 커뮤니티, 뉴스 등을 찾아보고 필요한 역량 등을 미리 갖추며 조금 더 여유롭게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개인 질문 [부회장 송강]

### 1. 들으셨던 교양 수업 중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수업을 소개해 주세요.

제가 교양을 꽤나 많이 들었는데, 새내기 때부터 동기들한테 말도 안 하고 저 혼자 관심있었던 강의를 찾아서 수강신청 하고 혼자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동기들이 나중에 끝강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미 들었던 강의였어요.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교양을 특히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동서문명의 발달과 실크로드라는 강의를 기억에 남네요. 학점은 그다지 좋지 못했지만.. 수업이 정말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또 다른 강의로는 '인간관계의 심리학'이라는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차치하고서, 고등학교 때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로망을 실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다른 과 친구들과 함께 팀플을 하고, 다른 학과의 여러 조원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동안 함께 여러 추억들을 많이 쌓아서 그런지 조원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하며 잘 만나고 있습니다.



2025. 3. 26. 인간관계의 심리학 팀원들과

Wilbur 교수님의 '대학영어'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학년 때 들었던 강의 중 1순위로 꼽을 정도로 너무 재미있었던 강의였습니다. 사범대 사람들을 비롯한 다른 학과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그런지, 무언가 이렇다 할 큰 과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많이 남았던 강의였습니다.

### 2. 현재 자취를 하고 계시는데, 자취의 장점이나 자취생을 위한 팁이 궁금합니다.

장점은 학교가 정말 가깝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살 때도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 자취를 할 때 오히려 집에 더 많이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조금 더 놀기 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학교를 조금 다니고 나서 자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새내기 때 자취를 해야 한창 놀 수 있는 시기에 더 놀 수 있기도 해서 추천드립니다.

공부하기에도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취를 하게 되니까 통학을 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서 시간 확보도 많이 되고, 서울대 학생들이 많은 학교나 카페, 스터디카페 등의 장소서 함께 공부하다 보니 집중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또 대학동이나 서울대입구역 근처에서 자취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맛집에 같이 간다거나, 배달 음식을 나눠먹거나 하는 경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 3.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당장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군대에 갈 것 같습니다. 동기들이 송별회를 해준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머리를 밀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명과학에 대한 기초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전공을 들을 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전공 수업을 들을 때 동기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을 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기에, 군대에 가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기초가 되는 전공 수업들과 고등학교 때 배우는 생명과학1, 2를 틈틈이 공부할 것 같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4. 앞으로 입학할 새내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벌써 26학번이 들어오네요. 제가 새내기였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학번 차이의 후배들이 생긴다는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최대한 1학년 때 놀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전공을 듣기 전 교양만 들을 때 많이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과 사람들 뿐만 아니라, 농생대의 다른 과 사람들이나, 다른 단과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양한 미래를 그리고 있기에,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앞으로 본인만의 길을 걸어갈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 9. 18. 서울대학교 가을축제 폐막제

# 2025 동행 국장단 인터뷰

24학번 이진현, 서지현



2025. 11. 10. (왼쪽부터) 서지현, 이진현, 추채윤, 황은규

## 소개

1.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진현]** 안녕하세요, 동물생명공학전공 24학번 이진현입니다. 입학과 동시에 동행 부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올해는 국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목장방문팀, 양돈장방문팀에 속해 견학을 다니며 동자과를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고 알아갔습니다.

**[서지현]** 안녕하세요, 동물생명공학과 24학번 서지현입니다. 동행 19, 20호 부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행 부국장으로서는 인터뷰나 견학 일정 동행, 팀별 진행상황 확인, 일부 기사 작성, 초고의 전체적인 검토 등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시키는 거 다 합니다(웃음).

## 동행

2. 동행 19호, 20호 국장으로서 활동 마무리에 대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이진현]** 저의 2학년을 가득 채웠던 동행을 마무리하는 요즘에는 고마움, 미안함, 뿌듯함 등 수많은 감정이 스칩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조금의 슬픔과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1년을 다 바쳤던 동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많이 아꼈고, 잘 해내고 싶었던 동아리였습니다. 처음 동행을 시작할 때는 당연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자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동행 19호와 20호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19, 20호를 함께한 부원들

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른 목표를 이루려는 생각에 때로는 부담을 지운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구석구석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며 준비한 결과를 마주했을 때의 뿌듯함과 자부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한 만큼 큰 아쉬움은 없지만, 1년 동안 저를 정말 많이 키워준 동행을 이제 떠나보낸다니 마음 한구석이 허한 느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 동행 국장으로서 목표하셨던 바가 있으신지, 그 목표를 이루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진현]** 동행 국장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던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동행을 조금 더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고민이 깊어질 때마다 워드 파일로 생각을 정리해 보았는데, 이 질문을 받고 오랜만에 그 파일을 열어 보았습니다. 8페이지에 달하는 파일의 ‘목표’라는 주제 안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모습의 동행이 담겨 있었습니다.

1. 동자과 대표 동아리
2. 부담 없는 동아리
3. 동자과의 매력을 보여주는 동아리
4. 교수님, 졸업생, 재학생 모두가 읽고 싶은 소식지
5. 과 안내서 역할을 하는 소식지

당시에는 나름대로 큰 목표를 갖고 2025년의 동행을 준비하였습니다. 동자과의 다른 동아리 소식을 포함하여 동자과 전체를 포괄하는 ‘동자과 대표 동아리’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동아리에 참여하는 부원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부담 없는 동아리를 만들고 싶었고, 신입생이 ‘동자로 진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활동 속에서 동자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 독자를 염두에 두고 소식지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알면서도, 교수님, 졸업생, 재학생 모두가 읽고 싶은 소식지가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입학 전의 예비 새내기에게까지 동행이 닿았으면 하는 마음에 ‘과 안내서’라는 목표도 세워 보았습니다. 저는 입학 전에 동자과 홈

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과에 대해 알아보려 하였습니다. 당시에 홈페이지의 교수님 연구 소개는 너무 어렵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동자과의 깊은 이야기를 알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입학할 새내기와 진학을 고민하는 고등학생이 소식지를 통해 동자과를 보다 쉽게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내내 이런 목표들을 마음에 새기고 소식지를 준비하였는데, 목표를 이루었는지는 동행을 함께한 부원들과 동행의 독자분들이 판단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 동행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진현]** 모든 활동에 애정을 갖고 준비했던지라, 정말 수많은 활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 중에서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면 ‘동행 토크콘서트’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 오래 고민했는데, 그런 지나간 고민 끝에 막막하기만 했던 ‘토크콘서트’를 원만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나름대로 성공시키는 경험이 이렇게나 뿌듯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첫 시도가 으레 그러하듯 모든 일에 가이드라인이 없어 준비가 순탄치 않았고, 시험기간과 준비기간이 겹쳐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이러한 어려움이 그 경험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걱정이 많았던 활동들이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여름 여행을 준비할 때에도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많은 부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수백번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24학년 25학년 친구들이 서로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며 기분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찾아온 큰 안도감도 유독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서지현]** 2025년 여름 동행 강릉 여행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흔한 술만 먹는 엠티와 달리 다함께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바베큐를 해 먹는 시간이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로 뵈었던 여러 선배님, 교수님들의 이야기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2학기에는 '창의프로젝트' 수업으로 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곳에 견학을 많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견학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5. 동행 말고 다른 동아리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진현]** 1학년 때에는 동자과 동아리 위주로 활동하였습니다. 첫 방학부터 '동백'에 참여하여 지난 여름까지 활동하며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동백 활동을 시작했던 여름, 상당히 긴 시간을 투자하여 논문을 읽고, 발표를 앞두고 긴장도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1학년 2학기에는 동창도 하였습니다. 한 학기의 짧은 활동이었지만,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최우수상을 받는 등 새로운 분야에서 보람찬 활동을 많이 수 있어 정말 큰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FC동자에서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고, 사회대 테니스 동아리 '임팩트'에서 신입 부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 동아리 '임팩트'에서 신입 부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하고 동자과 사람들도 좋아하는 제게 FC동자는 작은 힐링을 주는 동아리입니다. 테니스 동아리는 지난 학기 '테니스 초급' 수업을 듣던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였는데,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동자과에 새로 생긴 밴드 동아리 '동요' 활동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지현]** 동행 외 동자과 동아리로는 최근 만들어진 과밴드 '동요'를 하고 있고, 기타 세션과 임원진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학술동아리 '동백'에서도 세포공학실 팀으로 활동했고, 겨울에는 임원진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다른 동아리로는 자유전공학부 밴드 '베루카'에서 2년째 기타 세션으로 활동하고 있고 1월에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대학 생활 동안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던 곳이라 저에게 의미가 큰 동아리입니다. 중앙 사진동아리 '영상'에도 최근 신입 부원으로 가입하여 2학기 신인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직접 현상, 인화하는 과정을 해 보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나열해 놓으니 병행하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지만, 전부 좋아하는 활동들이라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 개인 질문 [국장 이진현]

### 1. 서포터즈 활동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 활동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과 '농협 경제지주' 에서 서포터즈로 활동하였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은 특정 기관이나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저는 그린바이오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서포터즈로서 그린바이오 혁신융합대학 개설 교과목, 비교과 활동 등의 홍보와 행사 운영지원을 담당했습니다. 농협 경제지주 서포터즈로서는 농촌 봉사활동, 농협 주최 행사 운영지원, 쌀 소비촉진 챌린지 등을 진행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관심 분야에서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경험은 전공 수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 2. 갓생리로 유명하신 걸로 아는데, 하루 루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서 제 삶은 실제보다 좋게 봐줄 때면 왜인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실 동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바르게 살지는 않았거든요(웃음). '친구들이 인식하는 나' 는 사실 지금의 저보다는 제가 바라는 제 모습에 가까워요. 하루 루틴을 정말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전공 수업을 듣고 교양 수업을 듣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숙사에 와서는 주로 동행을 준비하거나 과제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저녁 약속이 많아서 소화시키기 위해 저녁에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 3.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해내고 싶은 일도 너무 많지만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대학 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졸업을 2년 앞둔 학부생의 목표라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대학 생활에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도록 3학년과 4학년을 잘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활동을 하며 시야를 넓히는 대학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활동의 폭보다는 깊이에 집중하고 싶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은 학창시절을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 4. 곧 입학할 26학번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시작하기를 주저하지 말자는 생각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 새내기 시절을 돌아보면 취미, 대외활동, 동아리, 복수전공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고민을 가득 안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26학번 친구들도 이러한 고민을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할 수 있을까, 너무 바빠지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주저하다 기회를 놓쳐 큰 아쉬움으로 남지 않도록, 많이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이 생기더라고요(웃음). 다들 숨겨진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많은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 개인 질문 [부국장 서지현]

### 1. 계절 학기를 자주 수강하신 걸로 아는데, 계절 학기를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1학년 여름과 겨울 모두 계절학기를 들었는데, 대학생이 되고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 지 몰라 일단 신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계절학기 수업은 여름에 들은 '생물학실험'과 '공연예술의 이해', 겨울에 들은 '북한학개론'이었습니다. 1학기에 '화학실험'으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 2학기의 부담을 덜고자 '생물학실험'을 여름 계절에 미리 듣자고 결심했고, 통학의 효율을 위해 평소 관심 있었던 '공연예술의 이해'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생물학실험'은 1학기과 여름, 2학기과 겨울 실험의 구성이 다르니 신입생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겨울에 들은 '북한학개론'은 로드가 거의 없어 편하게 새터준비위원회 활동과 동아리 공연 준비 활동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학기에 꼭 들어야 하지만 실패했던 과목이 있거나, 시간표 상 듣지 못했지만 계절에는 가능한 도어나 수채화같은 수업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방학을 보내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물론 통학시간이 길다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학교까지 왕복 3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새내기의 체력으로 나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 2.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 교양 과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연, 미술 분야를 좋아해서 꾸준히 예술 교양을 들어왔는데, 연극과 오페라를 다루는 전예완 교수님의 '공연예술의 이해'를 추천합니다. 생명공학의 전반적인 지식에 관심이 있고 로드가 적은 수업을 원한다면 그린바이오 사업단의 공유 수업 '그린바이오 생명공학개론'도 괜찮고, '체력단련' 같은 체육 교양도 부담 없이 체력을 늘리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 3. 동행 부국장으로서 동행 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4학번 동기들에게는 바쁜 와중에도 든든하게 동행을 함께해주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25학번들에게는 정신없는 1학년 생활 속에서도 활동에 잘 참여해주고 미숙한 선배를 잘 따라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할 일이 정말 많았음에도 늘 긍정적인 모습으로 동행을 이끌어 주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저의 모습을 늘 칭찬과 격려로 감싸준 진현언니에게 최고의 국장이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 4. 마지막으로 곧 입학할 26학번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동자와 진입에 관심이 있다면, 또는 동자과에 대해 알고 싶다면 꼭 동행에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배들, 동기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테니, 내년 동행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학부연구생 인터뷰

## 23학번 나유진



2025. 10. 24. (왼쪽부터) 고명학, 추채운, 나유진, 황은규

###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자과 23학번 나유진이라고 합니다. 3학년 2학기 다니고 있고, 01년생입니다.

### 2. 동물생명공학과와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동물생명공학과와 장점은 학업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학업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축산, 의약품, 바이오, 생물정보학 등 동물과 관련되어 생명과학을 적용해서 이익을 보겠다 하는 분야들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으로는 과 분위기가 좋습니다. 구성원끼리 단합이 잘 되고, 선후배간의 교류도 많은 편입니다. 또, 과행사가 많기 때문에 계란이나 햄 같은 지원 물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영양학실 학부 연구생을 신청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동자과엔 학과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행사에 참여하면서 축산업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대학입시를 오래 했던 만큼 입학할 때부터 과거의 스스로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전공을 살려 전로를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축산업계에 관심이 갔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 학부 연구생에 지원했습니다. 3학년 1학기에 영양학을 수강하였는데, 내용이 흥미롭기도 했고 돼지를 실제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양학실 학부연구생을 신청하였습니다.

### 4. 영양학실 랩인턴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턴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교수님에게 먼저 컨택하여 조율을 합니다. 농생대 차원에서 진행하는 학부 연구생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영양학실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인 실험 농장이 충북 음성, 무안에 각각 1개씩 있는데, 음성에서는 이유자돈까지만 키우고 무안에는 모돈사부터 육성 비육사까지 다 있어서 사육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을 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무안에 가게 됩니다. 저도 무안에 있는 농장에서 실험실 인턴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영양학실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실험은 ‘어떤 사료를 먹었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는 식의 내용입니다. 숙소는 실험 농장 옆에 위치해 있는데, 숙소에서 요리를 해 먹기도 했습니다.

**5. 랩인턴 활동 중 힘든 점과 좋았던 점, 기억에 남는 점이 궁금합니다.**

힘들었던 점부터 말하자면, 연구실이 지방에 있어서 생기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기 어렵고, 맛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가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켓프레쉬가 안되어서 주기적으로 장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말마다 과외를 해야 했는데, 체력 소비가 많아 힘들었습니다. 인턴을 하게 된다면 인턴 업무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권장 드립니다.



2025. 7. 포유자돈 (차세대 축산리더 아카데미 농장실습)

좋았던 점은 돼지가 귀여웠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가끔 돼지에게 실없는 소리도 하고, 하소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돼지가 굉장히 빨리 크는데 빨리 크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양돈학에 대한 지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점은 출산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돼지는 다태동물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출산할 때 인간처럼 한 번에 나올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 쉬운데, 잇을 만 하면 한 마리 나와 있고, 또 잇을 만 하면 한 마리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태어난 돼지들은 발톱에 캡(cap) 같은 구조가 붙어있습니다. 태어난 후엔 축축하니까 덜덜 떨면서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귀엽습니다. 그리고 원생분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 원생분들께서 정말 잘 챙겨주셨습니다. 한 번은 원생분께서 만들어주신 일 본식 카레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감격하면서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좌) 갓 태어난 포유자돈 발톱의 cap  
(우) 대학원생 선배님이 해주신 카레

**6. 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했던 동아리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3 여름 동백 2기 최종발표

1학년 여름학기에 동백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활동을 진행했음에도 생명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선배들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실험 기법이나 논문 해석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져갈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아리는 아니지만 축산 분야 대외활동 중 하나인 '차세대 축산리더 아카데미'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희 과에서는 차세대 축산리더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사람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외활동을 통해 기업 견학, 농장 실습, 팀 프로젝트 등 축산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2025. 10. 23. 차세대 축산리더 아카데미 발표대회

**7.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졸업입니다! 26년도 8월에 졸업하는 것이 목표인데, 한 학기 이르게 졸업할 예정입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선 학부 취업과 대학원 중에 고민하는 중이긴 합니다, 만약 학부 취업을 하게 된다면 축산 사료 기업에 지원할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간다면, 아마 동자과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도전을 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영양학실 인턴을 신청했을 때, 많은 걱정과 우려를 들었습니다. 다른 실험실 인턴은 서울에서 출근을 하는 반면, 영양학실은 지방에 내려가야 하고 살아있는 돼지들을 봐야하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걱정했던 바와 달리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것이든 도전을 할 기회가 있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망설이지 말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못해서 후회되는 것이기도 한데, 학교 공부를 아주 놓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공부 습관을 잡는 것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대학 생활을 너무 즐기는 바람에 그 뒤로 습관을 잡기 어려웠는데, 후배들은 공부를 적당히 잡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기세요, 여러분(웃음). 학부 시절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기억이 될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알차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학부생 인터뷰팀 활동 후기

## 고명학

학부생 인터뷰를 동행 19호에 이어 20호에서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선배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어 1학년인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선뜻 참여해 주신 여섯 분의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한 학기 동안 함께 활동한 황은규 선배님과 추채윤 선배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황은규

사실 학부생 인터뷰를 이번에 두 번째 해보는 건데,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학부생 분들을 인터뷰할 수 있어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6명의 학부생을 인터뷰하면서 각자만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경험들,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ㅎㅎ.



## 추채윤

인터뷰팀으로는 처음 활동해보았는데, 얻어가는 것이 많아 인터뷰팀에 지원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인원을 인터뷰했는데,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학부생을 인터뷰하면서 하고 싶은 일, 고민 중인 일에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해야지’라고 다짐하고 있던 일을 냅다 신청하는 용기를 내 보기도 했습니다. 초고를 편집하면서 새삼 다양한 학년, 다양한 학교생활을 한 학부생들을 골고루 인터뷰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 사람의 솔직한 경험담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학부생 인터뷰팀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문에서는 인터뷰이들로부터 공통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신기해했었네요. 이번이 제 마지막 동행 활동인데, 의미 있게 마무리한 것 같아 나름 뿌듯합니다.

# 동물생명공학전공 행사

Event

# 카길 직무별 인터뷰

8월 18일, 동자과 학부생들은 카길에그리퓨리나 본사에 방문하여 선배님들을 뵙고 직무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직무별 인터뷰는 동자과 학우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 지원, 카길에그리퓨리나(이하 카길)를 포함한 축산업계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번 카길 방문은 크게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김남규 이사님, 문정현 이사님, 김진수 이사님, 송지은 차장님, 강혁중 박사님께서 카길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각의 직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2부는 학부생들이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QnA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어진 저녁 식사 자리에는 박종억 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님들께서 참석하시어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 1부 카길 및 직무 소개

### 카길

우선 회사 이름부터 소개해 드리자면, 법인명은 ‘카길에그리퓨리나’입니다. 회사 안에서는 ANH Korea라고 부르는데, ANH는 animal nutrition & health라는 뜻입니다. 모기업 카길은 곡물에 관련된 전 세계적 대기업 4개 중 하나로, ‘안전하고 책임 있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리더가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국내 사료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경쟁 관계에 놓인 다른 기업의 경우 계열화 농장 등 다른 사업부를 함께 하고 있는 반면, 카길은 계열화 농장 없이 사료만을 다루고 있으며 사료 외의 사업은 파트너십으로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카길의 다른 특징들도 소개드리자면, 현재 카길 내에는 11개 사업부가 있고 그중 5개는 비즈니스 사업부입니다. 몇 년 전 자료에 따르면 여성 직원의 비율이 18%였는데, 최근에는 꾸준히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여 이보다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또, 사업장은 평택공장, 군산공장, 정읍공장, 김해공장의 4개가 있고, 서울

대학교 평창캠퍼스 내에 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중 평택공장은 연간 87만 톤이 공급되는 카길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장입니다.

### 사업총괄부 (김남규 이사님)

사업총괄부는 PMOCE라고 합니다. PMO 업무하고 CE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CE부터 말씀드리자면, CE는 Commercial Excellence의 약자로 상업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합니다. 주로 market mapping을 하는데 이는 간단히 말하자면 시장 조사를 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을지를 조사하고 이 고객을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이후에 각각의 고객 분류에 맞는 제품 제시 및 개발로 이어집니다. VOC (Voice of Customer)라고 하여, 고객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피드백을 반영하여 발전할지 고민하는 것도 해당 부서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또, 가격 전략(Pricing), 개발한 오퍼링을 어떻게 시장에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Route to market), 투자 성과 점검 등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PMO는 portfolio management 업무로, 회사에서 진행되는 많은 업무를 프로젝트화하여 관리하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portfolio manage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portfolio manage를 통해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뒤에는, 이 우선순위에 대해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정하는 일이 이어져야 합니다. 카길에서는 PMOCE가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부**

카길의 사업부는 축우사업부, 퓨리나양돈사업부 등 5개의 사업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의 경우 브랜드별로 모두 다른 사업부에 속해 있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많은 사업부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략 마케팅 기술부 (강혁중 박사님)**

SMT라고 하는 전략 마케팅 기술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케팅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팀은 맞지만, ‘전략’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시장 내 경쟁을 이해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우리가 무엇을 개발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팀으로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저희 팀의 특징이라 하면, 동문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웃음).

저희 회사의 경우 마케팅과 R&D가 약 3년 전에 통합되어 SMT라는 부서가 생겨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때 마케팅적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통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MT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객 segmentation입니다. 소비자들은 모두 개개인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료 중에서도 비싼 사료가 있고 싼 사료가 있어요. 어떤 고객들은 최고급 사료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고자 하는 반면, 다른 어떤 고객들은 적당한 가격대의 적당한 성능으로 해서 적당한 수익성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고객의 성향에 따라 고객을 분리해 놓은 것을 segmentation이라고 합니다. SMT에서는 고객 분류에 따라 각각의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개발하는 업무를 합니다.

**공장운영부 품질경영팀 (김진수 이사님)**

FSQR이라고 부르는 품질경영 부서는 Food Safety, Quality, Regulatory의 약자로 식품의 안전과 품질, 국내의 사료 관련 법규에 대해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FSQR은 원료부터 제품까지 품질에 관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부와의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사료 산업의 특성에 대해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업이 일반 산업과 구분되는 점은 consumer와 customer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회사의 경우, 마이크를 사용하는 사람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사료 산업은 다릅니다. 저희가 사료를 공급해서 최종적으로 만족을 시켜야 하는 대상은 사료를 섭취하는 동물이지만, 실질적인 의사 결정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동물과 사람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다 보니, 품질경영팀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영업부와의 소통이 중시됩니다.

**공장운영부 공급망관리 (송지은 차장님)**

MSC라고 하는 공장운영부는 supply chain 팀이 속해 있는 큰 사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요소수 사태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c에 대한 개념이 약했던 우리 산업 사료 산업 쪽에도 최근에는 이러한 공급망 관리가 주목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급망’이라고 하면 단순히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는 생각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저희 팀은 원료에서부터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체 공급망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제품이 잘 전달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고 관리 등을 통해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 구매배합비관리부 배합비팀 (문정현 이사님)

배합비팀은 R&D팀과 함께 원료 평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원료 평가는 사료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원료 평가 시스템 자체가 극도의 비밀로 다루어집니다. 또, 배합비팀에서는 특정 물질을 투입하면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로 전환하여 보여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각국의 동물 영양소 요구량에 맞는 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부 직무별 Q&A

**다른 사료 기업과 비교했을 때, 카길이 가진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SMT 쪽에서는 아무래도 글로벌 회사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회사가 퍼져 있고, 소, 돼지, 닭이 전 세계적으로 종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폭넓은 연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원료 평가의 경우에도 전 세계적인 분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미엄 사료를 지향하는 회사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너가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기업문화가 수평적입니다. 사장님과 저녁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회사와 다른 차별화된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영업부 측면에서 보면 근무 연한이 길다는 점이 로테이션이 빠른 타 회사에 비해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바이오 업계 취업과 비교하여 전통 축산 기업이 가지는 특별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제가 카길을 선택한 이유는 '이왕 회사 가서 일하고 하는 거 좀 가치 있게 쓰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부품처럼 일하고 싶지 않았고, 보통 대기업 들어가면 근속연수가 길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여 카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거나 축소되는 등, 앞으로 카길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로벌 기업 카길은 당연히 계속 성장할 기업이고, 한국 카길도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인구수 감소 등에 의해 시장 자체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지만, 그 시장 안에서 카길의 포지션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궁금해요, 카길애그리퓨리나

- 카길애그리퓨리나 본사에서 선배님들과의 만남



**직무별로 지방 근무 위치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직무별 순환 근무 여부와 근무지가 궁금합니다.**

영업팀과 공장은 순환 근무가 있는 부서입니다. 다만 정해진 주기는 따로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어떤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은 4개의 공장으로, 영업팀은 전라도는 전주, 광주...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담당하는 부분이 나뉘어 있습니다.

**카길의 업무 환경과 개인 삶의 균형(워라벨)은 어떤 편인가요?**

본인이 부여 받은 업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따라 개인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마다, 개인마다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회사 분위기를 보았을 때 휴가를 쓰는 데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입사 시 필요한 자격증이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자격증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SC의 경우 자격증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외의 부서에서는 인터뷰 때 자격증을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경험을 했다면 그로부터 무엇을 느끼고, 어떤 점이 이 회사에 입사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MT 축종기술연구와 SRT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SRT와 SMT 부서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제 SRT가 R&D가 포함된 별개의 부서였다가 현재 마케팅에 관련되어 시장 친화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부서 이동이 된 상황이라서 둘 사이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공장운영 직무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희 산업이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해당 직무에 기회 요인이 많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 사업에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에 속하게 되며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지방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방 근무를 제외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 OPEN LAB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동물생명공학전공 OPEN LAB 행사가 열렸습니다. OPEN LAB은 동물생명공학전공 교수님들의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과 연구실을 직접 방문해 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이번 2025 OPEN LAB은 동물유전공학, 동물영양생화학, 동물번식학, 동물면역학, 동물성식품학, 동물미생물학, 동물세포공학, 반추동물영양생리학의 8개 연구실의 도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수의 학부생이 참여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전공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동물유전공학 연구실

동물유전공학 연구실은 조류를 기반으로 한 유전자공학 기술을 개발하여 미래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특히 형질전환 조류 기술은 신약 개발, 기능성 물질 생산, 질병 모델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으며, 조류는 발생과정 관찰이 용이해 포유류 모델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탐구하는 데 강점을 지닙니다. 연구실은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CRISPR-Cas9 기반 정밀 유전자 편집 기술과 생식세포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단백질과 항체를 생산하는 형질전환 닭, 특정 유전자 기능을 조절한 질병 저항성 조류 등 학문적·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연구를 진행합니다.



형질전환 조류 생산의 핵심 기술인 원시생식세포 (PGC) 연구 역시 중요한 분야입니다. PGC의 발달·분화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규명하고, 닭뿐 아니라 다양한 조류 종에서 안정적인 세포 배양과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도 활발히 수행됩니다. 또한 바이러스 침투와 면역 반응에 관련된 유전자를 분석하여 새로운 질병 모델을 제작하고, DMRT1·RAG1 등 핵심 유전자를 조절한 모델을 통해 기초과학 및 백신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류 난을 활용한 기능성 물질 생산, spermatogonia 줄기세포 기반 유전자 편집, 이중 키메라 생산 기술, 멸종 위기 조류 복원 기술 등 응용 연구까지 확장 중에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생명과학은 물론 산업적 활용과 생태 보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연구실은 지금까지 SCI급 논문 247편을 발표하며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으며, 2015년 리더연구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가적 연구거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실은 조류 유전공학의 혁신을 목표로 건강·식량·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 동물영양생화학 연구실

동물영양생화학실은 사료가 동물의 성장, 면역, 생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실로, 영양학, 생리학, 생화학을 통합해 건강한 성장과 높은 생산성, 친환경 축산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양돈 분야에 특화되어 모돈부터 자돈, 육성돈과 비육돈까지 전 사육 단계를 아우르는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돼지 사료의 영양 가치, 소화와 대사 특성을 분석해 성장 단계별 최적 사료 전략을 제시하는 정밀 영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곤충단백이나 팜박 같은 대체 단백질원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효소와 유산균 등 기능성 첨가제로 영양적 한계를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셋째, 사료 내 단백질을 줄이면서도 성장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저단백 사양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보상성장 기전 연구가 활발합니다. 넷째, 실제 농장의 온도, 습도, 환기 등 환경 요인이 돼지의 면역력과 성장, 소화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환경과 복지 기반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모색합니다.

이 연구실의 가장 큰 강점은 음성과 무안의 실험 농장을 기반으로 실험실 분석과 실제 농장 데이터를 결합한 현장 중심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사료, 생리, 생화학, 면역, 환경 데이터를 모두 다루면서 현장과 기초를 동시에 이해하는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진로 또한 폭넓어 사료 회사, 양돈 컨설팅, 농식품기업 R&D, 학계, 정부·지자체 연구기관 등으로 진출 가능하며, 특히 저단백 전략, 기능성 첨가제, 대체 단백질 연구 경험은 현재 산업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닙니다.

## 동물영양생화학실 Q&A

**연구를 위해 비육돈을 키우고 출하도 하나요? 쓸모를 다한 육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안 연구소에서는 출하까지 진행합니다. 연구생이 105-115kg 사이로 육돈의 무게를 맞춰서 출하하는 편입니다. 또한, 농장에서 죽인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도태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병에 걸리거나 뼈가 부러져서 더이상 출하할 수 없는 애들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도태차가 와서 실어가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저희 관할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어렵습니다.



## 동물번식학 연구실

동물번식학실은 생식생물학, 발달생물학, 줄기세포공학 등을 통합해 배아의 초기 발달이 어떤 분자와 세포적 조절을 거쳐 개체로 성장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동물의 고부가가치 형질 개발과 생식공학 기술 확립을 목표로 하는 연구실입니다. 세포배양실과 배아 및 생식세포 전용 공간을 분리해 운영하며, 연구는 크게 대동물 만능성 줄기세포, 생식세포와 배아 기반 생식공학, 근육줄기세포 기반 배양육의 세 분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돼지, 소 등에서 난이도가 높은 배아줄기세포 (ESC), 유도만능줄기세포 (iPSC), 배아생식선줄기세포 (EG cell), PGC-like cell 등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며, 이를 위해 바이러스, 플라스미드 벡터를 이용한 유전자 도입 기술과 사이토키인 기반 분화 조절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식공학 연구에서는 난포에서 난자를 분리해 성숙시키는 체외성숙(IVM), 정자와 수정해 배반포까지 발달시키는 체외수정(IVF), 체세포 핵이식(SCNT)을 통한 복제배아 생산, 두 배아를 결합하는 배아 접합 기술, 후생유전학 분석 등 고급 생식공학 기법을 폭넓게 다룹니다. 이는 생식공학뿐 아니라 발생기전 연구와 유전형질 조절 분야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며, 본 연구실은 세계 최초로 돼지 배아줄기세포 확립을 보고한 팀 중 하나로 국제적으로 높은 연구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근육줄기세포 기반 배양육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종에서 근육줄기세포를 분리해 안정적 배양 조건을 확립하고, 근육 형성 유전자를 조절해 체외에서 실제 수축과 이완이 가능한 근육섬유를 만드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 동물면역학 연구실

동물면역학실은 경제동물 면역 반응의 기초 기전을 밝히고, 이를 활용해 질병 대응 능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실입니다. 장내 미생물-면역 상호작용, 백신-adjuvant 전달 시스템, 영양면역 기반 면역 조절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마우스/닭/돼지 등 다양한 모델에서의 면역 변화를 분석합니다.

동물면역학실 연구의 핵심은 선천/후천 면역세포 기전 규명과 경제동물 면역 연구의 연결입니다. 덴드리틱 세포(DC)-T세포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면역반응 시작과 면역 기억 형성 과정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쥬번트 및 백신 전달 기술을 개발합니다. 최근에는 공대와 협력해 초임계 건조 기술을 이용한 상온 안정 백신 플랫폼 등 실용 기술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초 연구는 바로 경제동물 모델에 적용됩니다. 닭 모델에서는 장내 미생물과 감염 저항성의 관계, 살모넬라와 AI 감염에서의 면역 조절 효과를 연구하며, 특히 In-ovo 면역조절제 투여 기술을 활용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질병 저감 전략을 개발합니다. 돼지 모델에서는 PRRSV 감염을 중심으로 단핵구 유래 세포와 사이토키인의 역할을 분석해 산업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질병의 면역 대응 방법을 모색합니다.



연구실에서 학생들은 면역세포 분석, 백신 실험, 오믹스, 미생물/대사체 분석 등 매우 폭넓은 실험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연구 주제를 자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졸업 후 진로도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소 취업부터 박사 후 해외 포닥, 국내외 교수 임용까지 다양하며, 면역학을 기반으로 의학/약학/수의학 등으로도 커리어 확장이 가능합니다.

## 동물성식품학 연구실

동물성식품학 연구실은 우리 식생활의 핵심인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은 인체 성장과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공급하는 중요한 자원이며, 연구실은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와 식품 산업 환경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의 한 축은 동물의 성장 과정과 생산물의 품질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입니다. 이를 통해 한우와 같은 우리 고유 품종의 특성을 더욱 극대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식감·풍미·기능성을 갖춘 고품질 육류 생산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실제 사육 환경과 사료 조건이 고기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일은 품질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육제품의 저장·가공 기술 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냉장·냉동 중 발생하는 품질 저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접근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즈마, 초고압, 방사선과 같은 비열처리 공정은 영양과 풍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생물 제어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실제 산업 적용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아울러 난황·난백 등 계란 유래 생리활성 성분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도 연구실이 활발히 수행하는 분야입니다. 또한 향균·향산화 성분을 비롯해 다양한 생체조절 물질을 분리·정제하고, 건강기능식품 혹은 식품첨가 소재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도 진행됩니다. 이처럼 동물성식품학 연구실은 고품질·고안전성 동물성식품의 생산, 기능성 소재 탐색, 미래형 비열처리 가공기술 개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식품산업과 소비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동물미생물학 연구실

동물미생물학 연구실은 숙주와 미생물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체와 동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바이오틱스·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장내미생물은 비만,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염증성 장 질환, 암, 우울, 수면 등 다양한 대사·면역 질환의 발병과 조절에 깊게 관여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축산 생산성 향상과 환경 개선, 동물 복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실은 이러한 미생물의 기능적 가치를 탐구하고, 이를 활용해 실제 축산 및 인간 건강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의 중심 분야는 프로바이오틱스·프리바이오틱스·신바이오틱스·포스트바이오틱스의 기능 검증과 마이크로바이옴 및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입니다. 동물, 식품, 환경에서 유용한 프로바이오틱스 후보 균주를 분리하고, 유전체 분석과 미생물 조성 변화 추적을 통해 미생물의 잠재적 기능을 규명하고 있으며, *C. elegans*와 마우스 모델을 활용해 수면, 면역 반응, 항염 효과, 대사 조절 등 다양한 생리적 지표 검증을 수





오가노이드, 대사체학 등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연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추동물 직접 실험뿐 아니라 컴퓨터 기반 분석만으로도 연구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반추동물 연구는 클래식한 분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융합적인 분야"라 강조하셨듯, 학생들이 실험실에 들어오면 "소를 직접 만지는 연구"뿐 아니라, 컴퓨터 기반 데이터 분석, 세포 실험, 오가노이드 연구, 첨단 오믹스 분석 등 여러 길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학계뿐 아니라 기능성 사료 기업, 제약·바이오 기업, 정부 연구기관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대사체 분석, 마이크로바이옴, 생명정보 분석 능력은 축산뿐 아니라 사람과 제약 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술로 평가됩니다.

# 선진 기업탐방



11월 7일, 동행 견학팀과 동자과 학부생들은 이천에 있는 선진 공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규모를 갖춘 사료 생산·축산 기업인 선진의 기술을 직접 접하며 축산업을 이해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약 한 시간 반가량 버스로 이동하여 선진 이천 공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공장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외선 살균기에 2~3명씩 들어갔다 나오며 소독을 진행하였고, 알코올을 이용하여 신발창까지 꼼꼼하게 살균한 뒤 입장하였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공장에 출입하는 차량 역시 모두 유사한 소독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습니다. 잠깐의 소독 시간 동안 선진의 위생에 대한 철저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 들어간 후에는 강의실에서 기업 '선진'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회사의 설립 과정과 사료가 만들어지는 과정, 축종의 규모와 관리 체계, 최근 성과 등에 대해 들으며 선진이라는 회사에 더 심도있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선진 소개

선진은 양돈, 식품, 미래 기술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모두 친환경과 동물복지, ESG 경영을 기반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외 확장 역시 추진 중이라 필리핀, 베트남, 중국등 몇몇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있으며 해외 사업 비중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선진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 사료 사업은 무려 167단계의 공정 과정을 통해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천공장과 군산공장 두 공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양돈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료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진의 식품 사업 중에서는 육가공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스마트 HACCP을 통해 엄격한 품질관리를 진행 중이며 국내 공장이 많아 전국적으로 생산과 유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이 문화가 발달해 있기에 이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합니다. 뿐만 아

나라 냉장식품, 소시지, 카츠류 등 다양한 메뉴를 프랜차이즈나 외식업체, 편의점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도 선진의 제품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이 운영하는 여러 분야의 업무를 간략히 소개받았습니다. 선진은 단순하게 사육과 축산만 다룰 뿐 아니라 관련 데이터 관리, 기획과 홍보부터 디자인까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과 질소저감을 추구하며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질소 절감판 이용부터 가축 육성률 관리, 질병관리, 친환경 포장재 도입, 폐사율 관리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하는 모습을 보며 선진이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공장 견학



소개가 끝난 후에는 이천 공장을 한 바퀴 돌며 공장의 구조와 시설을 엿보았습니다. 커다란 공장과 수많은 운반 차량, 원재료들을 보며 선진 공장의 거대한 규모에 놀랐습니다. 또한 몇 톤 단위로 쌓여 있는 포대에 담긴 곡물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을 다 돌아본 뒤에는 장소를 옮겨 농장의 시스템적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기술과 기

계들 중 대표적인 세 가지 요소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본 로봇 착유기는 소의 젖을 효율적으로 착유할 수 있는 자율 시스템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기계는 소를 내부로 유인하여 자동으로 젖을 짜낼 뿐만 아니라, 소의 건강 역시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시 바로바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로봇 청소기와 유사하게 생긴 'JUNO'라는 기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계는 '사료푸셔'라고도 불리며, 축사 내에서 사료를 자동으로 밀어주어 가축들의 사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로봇이었습니다. 덕분에 인간이 지속적으로 사료의 양과 위치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장의 환기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도와 기압, 공기의 질부터 시작해서 암모니아나 습도까지 모두 고려하여 공기의 순환을 담당하는 이 시스템은 스마트팜 기술의 정수를 엿볼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환기 팬과 입기구 역시 축사 내부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계들의 작동 원리와 기능을 알아보며 농장의 기술적인 부분에 감탄하였습니다. 더불어 기계들을 직접 만져보고 움직여보며 농장의 모습 역시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각종 연구소에 대한 구성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디지털센터, 축우센터, 양돈센터 등 많은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축산업이 어떻게 분업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분뇨처리 방식 역시 스마트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분뇨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으나 최근에는 ICT를 이용한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ICT의 이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폐수, 폐기물 처리, 냄새 저감 등에 있어 적절한 과학 기술의 이용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수동적 부담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장에 대하여 연구하며 실천할 것이라는 선진의 미래지향적인 계획 역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설명을 마친 후에 선진에서 제공해주는 기념품을 받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선진 한돈에서 제공되는 돼지고기로 저녁식사를 하며 견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선진의 섬세함과 기술에 대하여 알게 된 후 먹으니 고기가 더욱 신선하고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견학은 선진 기업에 대하여 깊고 넓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전반적인 체계와 전망 그리고 시스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진의 기술적인 부분이 얼마나 발전해 있고, 앞으로 어떤 변모를 보일 것인지가 흥미로웠으며 더욱 성장할 선진의 모습 역시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축산업, 그리고 선진에 대한 학생분들의 관심과 열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축산업에 한발자국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견학을 준비해주고 이끌어주신 선진의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견학팀 활동 후기

## 조형준

대학교 2학년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동행의 견학팀으로 활동하며 저희 전공을 졸업한 선배들이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형태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공부하고 있는 전공 지식들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나 산업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공에서 배운 역량들이 확장되어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나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견학팀 활동을 토대로 전공 이후의 진로를 어떻게 구상해나가면 좋을지 고민해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 학부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쌓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활동한 견학팀 팀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호

견학팀으로 활동하면서 동자와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료회사부터 사육이나 목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한다는게 특히나 인상깊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더욱 더 전공공부에 열정을 다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된 것 같아요!! 미래와 진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마예은

아직 1학년이라 취업이 다소 멀게 느껴져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으나, 견학팀 활동을 통해 다양한 기업과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견학을 통해 시야와 관심 분야가 넓어졌으며, 견학팀에 합류한 경험은 제 미래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좋은 팀원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강민서

견학팀으로 활동하며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모든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진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고, 학교생활과 전공 공부에 더욱 성실히 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좋은 활동을 함께할 수 있었던 조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현준

전공을 선택하기 전 1학년 마지막 학기에 동행 견학팀으로 활동한 것은 경험적으로 저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안성팜랜드에서 축산 분야가 발전한 역사를 들으며 앞으로 연구할 동물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고 다비육종, 사료공장등 기업에서는 과에서 배운 지식이 활용되는 분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내년 전공수업을 배우는 데 있어 제가 가꿔 나갈 지식 방향을 선명하게 비춰주는 길잡이가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동행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 한국마사회 기업탐방

11월 16일, 동자과 학부생 12명은 한국마사회 기업탐방에 참여하였습니다. 서울 경마장을 방문하였으며, 한국 마사회에서 근무하시는 동자과 선배님들의 안내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 선배님들과의 점심 식사

선배님들과 식사를 하며 간단하게 한국마사회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는 공통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셨습니다. 이후에는 함께 식사하는 선배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여쭙볼 수 있었습니다.

**Q. 한국마사회에서는 말의 품종 개량이나 유전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A. 한국마사회에서는 주로 경주마를 다룹니다. 더러브렛이라는 품종을 사용하며, 유전체 분석을 통해 말이 유전적으로 뛰어난지 평가하고 육종가를 계산합니다. 이를 활용해서 말 농가에 K-Nicks 교배 프로그램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경주마의 경우 인공수정은 금지하고 있어서 한국마사회에서 직접 경주마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에 말산업 연구소가 있긴 하나, 연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생명공학 연구보다는 정책 연구를 주로 합니다.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학위나 전문 지식에 대한 중요도는 낮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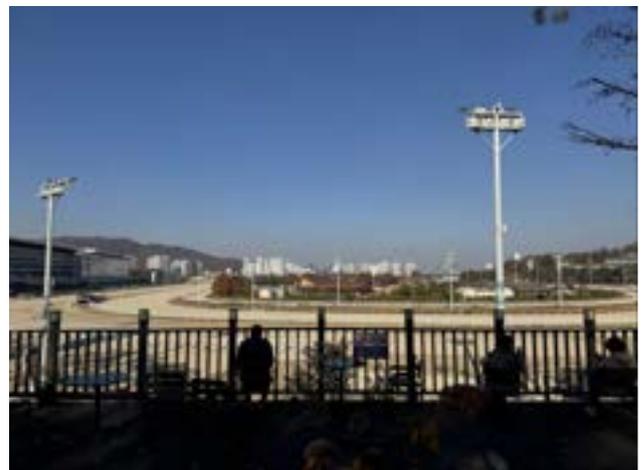
**Q. 동물생명공학 전공자는 어떤 직무로 진출할 수 있나요?**

A. 동물생명공학 전공자는 기술직 중 축산 직무에 진출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용과 관련해 세부사항은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데, 2026년도 같은 경우 말생산육성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 생산육성직무인 축산직으로 입사하여, 이후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채용 이후에는 말 등록 제도 운영하거나 말 복지 관리 정책을 수립, 시행하며 말산업 관련 자격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외의 여러 직무에 대해서는 신입사원 채용 홈페이지의 직무기술서에서 축산 직무와 더불어 다른 직무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연구직으로 입사하려면 어떤 전공 지식과 역량이 필요할까요?**

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공학 연구가 아니라 말산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모두 취업 이후 문서를 다루고, 사업 기획 및 운영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 경마장 탐방

식사 이후, 약간의 쉬는 시간을 가진 뒤 렛츠런파크 서울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경주로와 경주로에서 준비 중인 기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경마장에서는 승마 체험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승마용 말들이 있는 곳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승용마의 경우, 퇴역한 경주마를 조련한 말 혹은 승마용 말이 있으며 이들은 마주가 있는 경주마와 다르게 한국마사회 소유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내부 시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저 전검량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검량이란 출전 전에 기수의 체중과 말에 부여된 부담중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재미있는 경마가 진행되기 위해 말의 스펙에 따라 부담중량을 조절하는데, 필수 장구류의 무게 등을 확인합니다. 이때 경주 이후 해당 물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무게가 500g이상 차이가 나면 과태료 혹은 제재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시장을 구경하였습니다. 예시장이란 경마 30분 전 말들의 상태를 관찰하는 곳입니다. 우리 동자와 학부생들은 선배님들의 안내에 따라 건물 내부와 연결된 곳부터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순위 판정실, 심판실, 방송실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순위 판정실의 말 그대로 경주 이후 순위를 매기는 곳이며, 단순히 순위만 매기는 것이 아니라 초반, 후반 구간에서의 기록과 경주 종료 시 말들 간 간격 등을 기록합니다. 경마 관계자들에게는 1, 2, 3등 뿐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간에 대해 모두 기록한다고 합니다. 여기

서 등수를 나누는 기준은 말의 코 끝이며, 가장 먼저 육안으로 순위를 매기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 대의 초고속 순위 판정 카메라를 통해 세밀하게 비교합니다. 결승선 통과 시 말 간 간격을 착차라고 하는데, 코차, 머리차, 목차, 마신차 등으로 표현하며 이를 순위와 함께 전광판에 표시합니다. 이때 후검량과 심판실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을 마쳐야 해당 순위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주 과정과 결과를 방송실에서 송출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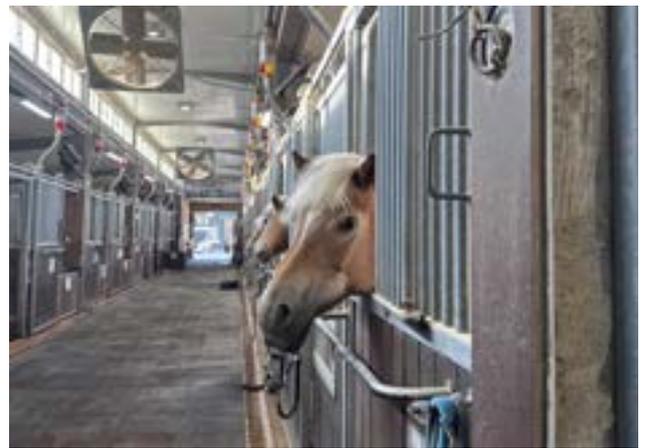


설명을 모두 들은 후에는 직접 마권을 구매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견학에서는 출전하는 말과 기수들의 승률, 말의 최근 상태 기록 등을 확인하며 직접 경마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동기, 선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기업탐방 후기 [24학번 조현성]

한국마사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 다양한 정보를 얻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소규모로 견학을 진행한만큼 선배님들께 질문할 기회도 많아 여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설명을 들으며, 검색만으로 알 수 없는 양질의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마사회에서 하는 일과 동자과에서 지원했을 때 직무 등 취업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업무적인 측면뿐 아니라 마사회와 경마 자체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학사졸업 후 취업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다양한 길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 송년의 밤



2025년도 동자과 축산의 밤 행사는 12월 11일 양재 AT센터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동자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진학 중에 있는 학부생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우선 행사는 동문회 자리를 빛내 주신 동자과의 대선배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2025년도 동자과 동창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주신 임원진을 소개하며,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후 사무총장님께서 동창회 예산 사용 내역을 발표하며, 한 해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수고해 주신 2025년도 동창회 회장단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전임 회장님께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1년 동안 학과를 위해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온 학부 회장단이 학과에서 선정한 상장과 장학금을 받으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새롭게 부임하신 김명후 교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동자과 구성원 모두가 환영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적인 행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에는 동자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입부 듣고 노래 맞추기, 가위바위보 끝까지 살아남기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현장은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의 시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행사 말미에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이 제공되었으며, 선배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햄과 달걀 세트가 전달되어 참석자 모두가 따뜻한 마음과 함께 양손 가득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 송년의 밤 행사는 단순한 친목의 자리를 넘어, 대선배님들의 경험과 조언을 통해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고 학과의 미래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동자과 구성원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훈훈한 밤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동자 *Album*



# 동자행사팀 활동 후기

## 민채율

동행 활동을 하며 다양한 경험과 소중한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던 시간들 또한 모두 의미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송년의 밤 행사는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었기에 더욱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과를 먼저 경험해보신 선배님들로부터 진심 어린 조언과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의 전공 생활과 진로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 선배님들, 그리고 학부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동물생명공학전공이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세대와 학번을 아우르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같은 전공을 공유한다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던 이 시간이 무척 따뜻하고 뜻깊었고, 앞으로도 이 전공의 일원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 변지민

일년 간 동행 활동을 하면서 동자과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소식지 제작을 위해 행사를 참여하고 연구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물생명공학전공이 다루는 분야와 연구가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원들과 함께 소식지 제작을 위해 대화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선배들로부터 학과 생활이나 전공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2학기 활동은 특히 오픈랩과 같은 학과 행사들을 통해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행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동기, 선배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 이서연

이번 오픈랩을 포함한 동자과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이를 취재하는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학과의 연구 환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실의 수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학과에서 배우고 목표로 하는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현재 운영 중인 연구실에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어 온 연구실과 교수진의 연구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 동자과가 지닌 학문적 역량과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활동은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이었으며, 앞으로도 오픈랩과 같은 학과 행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 김시은

동자과 안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행사들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자과 행사팀의 역할을 맡아 과 내 행사의 사진을 많이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갤러리를 열어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순간들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집니다.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쌓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라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단연 겨울 여행이었습니다. 학기 말 시험을 마친 뒤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온전히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내기로서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이라는 생각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동기들과 선배들과의 지난 2025년을 돌아보며 서로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어 뿌듯함도 함께 남았습니다. 제가 기록한 동행의 겨울은 유난히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동행 안에서 함께 '동행' 하며, 지금보다 더 따뜻한 순간들을 오래도록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동물생명공학전공 동아리

Club

# 동창 10기



동창 10기에서는 이전 기수와는 다르게 동아리 내에서 하는 활동이 아닌, 외부 교류에 집중하였습니다. 바로 '진바이오텍'이라는 동물용 기능성 사료첨가제 및 동물 약품 전문 기업에서 만든 '반려동물 간식의 프로모션 및 사업화'라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동창의 기존 활동 인원 외 동자와 학부생들을 포함하여 18명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들 마케팅 경험이 적거나 전혀 없었기에 이 활동을 하며 배우고 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도 참여하였습니다. 일부는 미리 사회에서의 마케팅 실무를 경험해 보겠다는 마음으로도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 진바이오텍 산학협력

동창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큰 틀에서 활동 전반을 구상했습니다. 마케팅 목표 설정과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할지, 그리고 세부적인 프로젝트로는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는지 등의 간단한 계획을 짜고 9월 24일에 회사에 첫 방문을 하였습니다. 권기현 선배님의 회사 소개와 진바이오텍의 제품 소개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동물성 사료첨가제와 축산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동창과 동행을 소개하며 동창의 활동 계획도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진바이오텍 이찬호 대표님이 동창에서 구상한 활동

계획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셨고, 권기현 선배님이 마케팅 방향과 정도에 대해 간단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미팅이 끝나고는 선배님께서 사주시는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선배님과 대표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제품과 소비자를 분석하고 기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진바이오텍의 위 영양제 제품과 다른 회사의 동물 영양제 제품들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는지, 어떤 원료를 쓰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하다 보니 어느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팀원들도 반려동물 주인에게 영양제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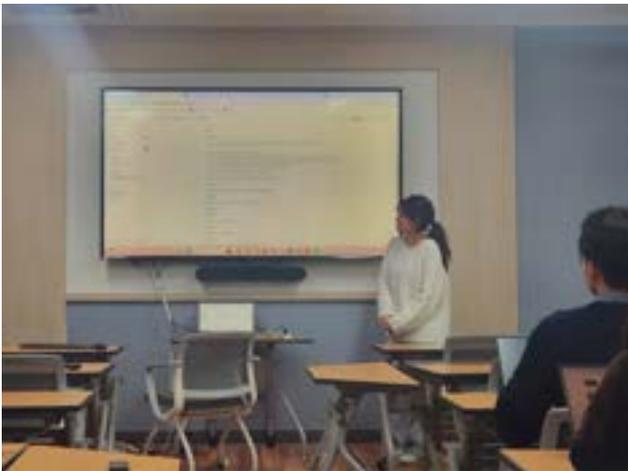


우선, 반려동물 영양제의 급여와 선택 기준, 제품의 문구 및 신뢰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반려동물 영양제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야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지, 소비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영양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직접 반려동물을 위해 영양제를 제조하는 듯한 느낌도 들 정도였습니다.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영양제를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마케팅을 해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소비자 분석을 마친 뒤에는 다음 진바이오텍과의 미팅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활동 인원 대부분이 기획안을 작성한 적이 없었지만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해보고 여러 기획안들을 읽어보며 좋은 기획안을 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SNS 광고팀, 상세페이지 수정팀, 솟폼팀, 커뮤니티 기반 바이럴 마케팅팀의 4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각 팀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SNS팀은 광고를, 상세페이지 수정팀은 네이버 스토어 내의 오아가 뮤커스케어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 수정을, 솟폼팀은 말 그대로 솟폼을 통한 광고를,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기반 바이럴 마케팅팀은 여러 커뮤니티에 홍보 글을 작성을 담당하였습니다.



## 산학협력 프로젝트 팀 소개

### Team 1. SNS 광고

저희 SNS 팀은 가장 할 일이 많았기에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인 20학번 권태은 학생을 축으로, 먼저 온라인 광고를 할 플랫폼부터 결정하였습니다. Meta, 네이버, 당근마켓, 카카오모먼트, Google Ads 이렇게 다섯 가지 후보가 있었고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의견을 정리하고 늦은 밤에도 줌으로 모여 의견을 나누다 보니 팀원끼리 더 유대감이 생겨 활동을 이어갈 의욕이 생겼습니다. 회의 끝에 메타와 네이버에 광고를 내기로 했고 광고를 만들기 위해 어떤 주요 메시지를 설정할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의 종류, 성공한 광고의 문구, 반려동물 마케팅에서 실적이 좋았던 사례 등 많은 광고를 분석하면서 오아가 뮤커스케어 제품은 어떻게 광고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광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소에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일상생활의 다양한 광고의 이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병, 제품의 특징, 회사의 특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것을 전달해야 제품이 더욱 효과적으로 판매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고 이미지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피그마(Figma)를 통해 광고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보았고, 재미있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진바이오텍의 선배님들께서 이 이미지를 좋아하실까 반신반의하며 만들었지만 회사 미팅에서 선배님들께서 많이 좋아하셔서 다들 자신의 광고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바이오텍 선배님들께 광고를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제안하기 위해서 역할을 나누어 기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각자 Meta와 네이버를 선택한 이유와 광고 단가, 광고 목표 등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이후 활동할 내용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메타와 네이버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는데 동물생명공학과인 저희는 CPC(cost per click), CPM(cost per mille), ROAS(Return on ad spend) 등 여러 경제 용어를 보며 ‘이건 뭐고 저건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AI 검색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며 예산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니다. 많은 노력이 들어간 SNS팀의 기획안을 가지고 회사에 가서 기획안에 대한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었고 특히 예산에 대한 조언과 광고에 대한 피드백 등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도 먹었습니다.

SNS팀 활동을 하며 '광고를 만든다'라고만 생각했던 일들이 수많은 팀워크, 분석이 모두 합쳐져야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혼자서는 떠올릴 수 없던 아이디어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일 때 만들어지는 걸 보며 협업의 힘을 느꼈습니다. 또한 광고라는 게 단지 예쁜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접 만든 결과물이 회사에서 검토되고 바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경험 자체가 앞으로의 마케팅 활동이나 다른 형태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Team 2. 상세페이지**

상세페이지 팀은 네이버에서 판매중인 오아가 뮤커스케어 제품의 상세정보 페이지를 수정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먼저 저희는 회의를 통해 상세페이지를 어떤 방향으로 수정하면 좋을지 논의해봤습니다. 먼저, 저희의 상세페이지를 분석해보고, 경쟁사도 참고하며 수정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을 찾아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상세페이지도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지만, 순서나 내용적 측면에서 보강이 이루어지면 더 좋은 상세페이지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마케터의 의견도 중요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페이지에서 순서와 내용적인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완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보완하고, 기존 상세페이지를 대조군으로 하여 비교하는 설문지를 작성해, 한 번 더 소비자 설문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받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상세페이지 수정 계획을 회사 측에 전달드리고, 외주를 통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

탕으로 기획안을 작성하여 회사 관계자분들과 미팅을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소비자 설문 조사를 받을지 정했습니다.

**Team 3. 숏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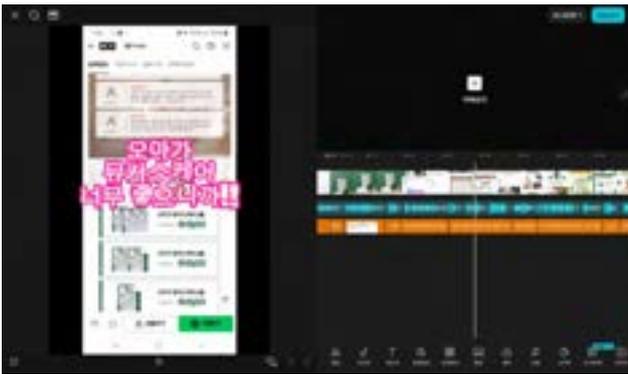
저희 팀은 오아가 뮤커스케어 제품을 최근 유행하는 숏폼을 통해서 광고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SNS팀, 바이럴 마케팅팀과 함께 사용할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하고 어떤 숏폼 영상을 제작할지에 계획하며 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숏폼의 특성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음악적 효과, 댓글 유도, 알고리즘 유도 등을 하려면 어떤 요소들을 넣어야 하는지, 언제 업로드를 해야 알고리즘을 타는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저희는 영상을 만들어본 적이 있는 팀원이 있어서 숏폼 업로드 주기도 고려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오아가의 장점을 소개하기보다 '어? 저 제품 어디서 들어봤는데?'와 같은 반응을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아가만의 숏폼을 만들기 전에 많은 종류의 반려동물 광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반려동물 유산균 분야에서 높은 조회수를 얻는 브랜드를 포함한 광고를 보며 제품의 신뢰도와 브랜드 전문성을 올리면 좋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우선 진바이오텍은 기술력과 연구적 배경이 충분하여 이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대 박사 연구진이 연구하였다는 사실은 신뢰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습니다.

콘텐츠 구상으로는 귀여운 강아지를 출연하거나 섭취 ASMR, 사료에 대한 정보 전달 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정확히 어떤 숏폼을 만들어야 할지 정해진 것이 없어서 우선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할 계획만 세운 상태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계획을 짜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 과정에서 브랜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면 좋을지 더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11월에 들어서서, 드디어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고 팔로우 수를 늘렸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오아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분이 계실겁니

다. 이후 11월에 유행하는 릴스의 포맷 등을 조사하여 릴스 콘텐츠를 만들고 영상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들로 최대한 많은 조회수를 유도해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후 차근차근 구매자를 설득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릴스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릴스로 조회수를 얻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을 해주셨지만, 학생들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주셨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첫 영상은 오아가의 cm송을 만들어 게시했는데, 예상한 조회수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었고, 릴스를 올리고 난 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링크를 클릭한 사람의 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학생들이 직접 이루어 냈다는 사실이 작은 시도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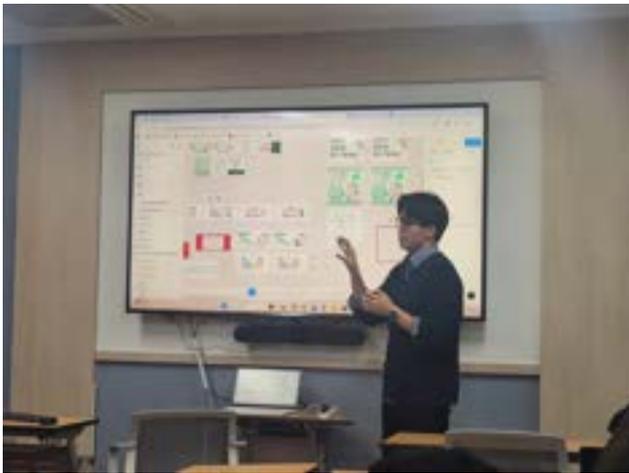
#### Team 4. 커뮤니티 기반 바이럴 마케팅

저희 바이럴 마케팅팀은 최근에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이외에도 인플루언서와 체험단을 통한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SNS팀과 숏폼팀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지식인과 같이 유명한 SNS부터 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과 같이 소통이 활발한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품을 언급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활동하였습니다.

직접 커뮤니티에 글을 쓰기 전에 우선 각 커뮤니티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떤 글을 쓰면 좋을지 각자 의논해 보고 직접 글을 써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인에는 “Q. 고양이 설사 영양제 추천”과 같은 제목과 함께 질의응답 형식으로 답변을 남기는 글을 쓰면 어떻게 생각해 보았고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직설적인 커뮤니티에는 “유산균 추천좀”과 같은 짧은 제목과 함께 댓글로 제품을 추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바이럴 콘텐츠의 글을 미리 작성해 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한 끝에, 저희는 제품의 브랜드 노출과 인지도 향상은 물론, 소비자에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한 전달 방식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콘텐츠는 숏폼팀과 유사하게 정보형, 공감형, 관심 유도형, 추천 댓글 콘텐츠로 나누어 제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1월에 들어 네이버 지식인, 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에 오아가 뮤직스케이프를 언급한 글을 올리기 시작하였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카페, 블로그에서는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보기만 하던 바이럴 마케팅을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특히 플랫폼마다 분위기와 이용자 성향이 달라 동일한 내용이라도 톤과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작은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도 반응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그동안 ‘단순히 자연스러운 글’처럼 보였던 바이럴이 실제로 매우 전략적인 작업이라는 걸 직접 체감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외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기계적인 광고보다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다가가겠다는 저희 팀의 목표와 일치하여 선택하였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팔로워 수가 적지만 팔로워의 충성도가 높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제품 협찬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한 체험단 모집도 진행하였습니다. 11월인 현재로서는 여러 인플루언서와 광고 단가를 알아보는 단계까지 끝냈고 몇 명의 인플루언서와 컨택 중에 있습니다. 직접 여러 사람과 컨택하고 체험단 모집 계획을 짜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많이 발생했지만 소통 방식이나 계획을 조정하며 일을 진행하는 것도 조금씩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진행하며, 참여했던 모든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단지 ‘마케팅 활동’이라고 하여 참여했었지만 실제로 훨씬 복합적인 과정이고, 각자의 시간과 노력이 모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SNS 광고 기획과 제작, 상세페이지 수정, 샷폼 제작, 바이럴 마케팅 등의 활동을 각자 이어나가며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기회를 열어주신 진바이오텍과 바쁜 와중에도 미팅을 하며 꾸준히 조언해 주신 권기현 선배님, 진바이오텍 대표님, 회사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친절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에 이번 활동이 학생들에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활동 내내 함께 소통하고 도와준 팀원들, 샷폼·SNS·커뮤니티 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준 동자와 선후배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남은 SNS 광고 활동과 여러 방면의 마케팅, 그리고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 성장을 응원해 주시고 다음 동창 11기에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백 6기



2025. 8. 11. (윗줄 왼쪽부터) 이진현, 박여은, 박희원, 이찬, 김규민, 이영표, 조현성, 이승재, 하채호, 김예원, 조서연, 추채윤, 서지현, 김근용

동백은 동자과 유일 학술 동아리로, 지난 2025년 여름방학에 동백 6기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번 기수에는 이전과 다르게 각 주마다 전반부에는 실험기법 발표와 논문 해석 연습을 하고 후반부에는 5조로 나누어 팀별 연구실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각각 어떤 활동을 진행했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1주차에는 논문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학술 논문을 찾는 법, 논문의 구성, 읽는 순서와 좋은 논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임원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 활동은 대학 생활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직접 논문 찾기 활동도 진행하여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2주차부터 4주차까지 이어진 실험기법 발표에서는 단백질 동정, 단백질 분리, 단일 세포 분리 방법, 유전체 분석, 유전자 편집, 미생물 배양, 줄기세포, 2D/3D cell culture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동자과의 연구실 중 동물면역학실, 동물성식품학실, 동물세포공학실, 동물유전학실, 생물정보 및 집단유전학실 등 다섯 가지 연구실을 선정하여 각 조마다

연구실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발표 주제를 먼저 소개하자면, 동물면역학실에서는 Adjuvant를, 동물성식품학실에서는 Cold Plasma와 육류에의 응용을, 동물세포공학실에서는 인간화 마우스를 이용한 조혈면역계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유전학실에서는 PGC에서의 DNA 복구 경로 선택의 선호도를, 생물정보학실에서는 언어모델과 RNA splicing 예측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실에 대해서는 1주차에는 논문 리서치, 2주차에는 연구실 탐구, 3주차에는 중간/기말 발표를 하기 위한 주제 좁히기, 4-5주차에는 세부 주제 및 논문 선정을 하였습니다. 6주차에는 간단하게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들에 대해서 다른 팀원들에게 소개하는 중간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어진 활동에서는 각자 논문을 분석하고 figure 해석과 다른 논문을 통한 보충설명 등을 하며 연구실과 논문에 대해 다방면으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학술 포스터를 제작하였고, 이를 발표를 통해 다

른 팀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동백 6기에서 가장 특별했던 활동은 모든 주차의 활동이 끝난 후 진행된 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의 학술동아리 ‘청운’ 과의 학술 교류회였습니다. 동백 에서는 최종 발표 다섯 팀 중 두 팀을 투표로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청운에서는 세 개의 연구실에 대해서 발표 하였습니다. 동백에서는 동물면역학실과 동물성식품 학실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서로 발표하고 질문하며 학 술적인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고, 각각의 학교에서 진 행 중인 연구의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 니다. 다른 대학교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 처음이었기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경험 도 할 수 있었고 이미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다같이 회식을 하며 친분을 쌓는 시간도 가졌 습니다.

동백에서의 발표와 논문 분석을 통해 논문에 대한 심 층적인 탐구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전공 수업을 듣거 나 다른 연구를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동백 6기 활동에 대한 소감을 회장이었던 23 학번 추채윤 학생의 간단한 인터뷰로 들어 보겠습니 다.



### 인터뷰 [회장 추채윤]

#### 1. 동백 6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 첫 동백 활동이 바로 직전 기수인 동백 5기였는데, 바로 다음 기수에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 전공 발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2학년인데 학술 동아리의 장을 맡게 되었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전공 수업을 몇 개 듣지 않았다 보니 부원들이 다른 연구 실 발표 를 할 때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최선을 다해 임원진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자 더욱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두 달간의 활동 후 최종발표까지 진행하고 나니 시원섭 혀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백 6기가 끝났다는 사실이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무려 여름 방학 내내 하 던 활동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안 믿겼던 것 같습니 다. 지금 돌아보니 여전히 아쉬움은 남지만, 나름대로 동백 6기를 무사히 마무리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원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2025. 8. 13. 중앙대학교 학술교류회, 이진현, 하채호

## 동백 6기 포스터

동백 6기에서 발표한 다섯 가지 연구실에 대한 연구 포스터를 다음 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동백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고 어떤 멋진 결과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다음 페이지의 포스터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술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동백이 되겠습니다.

## 2. 학술교류회를 하며 느낀 점을 간단히 공유해주세요.

학술교류회는 동백 5기 때 추진하여 동백 6기 때 성사된 행사입니다. 8주간 활동한 동백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타대 동물생명공학 전공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교류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의 학술 동아리 청운과 학술교류회를 진행하였는데, 동자과에선 연구하지 않는 생태학을 다룬다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같은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접하지 않는 연구분야가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청운은 동백과 달리 학기중에 활동하였는데, 오랜 시간 활동하는 만큼 논문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동백 활동을 하면서 동자과 내에서만 지식을 나누어 돌고 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동자과 외부로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 동아리의 장으로서 학술교류회라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여러모로 한 단계 성장하였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생해 준 임원진들, 8주간 열심히 활동해 준 동백 부원들, 그리고 멀리까지 와주신 청운 부원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 Adjuvant의 백신 면역원성 개선 효과 및 발전 방향

## Effects of adjuvant on improving the vaccines immunogenicity and the direction of adjuvant development

이진현 양준현 하재호

### ABSTRACT

New-generation 백신이라 불리는 mRNA 기반 백신, subunit 백신은 기존의 생백신, 불활화 백신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특이성을 갖지만, 면역원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주번트(Adjuvant)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주번트의 작용 기전을 소개하고, 다양한 어주번트의 면역 반응 촉진 효과를 비교한다. 또, 개별 어주번트가 갖는 특성과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PBA(Protein-based adjuvant)의 일종인 PorB를 살펴보고, 맞춤형 면역 치료로 발전할 수 있는 어주번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INTRODUCTION

백신에는 병원체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에 백신이 유입되면 면역계가 활성화된다. 항원제시세포(antigen-presenting cell, APC)가 이를 인식하면 항원 제시 신호와 공동 자극 신호를 전달하여 T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적응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어주번트는 이러한 두 신호의 생성을 촉진시켜 백신의 면역원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New-generation 백신은 기존의 약독화 생백신이나 불활화 백신보다 immunogenic(면역원성)이 낮기 때문에, 최근 어주번트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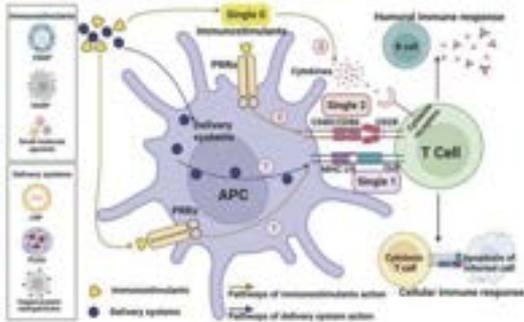


Fig 1. Mechanism of Adjuvant 어주번트는 (i) PAMP, DAMP를 모방하여 APC의 PRR에 결합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유도하거나(Immunostimulants), (ii) 운반 물질을 통해 APC에 의한 항원의 흡수와 제시를 증가시킨다(Delivery system).

### RESULTS

#### 1) RSV Vaccine with Nanoparticle-Based Poly-Sorbitol Transporter (PST) Adjuvant Improves Respiratory Protection Against RSV Through Inducing Both Systemic and Mucosal Humoral Immunity

백신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충분한 면역 지속성과 강도의 확보가 어려우며, 특히 점막 면역이 미약해 실질적인 감염 차단 효과가 제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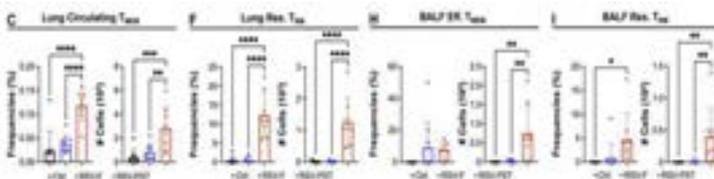


Fig 2. Formation of RSV-F-Specific Tissue-Resident Memory (TRM) and Circulating Memory (TMEM) CD8+ T Cells through Intranasal RSV-PST Immunization RSV-PST 비강 면역는 RSV-F 단독 투여나 Ctrl에 비해 Lung과 BALF에서 RSV-F 특이적 TMEM 및 TRM을 높은 수준으로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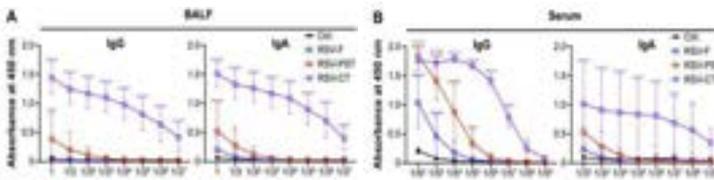


Fig 3. Formation of RSV-F-Specific IgG and IgA Antibodies in BALF and Serum Following Intranasal Immunization with RSV-PST 어주번트의 첨가는 BALF와 Serum에서 RSV-F 특이 항체인 IgG 및 IgA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 2) Characterization and comparison of novel adjuvants for a prefusion clamped MERS vaccine

MERS-CoV spike protein을 prefusion 구조로 안정화한 MERS SClamp subunit vaccines을 6가지 서로 다른 어주번트와 제형화해 면역 반응 차이를 직접 비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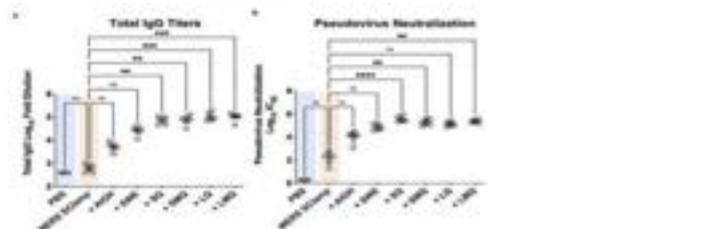


Fig 4. Total IgG Titers and Pseudovirus Neutralization Induced by MERS SClamp Vaccine Formulated with Different Adjuv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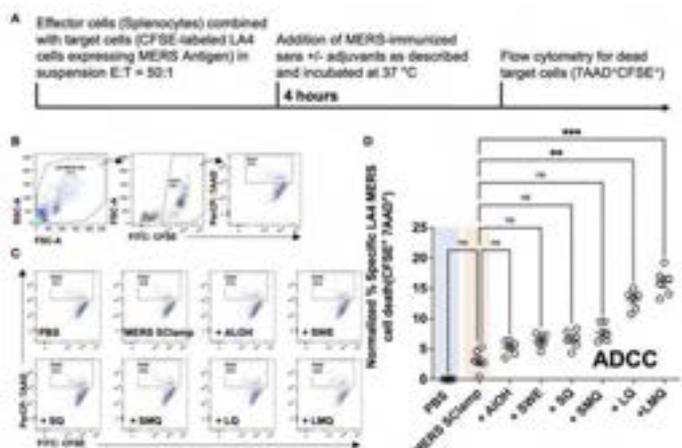


Fig 5. Vaccine-induced antibody responses vary with potential for ADCC induction

MERS SClamp 백신에 SQ, SMQ, LQ 및 LMQ 어주번트를 첨가한 경우 타 어주번트에 비해 IgG 항체 생성량 및 Pseudovirus Neutralization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LQ나 LMQ는 다른 비교군들보다 ADCC 역시 높은 수치를 드러냈다.

위 두 논문을 종합해볼 때 어주번트에 따라 성능과 특징의 차이가 극명하며, 보다 뛰어난 효과를 위해서는 각 상황에 최적화된 어주번트의 선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The TLR2 binding neisserial porin PorB enhances antigen presenting cell trafficking and cross-pres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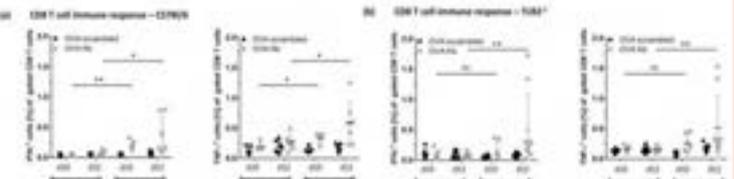


Fig 6. PorB를 포함한 OVA 백신의 CD8+ T cell 반응 (a) 야생형 C57BL/6 마우스와 (b) TLR2 결손 (TLR2-/-) 마우스에서 CD8+ T 세포 내에서 IFN-gamma와 TNF-alpha 생산량을 세포내 염색법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PorB가 OVA 백신의 CD8+ T 세포 반응과 항원의 교차제시를 효과적으로 증강시켰다.

### DISCUSSION

백신의 면역 반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어주번트의 효과가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그러나 Aluminium hydroxide를 비롯한 대부분의 어주번트는 humoral immune reaction과 cellular immune reaction 중 하나에 편중된 효과를 보였다.

Aluminium hydroxide의 경우, humoral immune reaction은 유도한 반면 cellular immunity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 이는 (i) Aluminium hydroxide가 PRR에 직접 강하게 결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ii) 항원을 endosome, lysosome에서 분해하게 하여 MHC II에만 연결되고 교차제시 효율이 낮으며, (iii) Th2 유형의 CD4+ T cell을 촉진하는 반면 Th1 type은 충분히 유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porin과 같은 PBA(protein-based adjuvant)로 극복할 수 있다. *Neisseria meningitidis*의 outer membrane protein(OMP)인 PorB는 TLR2 ligand이며, 어주번트 기능을 한다. 이는 PRR의 TLR2에 직접 결합함으로써 APC의 활성화를 강하게 유도한다. PorB가 PRR을 직접 활성화하여 APC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차제시 효율을 높여 CD8+ T cell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강한 cellular immune reaction을 유도한다는 점이 실험을 통해 드러났다. 이는 PBA가 기존 어주번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PBA의 여러 구조는 T cell 혹은 B cell에 직접 결합하는 epitope로 기능할 수 있다. 어주번트가 면역 반응을 증강하는 백신 보조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epitope로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표적 역할을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bioinformatics가 발달함에 따라, T-cell receptor (TCR)와 B-cell receptor (BCR) epitope을 설계하여 질병 혹은 개체에 따른 맞춤형 면역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다. 백신/어주번트 분야에서는 PBA를 epitope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연구를 통해 학문과 질병 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RESOURCES

- Diaz-Dinamarca, Diego A., et al. "Protein-based adjuvants for vaccines as immunomodulators of the innate and adaptive immune response: Current knowledge, challenges, and future opportunities." *Pharmaceutics* 14.8 (2022): 1671.
- Jung, Seong-Mook, et al. "RSV Vaccine with Nanoparticle-Based Poly-Sorbitol Transporter (PST) Adjuvant Improves Respiratory Protection Against RSV Through Inducing Both Systemic and Mucosal Humoral Immunity." *Vaccines* 12.12 (2024): 1354.
- O'Donnell, Jake S., et al. "Characterization and comparison of novel adjuvants for a prefusion clamped MERS vaccine." *Frontiers in Immunology* 13 (2022): 976968.
- Reiser, Michael L., et al. "The TLR2 binding neisserial porin PorB enhances antigen presenting cell trafficking and cross-presentation." *Scientific reports* 7.1 (2017): 736.
- Zhao, Tingmei, et al. "Vaccine adjuvants: mechanisms and platforms." *Signal transduction and targeted therapy* 8.1 (2023): 283.



# 콜드 플라즈마의 육류 품질·기능성 제어 및 응용

## Regulation and Application of Meat Quality and Functionality via Cold Plasma

### INTRODUCTION

플라즈마는 제4의 물질 상태로, 반응성 산소 및 질소 종(RONS)을 포함한 다양한 입자로 구성되며, 이 중 콜드 플라즈마는 고온 없이도 살균, 표면 처리, 세도 조절이 가능한 비열처리 기반의 기능성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2018년도 연구에 따르면, 플라즈마 처리수는 과산화수소, 오존, 아질산염 등 활성종의 복합 작용을 통해 E. coli 바이오필름을 약 63% 제거하는 항균 효과를 보였다. 이는 플라즈마가 열이나 화학물 없이도 식품 표면 살균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Kim, S. J. et al., 2018).

콜드 플라즈마는 살균, 상처 치유, 암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식품 산업 전반에서도 열에 민감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동물성 식품 분야에서는 미생물 제어 외에도 지방산 함량, 색과 향이 유지, 조직감 개선, 항산화 활성 유도, 배양액 세도 증식 속도로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육류의 기능성과 품질을 동시에 제어하는 전략적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 APPLICATIONS

#### 1) Cold Plasma로 인한 소고기 지방 산화 정도에 따른 마이야르 반응물의 맛과 향미 변화

- Beef Tallow → ACP → VOC 형성/억제 → MRP 변화 → Flavor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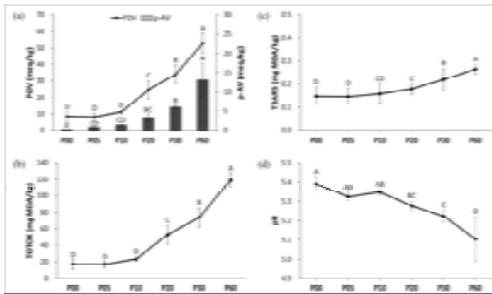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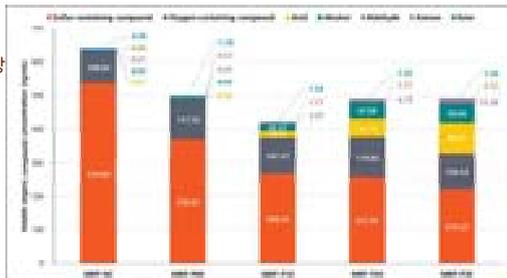


Fig.1 ACP 시간에 따른 소고기 지방 산화도 변화 (Lee et al., 2024)

#### Fig.2 ACP 시간별 소고기 지방 구성 요소 양 (Lee et al., 2024)



결론 : 1) ACP를 10분 진행한 소고기 지방의 산화도가 가장 높음  
ACP의 효능 파악 : 약취 유발하는 황 함유 VOC 형성을 억제  
2) ACP는 효율적, 경제적인 지방 산화 방법임. 다방면 활용 가능성

#### 2) 쇠고기 패티 저장에서의 최적의 Cold Plasma 처리 조건

- Cold Plasma 처리 조건에 따라 쇠고기의 색상, 미오글로빈, 지질 산화에 변화에 차이가 생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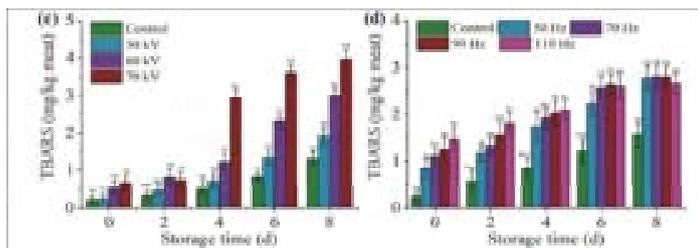


Fig.3 전압과 주파수 조건 변화에 따른 TBARS 수치 (Wanga et al., 2021)

전압과 주파수 조건 변화에 따른 TBARS 수치  
→ 주파수 변화가 전압 조건 변화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함  
→ 전압이 증가할 수록 지질 산화가 촉진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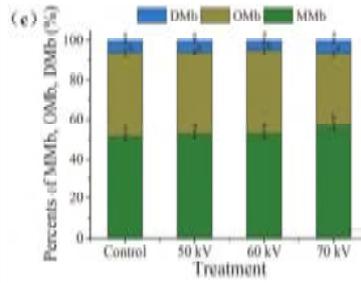


Fig.4 전압 조건 변화에 따른 MMB, OMB, DMB 수치  
• 50~60 kV에서 OMB수치가 높고 MMB 수치가 낮음  
• 70 kV에서 OMB수치가 낮고 MMB 수치가 높음  
→ 50~60 kV에서 색상 품질 증가 (Wanga et al., 2021)

결론: Cold Plasma 처리 시 전압이 높을수록 색상 저하와 산화가 심화되며, 50~60kV 조건이 품질 유지에 가장 적합했다.

#### 3) Cold plasma 처리에 따른 lab-grown meat의 세도 증식 증폭

- 최적의 cold plasma 처리(0.28W, 3L/min, 1분, 2cm)에 따른 C2C12의 생존/사멸 상태 관찰
- cold plasma 처리 후 세포 증식을 유전적 측면에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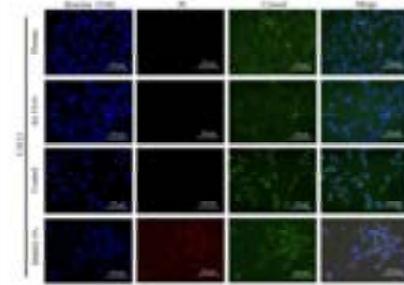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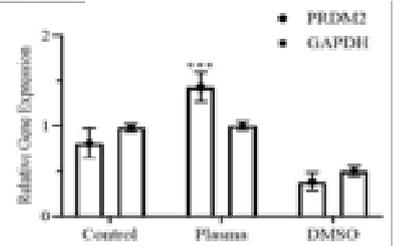


Fig.5 Cold plasma 처리 유무에 따른 C2C12의 생존 및 사멸 상태를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Yawut et al., 2025)

- 파랑 -> 생존
- 빨강 -> 사멸

#### Fig.6 Cold plasma 처리가 특이적 증식 효과를 나타냄 (Yawut et al., 2025)



결론 : Cold plasma 처리를 통해 세포 증식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이는 식품/바이오산업에서 세포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

### CONCLUSION

Cold plasma는 반응성 활성종을 통해 살균과 동시에 육류의 품질과 기능성을 제어할 수 있는 비열처리 기술이다. 소고기 지방 처리 시 맛 개선과 약취 억제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최적 조건은 10분 처리였다. 지방 중 색상과 산화 안정성은 전압에 따라 달라졌고, 50~60kV가 품질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배양액 세도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증식과 유전자 발현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old plasma가 동물성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성과 고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술임을 시사한다.

### RESOURCES

- Kim, S. J., Chung, T. H., Bae, S. H., Leem, S. H., & Kwon, G. C. (2018). Plasma-functionalized solution: A potent antimicrobial agent for biomedical applications from antibacterial therapeutics to biomaterial surface engineering.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10(6)**, 5486-5493.
- Lee, D., Kim, H. J., Kim, S. S., Park, N., & Jo, C. (2024). Changes in the flavor formation and sensory attributes of Maillard reaction products by different oxidation degrees of beef tallow via cold plasma. *Food Research International*, **196**, 115118.
- Wanga, X., Wanga, Z., Zhuang, B. H., Mustapha Muhammad Nasiru, A., Yuan, Y., Zhanga, J., & Wenjing Yan, A. T. (2021). Changes in color, myoglobin, and lipid oxidation in beef patties treated by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cold plasma during storage. *Meat Science*, **176**, 108456.
- Yawut, N., Leksakul, K., Vichiansan, N., Boonyawan, D., & Mekwilai, T. (2025). Approach to enhancing myoblast cell proliferation through plasma jet stimulation for the design of lab-grown meat. *Journal of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19**, 101718.

# 인간화 마우스를 이용한 조혈면역계 연구 Hematopoietic system research using humanized m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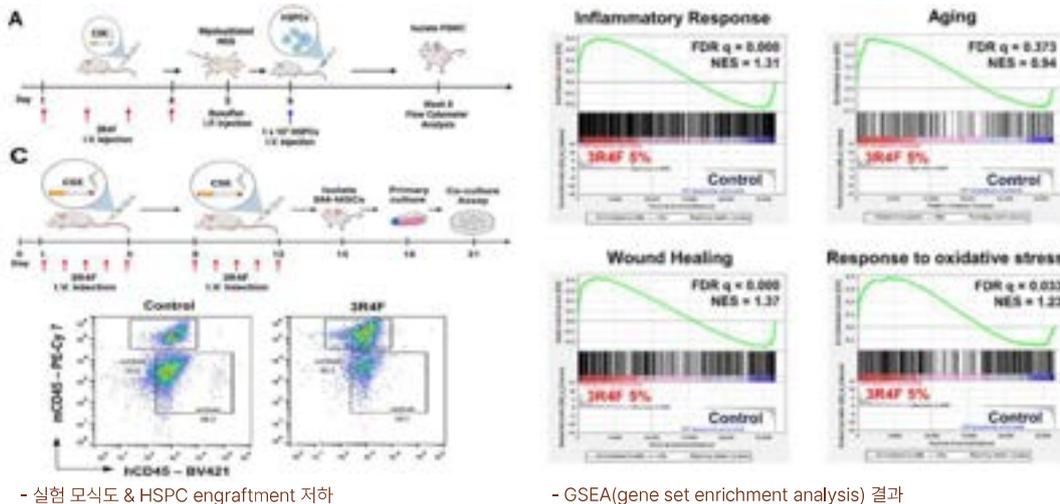
동물세포공학실 <룩스타> 서지현, 이승재, 조현성

## 1. ABSTRACT

본 포스터는 인간화 마우스를 이용한 조혈면역계 연구의 다양한 접근과 결과를 소개한다. 먼저 선천면역과 적응면역이 모두 제거된 NSG mice를 이용한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조혈면역계의 변화 연구에서, 담배 연기 추출물은 MSC의 조혈지지능력을 손상시키며 ROS, NLRP3 경로 등을 통해 조혈면역계를 손상시켰고 SARS-CoV-2 PsV는 조혈모세포의 노화, 염증반응을 증가시켰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변형된 유전자 이식으로 환자의 병리 상태를 모사한 인간화 마우스를 이용해 in vivo의 심근계 섬유화 증가에 끼치는 DNMT3A CHIP mutation의 영향을 검증하며 이를 토대로 그 기전이 HB-EGF-EGFR axis를 통합을 보였다. 세 연구를 통해 조혈면역계 연구를 위한 인간화 마우스 활용의 타당성과 인간 조혈면역계 특성 연구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특성 연구를 넘어 개인화된 마우스 모델을 통한 치료 및 진단 플랫폼 구축이 기대된다.

## 2. 인간화 마우스를 이용한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조혈면역계 반응과 치료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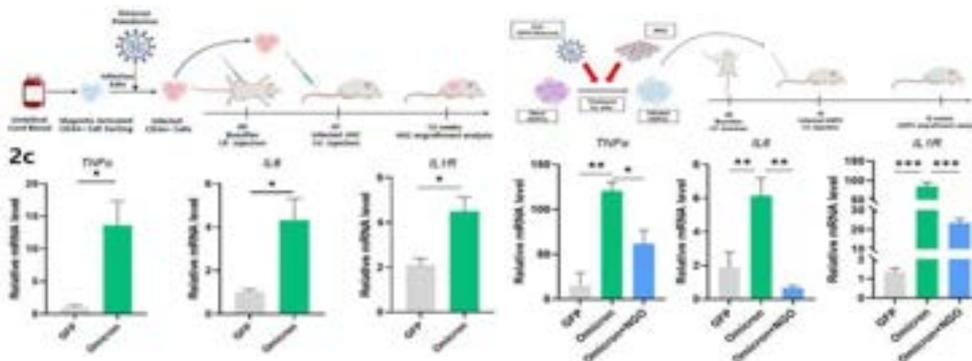
“Cigarette smoke impairs the hematopoietic supportive property of mesenchymal stem cells via the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and NLRP3 activation”



- 실험 모식도 & HSPC engraftment 저하

- GSEA(gene set enrichment analysis) 결과

“SARS-CoV-2 pseudovirus dysregulates hematopoiesis and induces inflammaging of hematopoietic stem and progenitor cells”



- in vivo Omicron PsV infection 실험 모식도 & 염증 및 노화 관련 유전자 전사량 비교

- in vivo NGO 처리 실험 모식도 & 염증 관련 유전자 전사량 비교

## RESOURCES

- Park, H. S., et al. (2024). Cigarette smoke impairs the hematopoietic supportive property of mesenchymal stem cells via the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and NLRP3 activation. *Stem cell research & therapy*, 15(1), 145.
- Chae, D. H., et al. (2025). SARS-CoV-2 pseudovirus dysregulates hematopoiesis and induces inflammaging of hematopoietic stem and progenitor cells.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57(3), 616–627.
- Shumliakivska, M., et al. (2024). DNMT3A clonal hematopoiesis-driver mutations induce cardiac fibrosis by paracrine activation of fibroblasts. *Nature communications*, 15(1), 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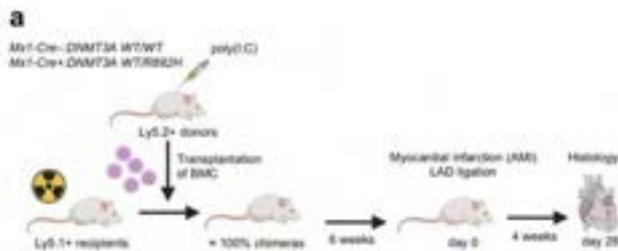


### 3. 인간화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이용한 병리학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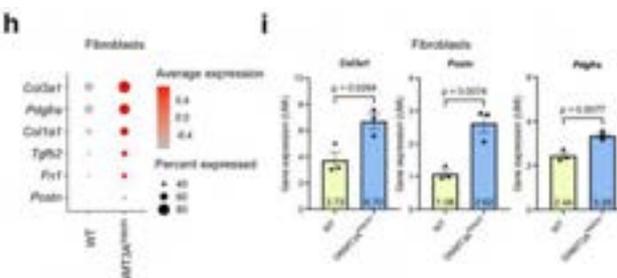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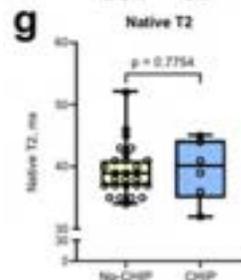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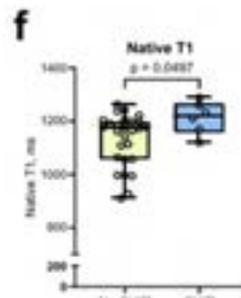
“DNMT3A clonal hematopoiesis-driver mutations induce cardiac fibrosis by paracrine activation of fibroblasts”

해당 논문에서는 clonal hematopoiesis of indeterminate potential(CHIP)에서 DNMT3A 이상이 심근계 섬유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인다. 먼저 **DNMT3A CHIP monocyte가 cardiac fibroblast와 상호작용**하여 2D/3D 상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RNA sequencing을 통해 조명한 후, **humanized mice와 heart failure patients에서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이 in vivo 에서 활발함을** 검증했다. 또한 그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ligand-receptor prediction, scRNA sequencing 등을 진행했고 DNMT3A 미발현으로 인한 심근계 섬유화 증가가 **heparin-binding epidermal growth factor-like growth factor(HB-EGF)-epidermal growth factor(EGFR) axis**를 통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쓰인 마우스 모델은 DNMT3A 변이를 도입했다는 의미의 인간화 마우스로, 일반적으로 인간 유래 조직/세포를 이식하는 이전의 인간화 마우스와는 조작 수준이 조금 다르다. 여기서는 이를 통해 원하는 특수한 병리를 모방했고, DNMT3A CHIP driver mutation이 전사체/대식세포 발현 수준과 cardiac fibrosis 증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in vivo 수준에서 뒷받침할 수 있었다. 아래는 마우스 관련 실험의 결과를 보이는 figures.



- 인간화 마우스를 활용한 실험 과정



- DNMT3A 변이군과 WT군 간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 정도를 나타낸 dot plot/정량화 수치(unpaired two-sided student's t-test)

- HF 환자 중 DNMA3A CHIP/no-CHIP군 간 native T1/T2(심근 섬유화/염증 정도 평가) MRI 결과 차이. 마우스의 결과와 같은 양상 관찰

### 4. CONCLUSION/LIMITATIONS

- 정상 인간 조혈면역계를 모사한 인간화 마우스와 유전자 변형이 적용된 인간화 마우스 모두 인간 조혈면역계 특성과 반응을 확인에 유효함
- 인간화 마우스는 조혈면역계와 특정 요인의 상호작용 관계와 그 기전을 규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 정상 조혈면역계를 모방한 마우스, 특정 병리 상태를 모방한 마우스 모두 뛰어난 모사성을 보인 만큼 향후 더 개인화된 다양한 마우스 모델을 통한 정밀 치료 및 진단 기술 연구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충분한 실험수를 확보하기 어렵고, 인간 모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이를 한번에 고려하기에는 아직 기술적 한계가 있음

### RESOURCES

- Park, H. S., et al. (2024). Cigarette smoke impairs the hematopoietic supportive property of mesenchymal stem cells via the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and NLRP3 activation. *Stem cell research & therapy*, 15(1), 145.

- Chae, D. H., et al. (2025). SARS-CoV-2 pseudovirus dysregulates hematopoiesis and induces inflammaging of hematopoietic stem and progenitor cells.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57(3), 616–627.

- Shumliakivska, M., et al. (2024). DNMT3A clonal hematopoiesis-driver mutations induce cardiac fibrosis by paracrine activation of fibroblasts. *Nature communications*, 15(1), 606.



# 세포 손상 시 닭 PGC의 DNA 복구 경로에서 세포사멸 경로로의 선호도 변화

## The shift of preference for DNA repair over apoptosis in chicken primordial germ cells under cell damage preserves genome st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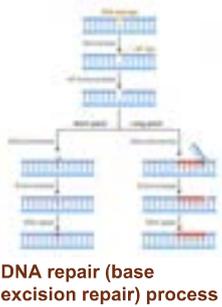
<유전무죄 무전유죄> 조서연, 이찬, 김예원

###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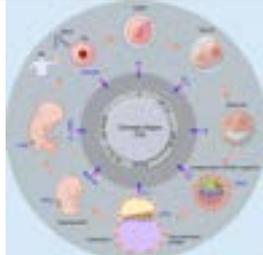
원시생식세포(PGC)는 생식세포의 전구세포로서 생물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발생 초기 내외부의 영향으로 DNA가 손상될 수 있다. 닭의 PGC에는 DNA 손상이 없을 때까지 주요 DNA 수리 경로와 2가지 주요 세포사멸 경로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닭 조직에서 이의 발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GC와 CEF의 DNA 복구 관련 유전자의 수를 heatmap을 통해 비교하고 TMR-Red로 세포사멸 정도를,  $\gamma$ -H2A.X로 DNA repair 정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GSEA 분석적으로 손상이 없을 때의 DNA 복구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DNA 손상 시 PGC는 CEF보다 상대적으로 세포 사멸 경로를 우선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정상 상태에서 경우에는 사소한 DNA repair 경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PGC가 genome stability를 우선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가금류 생식세포의 DNA 손상 복구 기전을 이해하는 데에 기초를 제공하며, 향후 유전자 교정 등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 INTRODUCTION



Chicken PGC under the microscope



### RESULTS

#### 1. DNA repair 유전자 비교

1-1 PGC는 높지만, 체세포(DF-1) 이미 분화한 상태인 CEF는 낮음.

-log2 TMM value 나타낸 heatmap에서, DNA 복구 경로와 연관된 유전자 대부분은 CEF보다 PGC에서 높음. (Fig.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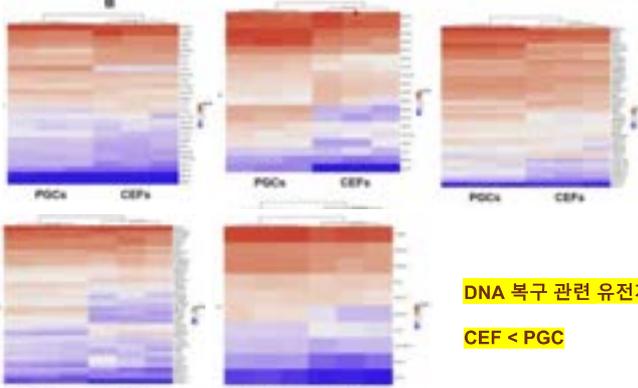


Figure 1

1-2 특히 PGC에서는 Base excision repair 유전자가 체세포(DF-1)보다 많음.  
- RT-qPCR로 PGC와 DF-1의 유전자 발현을 비교했더니, 대표적으로 아래 두 유전자가 PGC에서 월등히 높음. (Figure 2-A)

1) UNG gene: DNA glycosylase(BER에서 염기를 recognize하고 떼어내는 효소)를 코딩

2) APEX1 gene: DNA lyase를 코딩

- 이 외에도 BER과 관련된 TRPC2L, LIG3, PARP1, POLB, POLD2, FEN1 유전자가 PGC에서 높음. (figure 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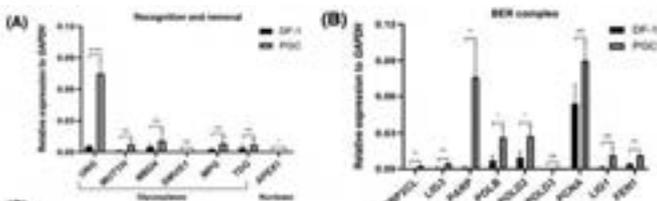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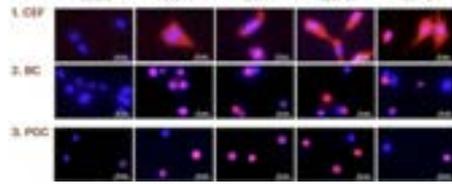


Figure 2

#### 2. CEF, BC, PGC의 DNA 손상 시 반응 경로 비교

##### 1) TMR-Red 염색으로 확인한 세포사멸 경로의 활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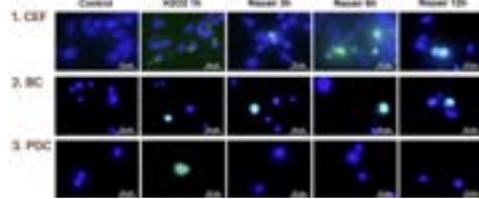


- 빨간 부분이 넓게 나타날수록 세포 사멸 정도가 높음.

- PGC는 H2O2 1h 부터 Repair 12h까지 가장 세포 사멸이 적게 일어남.

(세포 사멸 경로 CEF>BC>PGC)

##### 2) $\gamma$ -H2A.X 염색으로 확인한 DNA repair 경로의 활성 정도



- 녹색이 줄어들수록 DNA repair가 진행됨

- PGC는 repair 반응이 거의 없음

(DNA repair 경로 CEF>BC>PGC)

**PGC가 상대적으로 DNA repair보다 세포사멸 경로를 더 많이 선택함**

#### 3. GSEA 분석

- DNA에 손상을 받지 않은 정상 상태에서, PGC는 CEF보다 apoptosis 경로 유전자 발현이 낮음(Fig.3).

- Fig.3에서 logFC값이 양수, 0, 음수인 것은 각각 PGC에서 높게 발현됨, 발현 차이가 없음, PGC에서 낮게 발현됨을 의미함. BER, NER, MMR, NHEJ, HR 유전자 모두 PGC에서 유의하게 높게 발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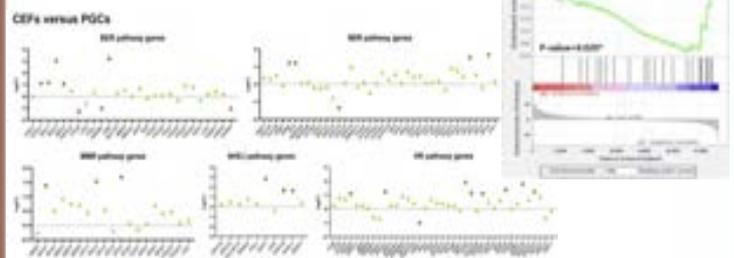


Figure 3

\*녹색-양수이면서 유의한 경우, 빨간색-음수이면서 유의한 경우, 노란색- 유의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CEF, PGC의 WTS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의 DNA손상 복구 경로를 비교하였다. log2HMM값을 계산하여 heatmap을 작성하고, 여러 유전자의 발현량을 비교하여 닭PGC의 DNA손상 복구 경로를 분석하였다. 정상 상태에서 DNA repair 경로 유전자는 PGC가 CEF보다 높게 발현되었고, apoptosis 유전자는 PGC가 CEF보다 낮게 발현되었다. GSEA 분석 결과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H2O2로 DNA에 손상을 입힌 상태에서, PGC는 세포사멸사 유전자의 발현이 점점 높아졌고, CEF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닭 PGC는 DNA에 손상을 받은 상태에서만 세포사멸사 경로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PGC의 이러한 특성은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물려줘야 하는 생식세포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 RESOURCES

[1] Lee KY, Lee HJ, Choi HJ, Han ST, Lee KH, Park KJ, Park JS, Jung KM, Kim YM, Han HJ, Han JY. Highly elevated base excision repair pathway in primordial germ cells causes low base editing activity in chickens. *Proc Natl Acad Sci U S A*. 2020;117(50):31838-31849. doi:10.1073/pnas.2016855117

[2] Rengaraj D, Won S, Jung KM, Woo SJ, Lee H, Kim YM, Kim H & Han JY. Chicken blastoderms and primordial germ cells possess higher expression of DNA repair genes and lower expression of apoptosis genes to preserve their genome stability. *Sci.Rep.* 12,49(2022). MDPI Nature



# 언어 모델을 활용한 RNA 스플라이싱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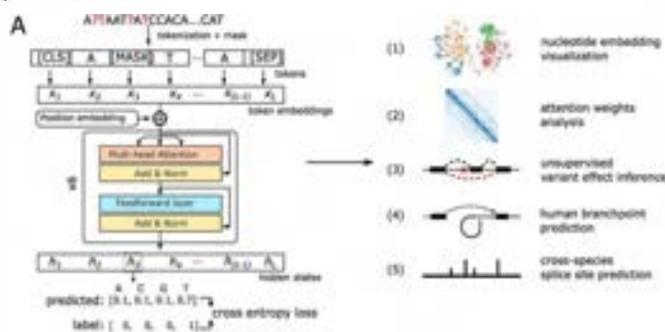
## Predicting RNA Splicing with Language Model

<GENIus> 김광명, 김규민, 이영표

###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72종의 척추동물에서 추출한 1차 RNA 시퀀스를 기반으로 마스크 언어 모델링 (MLM)을 통해 사전학습한 SpliceBERT를 개발하고, 이를 RNA 스플라이싱 예측에 적용하였다. 기존의 계층 언어 모델들이 단일 종 시열에 한정되어 진화적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SpliceBERT는 다양한 종의 시열 학습을 통해 진화적으로 보존된 엘리먼트를 효과적으로 식별한다. 학습된 은닉 상태(hidden state)와 어텐션 가중치(attention weight)는 스플라이싱 부위의 생물학적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 SpliceBERT는 변이의 스플라이싱 영향 예측(제로샷), 인간 브랜치포인트 예측, 중간 스플라이싱 부위 예측 등의 다운스트림 작업에서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다종 시열 기반 사전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기지도학습(SSL)에 계층 시열 내 조절 논리 이해에 유용한 방법임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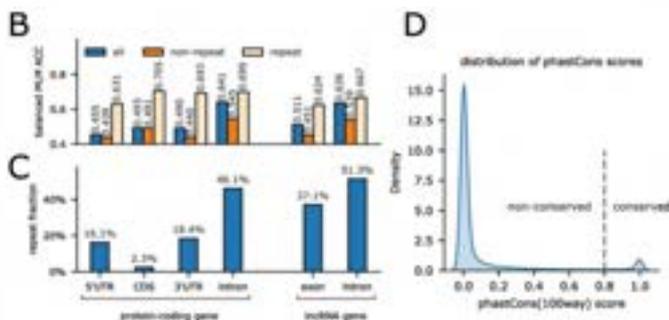
### SpliceBERT



- 뉴클레오타이드 단위의 토큰화
- 양방향 문맥 해석
- 마스크 언어 모델링을 통한 문맥 학습
- 토큰 임베딩 + 위치 임베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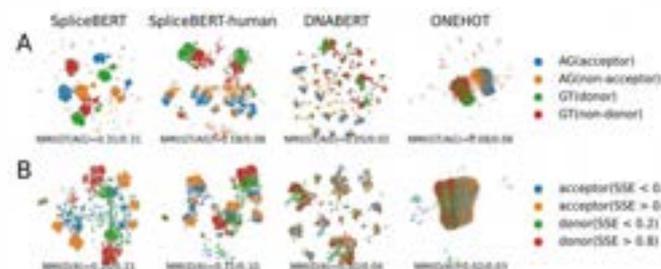
### Results

#### 1) MLM captures evolutionary conservation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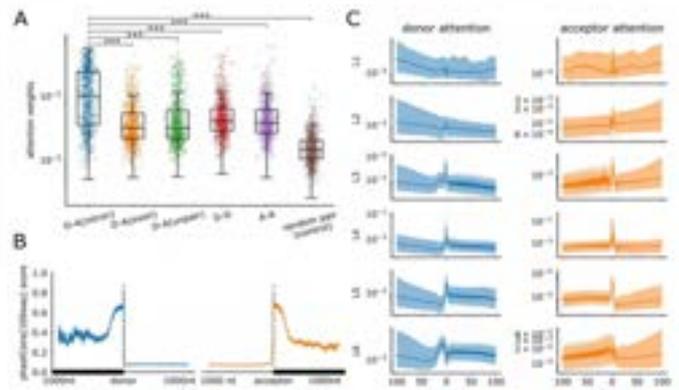
- MLM 사전학습만으로 진화적 정보 포착
- 다양한 종을 포함할수록 능력 향상
- 여적 정확도가 높진 않음

#### 2) Nucleotide embeddings learned by SpliceBERT characterize the property of splice si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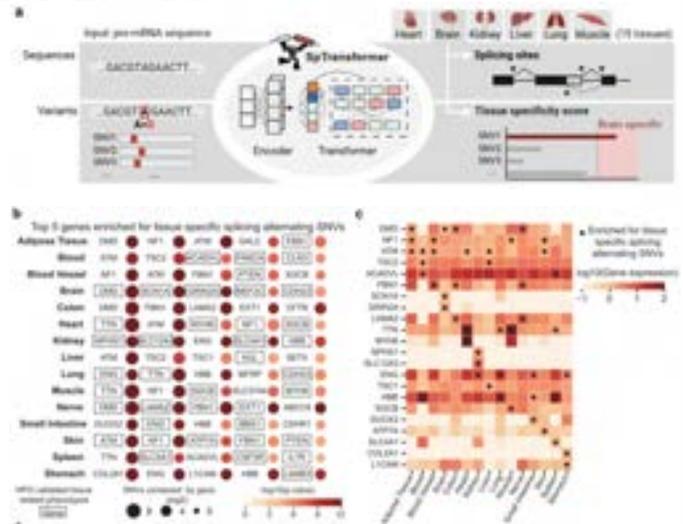
- SS와 NSS 구분에 높은 성능
- 다양한 종을 학습하여 범용성 향상
- 중간 레이어 임베딩이 적함

#### 3) Attention weights in SpliceBERT correlate with donor-acceptor dependencies



- 도나-어셉터간 기능적 연관성 포착
- 진화적 보존 및 스플라이싱 특성과의 일치
- 특정 레이어(3-5)의 핵심 역할

### Future Direction



- 조직 특이적 선택적 스플라이싱의 장질 분석 및 질환 연계
- 조직 특이적 선택적 스플라이싱의 임상적 활용

### Conclusion

#### SpliceBERT

- 진화 정보(evolutionary conservation) 포착을 위한 self-supervised 학습
- 72종 척추동물 시열 기반 splice site 및 branchpoint 예측 성능 향상
- 학습되지 않은 변이에 대한 zero-shot 예측 수행
- 데이터 부족 및 중간 예측 장벽 극복 가능성 제시

#### SpliceTransformer

- 조직 특이적 스플라이싱 양상의 임상적 중요성 부각
- GTEx 기반 학습을 통한 실제 발현 조직 일치 예측
- 뇌-심장 질환 등에서의 조직-변이-질환 연계 정량화
- ClinVar SNV ΔSplice score 계산을 통한 진단적 가치 실증

### Resources

- Ken Chen, Yue Zhou, Maolin Ding, Yu Wang, Zhixiang Ren, Yuedong Yang. Self-supervised learning on millions of primary RNA sequences from 72 vertebrates improves sequence-based RNA splicing prediction. *Briefings in Bioinformatics*, Volume 25, Issue 3, May 2024, bbae163.
- You, N., Liu, C., Gu, Y. et al. SpliceTransformer predicts tissue-specific splicing linked to human diseases. *Nat Commun* 15, 9129 (2024).

# FC동자 홈커밍



2025. 11. 1. 기숙사 운동장

2025년 11월 1일, 기숙사 운동장에서 FC동자 홈커밍이 진행되었습니다. FC 동자 홈커밍은 동자과의 유서 깊은 행사로,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학부생들이 다같이 축구 경기를 진행하고 뒤풀이를 하며 유대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에 나가계신 선배님들의 뜻깊은 조언도 톡톡이 들을 수 있어 다양한 방면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시가 되며,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넘치는 의욕을 잠깐만 누르고, 부상 없는 행사 진행을 위해 다같이 준비운동을 했습니다. 준비운동이 끝난 후, 관악사 운동장은 동자과만의 즐거움과 열정으로 뒤덮였습니다.

경기는 YB(학부생)과 OB(졸업생 선배님)로 팀을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의 축구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시며

대부분의 경기에서 선배님들이 더 많은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질세라 25학번의 자랑 최지욱 선수를 비롯해 많은 학부생들이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들 의욕이 넘쳐 기존 시간보다 30분 더 경기를 진행할 정도로 승패를 떠나 행사에 참여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의 집중하였습니다. 3시간이 3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선배님들과 잠깐이나마 함께 뒀 경험은 뜻깊고 귀중했습니다.

경기 후, '송원숯불갈비전문점'에서 뒤풀이가 진행되었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먹으며 경기의 회포를 풀고, 학업적인 얘기, 일상 얘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졸업생분들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무척이나 영광이었고, 참여해주신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FC동자 화이팅!

# 사진으로 보는 동자

Album



# 동요

2025년 여름, 동자과 학부생들이 마음을 모아 밴드 '동요'를 만들었습니다. 바쁜 일상 사이에서 합주를 통해 작은 힐링을 얻고자 시작한 동아리가, 많은 학부생의 관심으로 어느덧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동요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생각했어요. 특히 대학생활은 많은 것을 접해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경험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또, 저희 과에 음악적 재능과 흥미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은데 다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밴드 활동을 하는 것에도 나름의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과 안에서 밴드 동아리를 만들면 저희 과 사람들이 밴드와 음악 전반을 더 쉽게 접할 수도 있고 밴드 합주를 하면서 과의 단합력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과 밴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다들 내심 과 밴드가 있길 원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쉽사리 나서서 직접 만들기는 망설여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만들어야겠다고 싶었어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동아리가 굴러가고 있습니다(웃음).

## 인터뷰 [회장 김광명]

###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자과 21학번 김광명입니다. 올해 8월 동자과의 신생 동아리 '동요'를 만들었습니다.

### 2. 동요를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저희 동물생명공학과 안에서 밴드를 만들자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과 안에서는 밴드 동아리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단과대 소속 밴드 동아리나 중앙 밴드 동아리, 아니면 주로 매김소리 같은 농생대 밴드 동아리로 많이들 가서 밴드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동아리들은 규모가 큰 만큼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고 로드도 상당해서 특히 고학년들이 도전하기에는 부담이 많다고 느껴졌어요. 저를 포함해서 고학년들도 밴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단지 학년이 높다고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 3. 동요에서 현재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나요?

현재 동요에서는 공연 준비와 일반 합주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공연이 계획돼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모여서 가볍게 합주만 진행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아서 공연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는 부원들은 정해진 공연팀 안에서 공연곡 합주를 매주 진행하고 있고, 겨울 방학 중에 첫 공연을 할 예정이에요.



**4. 동요가 부원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을 것 같나요?**

공부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학과 사람들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기억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 공부나 연구, 혹은 다른 기타 활동 등을 하면서 지치거나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반복된 일상 속에서 권태를 느끼기도 할 텐데, 우리가 공부나 과제를 하다가 가끔씩 바람을 쐬러 나와서 기분전환을 하듯, 동요를 언제나 편안하게 모여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공간으로 기억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 11. 27. (왼쪽부터) 정석원, 김광명, 이찬

**5. 동요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현재로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밴드 활동 혹은 악기 연주에 관심이 있고, 과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연주를 맞춰보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6. 동요에서 이루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나요?**

동요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밴드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밴드의 정신이라는 것은 특히 펑크 문화에서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인데, 바로 자유와 포용입니다. 펑크 문화의 기본적인 특성은 ‘Do It yourself: 누구나 할 수 있다’의 정신인데, 이 정신이 음악에서 펑크 록으로 표현되면서 지금의 밴드 문화에까지 강하게 이어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밴드활동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요에서도 이 정신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밴드 동아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력이 없거나 음악에 엄청난 조예나 흥미가 없더라도 누구나 밴드를 시도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동아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활동을 중단했다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이 동아리가 학우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음악에 재능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은 그 잠재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동아리를 크게 공연부랑 합주부로나누어서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공연을 준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합주부에서 합주 연습만 진행하다가, 어느정도 준비가 갖춰졌다 싶을 때는 공연팀에서 좋은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이중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이 소식지를 보게 될 학부생들에게 동요와 앞으로 있을 공연을 홍보해주세요!**

밴드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실력과 상관없이 함께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환영이니 다들 동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월 21일에 흥대 그림라이브하우스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이들 와주세요!

# 동아리팀 활동 후기

## 이찬

동행 20호에서는 동아리팀을 맡게 되어서 과 동아리를 많이 하고 있는 저로서는 아주 다행이었습니다. 동창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고 여름방학 때 동백도 참여했던 터였습니다. 이번 학기 동창에서 정말 특별한 일을 해서 동창에 대한 글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작문 실력이 좋진 않지만 직접 했던 업무들, 느꼈던 감정들을 최대한 담아보았습니다. 동창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였기에 쓰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활동을 되돌아보게 되어서 의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팀이었던 SNS 광고팀 이외의 다른 팀들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동창의 활동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더 활동이 많았는데 너무 글이 길어져서 자르긴 했습니다ㅎㅎ 동창에 대한 내용이긴 글이지만 열심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백도 여름에 했던 활동들을 기억하며(사실 기억이 잘 안났지만) 열심히 써보았습니다.

동자과에 여러 동아리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서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해질 수도 있고 동요와 같은 밴드 동아리에서는 악기도 배울 수 있답니다. 저도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선후배와 많이 친해졌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후배들도 꼭 많은 동아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석원

동행 20호에서는 동아리 팀을 맡았는데 아무래도 학부생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게 동아리이다 보니 더 공감하며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창은 이번에 타 기업과 협업해서 진행하는걸 보고 특히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동요는 새롭게 만들어졌는데도 선배들이 시간 쪼개가며 활동하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FC 동자는 말할 것도 없이 열정적인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동자과의 동아리가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 동행 활동

*Activity*

# 모교방문



2025. 11. 28. 늘푸른 고등학교

동행의 모교방문팀은 재학생들이 졸업한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후배들에게 전공과 대학생활을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팀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동물생명공학전공의 전체적인 구성과 설명, 그리고 입시와 진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홍보 활동을 넘어 학교 선배로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진로와 학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20호 모교방문 활동은 팀장인 24학번 송강 학생을 비롯해 25학번 권재윤, 김규민, 이지찬 학생 등 총 네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5학년도 2학기에는 권재윤 학생의 모교인 부산 장안제일고등학교와 김규민 학생의 모교인 늘푸른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각 학교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 모교방문 활동 순서 소개

첫 순서에서는 동물생명공학전공의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진로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학부에서 배우는 교과목 구성, 실험 중심의 수업 방식, 그리고 교수님들이 진행하고 계신 다양한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을 다각도로 소개했습니다. 동물유전공학, 생물정보학, 동물세포공학, 동물미생물학, 동물면역학, 동물영양학, 동물성식품학, 반추동물영양학 등 동물생명공학전공에서 다루는 폭넓은 연구들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생명과학의 기초부터 응용기술까지 아우르는 전공의 깊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직, 산업계, 공공기관, 대학원 진학 등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선배들의 진출 사례를 공유하며 학생들이 대학교 졸업 이후의 구체적인 진로 모습을 그려볼 수 있

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물생명공학을 전공하면 어떤 길이 열릴까?”라는 후배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입시 과정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각기 다른 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팀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준비 과정과 합격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면접 대비, 수능 공부 방법, 공부 습관 관리 팁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어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노력과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회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서울대학교의 대학생활 전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의 분위기, 동기들, 선후배들과의 교류, 축제와 학과 내외에서의 동아리 활동 등 실제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모교 후배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교 생활 소개가 끝난 뒤에는 자유로운 Q&A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학생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편하게 질문하며 선배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국어&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기부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공부 습관 관련 팁이 있나요?”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팀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전했습니다.

모교방문 활동은 단순한 전공 홍보를 넘어 선후배 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 속에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생명공학전공 소속 동아리 ‘동행’의 모교방문팀은 이러한 교류의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며 전공의 비전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미래의 후배들에게 영감을 전할 예정입니다.



2025. 11. 21. 장안제일 고등학교

## 장안제일고등학교



2025. 11. 21. 장안제일 고등학교

동행 20호의 첫 모교 방문 활동은 지난 11월 21일 권재윤 부원의 모교인 장안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와 전공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안제일고등학교는 이전에 학교장 추천형 일반 고등학교였던 이력이 있어 다른 학교에 비해 소수정예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도가 바뀌어 한 학년이 90명 남짓인 사립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24학번 송강, 25학번 권재윤, 김규민, 정석원 학생이 방문하였고 과학 실험 동아리 학생들과 영재학급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개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물생명공학전공이 속한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구성과 학문적 특징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명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동물생명공학전공에서 다루는 주요 학문 분야와 연구 방향을 설명하며 실제로 교수님들께서 진행 중이신 다양한 연구 주제를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동자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들을 함께 소개해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2학년 모두와의 만남이어서 앞으로 바뀔 입시 제도에 대해 설명하

고 차이점을 설명하여 팁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소개 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이과 학생이라 생명과학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여 활발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동물생명공학과 관련된 세부 진로, 필요한 기초 학습 역량,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과 같은 전공 관련 질문이 많았으며 비슷한 분야로 진학하고 싶다는 학생들 또한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구 분야를 찾아보거나 논문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나아가 생기부를 작성할 때 자신이 원하는 전공 분야를 잘 녹여내는 팁 또한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으로서 가장 고민이 큰 수능 학습 전략과 과목별 공부 방법에 관한 질문도 이어져 부원들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 계획을 짜는 방법부터 세부 과목별 추천 공부법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이 집중해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질문을 해주어서 즐거우면서도 보람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늘푸른고등학교

두번째 모교 방문은 11월 28일에 진행된 김규민 학생의 모교 늘푸른고등학교 방문이었습니다. 늘푸른고등학교는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일반공립학교로 약 720명의 학생이 재학중입니다. 식품동물생명공학과 25학번 권재윤, 이지찬, 김규민 학생이 방문하였고, 3-40여명의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동물생명공학과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의 첫 순서는 자기소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농업생명과학대학과 동물생명공학전공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의 약력을 소개하며 현재 동물생명공학과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에 해당하는 연구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동물생명공학전공을 졸업한 학생들이 어느 곳에 취직하는 지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개강파티나 홈커밍 데이와 같은 과 행사들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서울대학교 전체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있었기 때문에 바뀌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고 현재 입시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었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입시에서 가져야 할 자세 등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자유로운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궁금해 했던 점은 입시에 관한 이야기로 학부모들의 수능 성적을 물어보거나, 특정 과목의 공부를 어떻게 하는 지 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모교 방문에 참가했던 학부모들은 모두 수시 모집을 지원했던 이력이 있어, 내신 관리와 생기부 관리, 자신이 원하는 분야와 관련지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법, 논문을 찾아보고 분석하는 법과 같은 심도 있는 내용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생명과학과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진로 등에 관해서도 질의를 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 모교방문팀 활동 후기

## 송강

이번 20호 모교방문 팀에서 활동하며 총 3번의 동행 활동을 모두 모교방문 팀에서 하게 되었네요. 7번의 모교방문 설명회를 진행하며 동물생명공학전공이라는 저희 과를 많이 알릴 수 있었고, 동시에 치열한 입시 생활을 보내고 있을 고등학생 후배들에게도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한 마음입니다. 이번 활동을 끝으로 동행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모교방문 팀과 함께 했던 2년 간의 활동이 앞으로의 동행, 그리고 팀에게도 보탬이 되는 발자취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권재윤

동행 모교방문을 통해 모교에 우리 과와 전공을 소개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후배들이 집중하며 큰 관심을 보여 더욱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김규민

이번 모교 방문은 중간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등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조원들끼리 힘을 맞춰서 잘 나아갔다는 점이 의미있었던 것 같고, 제 모교를 방문해서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로 보일 기회가 된 것 같아 보람찬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지찬

모교방문 활동을 통해 저는 ‘선배’라는 위치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후배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는 존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선택한 전공과 대학 생활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어떤 자세로 학업과 진로를 이어가야 할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후배들에게는 작은 동기부여가, 저에게는 책임감과 성찰을 남긴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2회 토크콘서트



2025. 12. 19.

동행 토크콘서트는 동자과를 졸업하신 선배님을 초청하여 진행되는 행사로, 2025년 2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30여 명의 학부생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토크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동자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기업 '팡세'의 대표로 계시는 98학번 이성준 선배님께서 게스트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토크콘서트는 사전 질문지를 바탕으로 하는 1부 공개 인터뷰와 학부생이 직접 작성한 질문에 답하는 2부 포스트잇 Q&A로 구성되었습니다.

동행 토크콘서트 팀원 박희원 학생이 호스트를 맡아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고, 동행 부원들로부터 설문 조사를 통해 이성준 선배님께 여쭙보고 싶은 질문을 수합하여 토크콘서트 주제에 맞게 1부 질문지를 구성하

였습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생활 및 진로 등에 관하여 선배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은 점을 바탕으로 2부 포스트잇을 구성하여 다양한 주제로 선배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 1부 인터뷰



**1.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동행 토크콘서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저는 98학번 이성준입니다. 동물자원과학과로 입학했고,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과가 식품동물생명공학부로 개편되면서 동물생명공학 전공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에 입학해서 2007년에 졸업을 했고, 학부 과정 중에 동물자원과학과와 기계공학을 복수전공했습니다. 이후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는 기계공학과 바이올을 융복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고, 바이오테크 분야로 석·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2015년에 졸업을 하면서 주식회사 팡세를 설립했고, 현재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2. 팡세가 어떤 기업인지 대략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세포 배양육입니다. 한우에서 세포를 분리해서 그 세포를 배양함으로써 도축 없이 고기를 생산하는 방식이고, 한우 고기를 만드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배양육을 했던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3D 바이오 프린터를 개발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프린터를 활용해 간 오가노이드, 뇌 오가노이드, 그리고 부위별 암 조직

을 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여러 계기를 거치면서 세포 배양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고, 현재는 세포 배양에 필요한 세포주, 배지, 장치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식약처 허가 신청 접수가 들어갔고, 조만간 미국 FDA에도 관련 자료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양산 공장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를 목표로 국내 최초 세포 배양육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 푸드테크 기업인 팡세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와 특히 배양육 분야에 뛰어들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의도하고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창업을 하다 보면 자기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장에 존재하는 기회와 페인포인트를 계속 탐색하면서 방향을 조금씩 수정하게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오가노이드 기반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 여러 계기를 거치면서 지금은 세포 배양육이라는 영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분야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 멀리 돌아서 결국 제 전공으로 돌아왔다는 느낌도 들고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가격이 모두 크게 상승했고, 호주에서는 양고기 가격이 5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커피 원두나 초콜릿 원재료, 설탕 같은 것들도 한 해 사이에 몇 배씩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 모든 현상의 배경에는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기후가 변하면서 기존 지역에서 동일한 작물을 생산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축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세포 배양육이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4. 현재 배양육 사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기회는 무엇이라고 느끼시나요?

가장 큰 어려움은 단연 경제성입니다.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 자체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세포를 넣고, 영양분이 들어 있는 배지를 공급하고, 산소와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며 감염만 막아주면 세포는 알아서 자랍니다. 기술적으로는 사람이 직접 할 필요도 없고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세포 배양육이 처음 세상에 공개됐을 때, 2008년경 마크 포스트 교수가 BBC에 출연해 만든 햄버거 패티 100g의 가격이 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하면 34억 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고기 가격이 킬로그램당 2만 원 수준인데, 이 간극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에 사용되는 고가의 공정과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고,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저희는 장비와 소재를 동시에 혁신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5. 국내외 배양육 산업의 전망과 발전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배양육 산업은 위기이자 동시에 굉장히 큰 기회의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기술이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산업화에 성공한다면, 해당 기업은 기존 식품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세포 배양육은 사라질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모든 신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이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6. 미래 식품 산업에서 광세가 그리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소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희는 인류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기존의 농업과 축산 방식이 점점 더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있고, 쌀을 비롯한 기본 식량조차도 앞으로는 지금처럼 생산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곡창지대가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새로운 농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인류는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되며, 세포 배양육은 그 해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개발이나 전쟁 상황에서도 결국 사람은 먹어야 하고, 그런 극한 환경에서도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식량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7. 언제부터 진로를 창업 쪽으로 결정하셨는지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학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석·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졸업이 점점 다가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졸업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 교수 초빙 제안을 받기도 했고, 선택지가 아주 없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있으면서 교수님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는데,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교수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수라는 직업이 연구와 학문에 집중하는 삶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부 과제를 수주하고 연구실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계셨고, 정작 본인이 직접 연구를 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삶은 내가 생각했던 방향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대기업 취업도 고민해 보긴 했지만, 서울대생이 대기업 가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제 성격상 남의 지시를 받으면서 조직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잘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지워보니 남은 선택지가 창업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있어

서라기보다는 잘 모르겠으니깐 직접 해보자는 마음으로 창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8.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회사라는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 제도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팀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팀 리더에게 어떤 권한을 줘야 하는지, 시장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투자자는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같은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진 돈은 2천만 원 정도였고, 그 돈도 낙성대 원룸 보증금이었습니다. 그 돈을 빼서 “이 돈 다 쓸 때까지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와 사업이 살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고, 아니라면 큰돈을 더 쓰기 전에 접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마치 군대에서 각개전투를 하는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멋지게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기면서 하나씩 통과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대표는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사람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또 그 조언이 맞는지 계속 교차 검증을 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9.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대표로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가치는 책임입니다. 창업을 하면 실패에 대한 부담이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회사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고, 함께 일하는 팀원들의 삶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팀원들 중에 결혼을 한 분들도 있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 판단 하나로 회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

히 큰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시에 완벽한 정답을 기다릴 수만도 없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보가 70% 정도 모였을 때 결정하고 나머지 30%는 모험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결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태도와 역량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특히 서울대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행력입니다. 서울대생들은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똑똑하며, 직관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이건 될 것 같다,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굉장히 빨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판단을 근거로 실제로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연구실에서도 보면, 이론적으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연구를, 다른 학교 학생이 무작정 해보다가 우연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실패하지만, 가끔 나오는 성공이 바로 브레이크스루가 됩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현상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도전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사소한 시도를 해보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다니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본다든지, 익숙한 선택 대신 다른 선택을 해보는 연습이 결국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을 길러준다고 생각합니다.

### 11. 돌이켜 봤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학부 시절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점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졸업 평점이 2.7 정도였기 때문에 학업 성과를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한 사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동기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입니다. 수업이나 연구보다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쌓았던 관계가 지금까지도 가장 큰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입학한 지 거의 30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동기 단톡방이 있고, 서로 소식을 공유하며 지냅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결국 그 관계들입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결국 사람들과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12. 동물생명공학과 기계공학을 복수전공하게 된 계기와 시너지 또는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기계공학을 복수전공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기계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기계 구조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설레고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부 졸업을 앞두고 학점이 조금 남아 기계공학 개론 수업을 들었다가, 그게 계기가 되어 복수전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전공을 함께 하면서 느낀 가장 큰 시너지는, 기계 쪽에서는 바이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바이오 쪽에서는 자동화와 장치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다는 점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연구가 반복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반대로 두 분야가 제대로 연결되면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양쪽 모두에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 13. 대학원에서는 기계공학 중 어떤 세부 분야를 연구하셨고, 그 분야를 선택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학원에서는 기계공학과 바이올을 융복합하는 연구를 주로 했습니다. 특히 실험을 자동화하고, 사람이 하던 작업을 장치로 옮기는 방향의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석사 과정에서 진행했던 연구 중 하나는 여러 약물을 조합해 세포에 처리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컴비네이토리얼 드럭 연구였는데, 이 과정 전체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직접 아이디어로 제안하고 구현했습니다. 교수님이 시켜서 한 연구라기보다는, 제가 해보고 싶어서 시작한 연구였고, 다행히 허락을 받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14.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순간과 그것을 극복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특정한 한순간을 꼽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석사 과정에 처음 입학했을 때가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가장 즐거웠던 시기였습니다. 연구라는 것이 원래 안 되던 것을 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의 연속입니다. 실험이 계속 실패하고, 그 원인을 하나씩 수정하면서 조금씩 진전이 생기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집에 며칠씩 안 가고 연구실에서 생활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재미있다는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15. 기계공학과 대학원 경험이 배양육 산업을 운영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산업을 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의 손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지도교수님이 아주 정밀한 센서를 개발해서 창업하셨는데, 그 기술은 박사 한 명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었고 결국 산업화에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자동화되지 않으면 사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례를 통해 배웠습니다. 배양육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배양 장치는 매우 비싸고, 생산량 대비 경제성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계공학 기반으로 장치를 직접 설계하고 자동화 제어까지 내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연구원의 손에서 장치로 공정을 옮길 수 있었고, 그것이 지금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2부 포스트잇 질문



팡세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우선 팡세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남긴 책 중 하나입니다. 파스칼의 팡세를 그대로 직역하면 파스칼의 생각들입니다. 제가 창업을 할 때 스타트업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 기업은 좋은 뜻을 품어야 한다, 즉 좋은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에서 멈추지 않고 그 비전을 이뤄낼 수 있는 실력 또한 있어야 합니다.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좋은 비전이 있고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팀이 되겠다는 생각을 잘 나타내는 내용들이 팡세라는 책에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컴퓨터를 최초로 발명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좋은 곳에 쓰려고 노력했었어요. 이러한 의미가 스타트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로 파스칼의 팡세는 미완의 책입니다. 파스칼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생전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남겨놓은 메모를 사후에 엮어서 낸 책이므로 새로운 메모가 발견되면 책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 계속 변하는 세상 속에서 스타트업도 함께 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팡세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이름이 특이하면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회사를 한 번 더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 창업을 시작할 때 얼마만큼의 자본이 있어야 할까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회사에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금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투자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데 초기 투자자는 좋은 시장의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며 실행해서 동작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준다면 돈이 오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습성상 쫓아가면 도망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상태로 가까이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은 지원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업에 뜻이 있다면 젊을 때 빨리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먹어봐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은 것은 다 두려워해요. 세포 배양육은 축산물과 기존의 식품과 다르게 무균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 자체가 없게끔 관리를 하고 식약처에서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래서 저희는 투자자분들이 오시면 시식용으로 조금 내어드립니다. 배양육을 드시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배양육이 시장에 나오고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순식간에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스타트업에서 홍보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계신가요?

홍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홍보하고 싶은 대상에 따라 여러 관점을 가집니다. 소비자를 향한 홍보도 있을 것이지만 초기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 투자자를 향해 대부분 홍보를 합니다. 초기에는 돈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투자사가 실질적인 고객이 됩니다. 만약 제품이 생긴다면 고객에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해지며 인지도를 높여서 수요가 증가하면 투자자는 따라오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홍보는 노출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이면서 전문가들이 모이는 링크드인이라는 채널을 많이 씁니다. 이 채널에서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 학부생 때 했던 동아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가 있나요?

저는 음악 동아리 했었습니다.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열심히 재밌게 활동했었어요. 사실 바빠서 많이 치진 못하지만 지금도 집에 기타들이 있고 그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바빠지고 노화가 오면 기타를 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젊은 시절에 그런 것들을 도전해 보고 즐거운 활동들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창업 스타일에 따라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입한 노력 대비 얼마만큼의 결과가 나오는지 Return of Investment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실현하고 시장에 테스트해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실행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 3D 바이오 프린팅에 사용되는 바이오잉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플라스틱 같은 합성 소재의 biodegradable polymer 계열과 콜라겐이나 젤라틴같이 바이오에서 뽑아낸 천연물 계열이 있습니다. 폴리머 계열 같은 경우, 균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bio compatibility가 좋지 않아 사용에 제한이 있고 딱딱한 재질이기 때문에 뇌나 간 같은 soft tissue에는 쓸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콜라겐이나 젤라틴 베이스, 혹은 키토산이나 알지네이트 같은 하이드로젤 중심의 소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체로 비싸고 퀄리티를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 학부생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많이 놀고 많이 사고를 쳐보세요. 너무 사고를 안 치려는 자세로 학교에 다녔던 것이 제일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지만 여전히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부생 때로 돌아간다면 많이 놀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것 같습니다.

###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던 아이디어들을 실천으로 옮겨서 창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창업을 하고 보니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변화해 가는 것 같아요. 대학원 때 연구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저한테 그것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은 어떤 강연에서 몰입하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자기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지금의 창업 아이템들의 목적으로 하는 우리 인류의 식량을 책임진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 대학교로 돌아가 배우고 싶은 새로운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현재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10년, 20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를 굳이 꼽자면 오히려 기술 쪽 말고 인문학 쪽을 전공해 보고 싶습니다. AI 세상이 될수록 사람의 가치, 삶에 대한 의미 등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으므로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더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배웠던 기술과 인문학을 같이 융합해서 공부를 해볼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학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어디로 갈지 정해진 것이 없는 미래를 여기 계신 우리들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저 또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입장이기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젊음이 지나고 나서야 좋았던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인데 여러분들은 젊음의 가치를 알고 잘 활용하시면 즐거움을 비롯해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 생활을 많이 즐기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시는 일들이 좋은 일, 행복한 일들이 많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크콘서트팀 활동 후기

## 고솔비

동행 토크콘서트 팀에 속해 선배님과 연락하며 전반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 토크콘서트에 애정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팡세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며 배양육이라는 분야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창업이나 기술 뿐만 아니라 학창 시절 등 다양한 인생 이야기도 함께 들으며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흔쾌히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신 이성준 선배님과 함께 자리를 채워준 동행 부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한 학기 동안 함께한 팀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박여은

동행 토크콘서트 팀에서 질문지를 만들고 답변을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준비하면서 고생한 팀원들과 국장, 부국장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희원

동행의 토크콘서트에서 진행자로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원들의 질문을 정리해 전달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선배님과 직접 소통하며 들은 생생한 이야기가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강의 소개

## (공유)창의프로젝트과제1

김유용 교수님

**수업 개요:** 창의프로젝트과제 1은 각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진행되는 지산학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입니다. 발표, 토론 및 교수진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수업은 그린바이오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개설 수업 중 하나로, 축산업계 각 분야 강연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견학을 통해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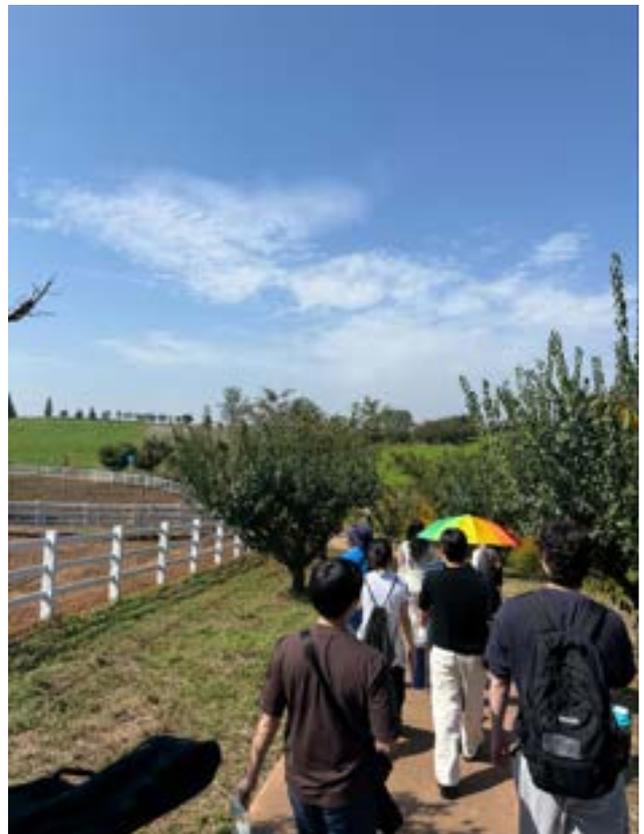
### [견학 1] 안성팜랜드



지난 9월 27일, 수업의 일환으로 농협 안성 팜랜드를 견학하였습니다. 이번 견학은 평소 글로만 접한 축산과 반려동물 관련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체험하며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먼저 팜랜드 역사관에서 안성 팜랜드의 역사와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성 팜랜드는 과거 시범목장으로 출발해, 낙농기술 보급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농협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목장으로, 축산 교육과 관광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후에 목장과 체험장 일대를 함께 돌아보며 구경했습니다.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말과 소, 양 뿐만 아니라 타조, 닭, 토끼 등 다양한 동물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소고기 전골로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고, 식사 후에는 애견카페 체험이 이어졌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들과 교감하며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애견카페에는 여러 견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며 반려동물 산업이 단순한 취미가 아닌, 하나의 전문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자유시간 동안 각자 관심 있는 공간을 둘러보거나 기념품을 구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다녀온 학우들과 승마, 먹이 주기 체험을 하며 동물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레이스, 자전거 등의 놀이기구들을 타며 스릴 있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견학을 통해 단순히 동물을 보는 것을 넘어, 경제동물과 반려동물의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축산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을 체험하며 교과 내용이 보다 현실감 있게 다가왔고, 이론과 실습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동자

Album



### [견학 2] Greenova 기업

지난 10월 13일, 동행 견학팀은 축산업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위해 다비육종 본사와 도축장, 사료 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견학은 교과서 속 내용으로만 접했던 축산 산업의 전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며 산업 구조와 직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견학의 첫 일정은 다비육종 본사였습니다. 도착 후 강의실에서 회사의 설립 배경, 돼지 품종개량 과정, 생산 성과 성과 등에 대한 소개를 들으며 돼지 사육 규모, 운영 시스템 등 체계적인 생산 구조를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설명회 후에는 회사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받고, 인근 식당에서 맛있는 돼지고기 식사로 견학의 첫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도축장에서는 위생복과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소독 절차를 거친 뒤, 두 팀으로 나누어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견학을 간 학생들은 도축 과정을 역순으로 관람하며 돼지가 부위별로 분리되고 내장이 제거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위생 관리와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이 인상 깊었으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축산물 가공 현장을 통해 현대 축산업의 전문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이 현장에서 특히 동물 복지의 필요성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사료공장은 입구 야외에 설치된 소독시설을 통해 인원을 철저히 소독한 후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사료의 원료와 제조 공정,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가축의 영양학적 관리가 축산 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실감하였습니다.

이번 견학은 돼지의 사육부터 도축, 사료 생산에 이르기까지 축산 산업의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배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론으로만 배우던 내용을 실제로 보니 산업의 규모와 체계가 훨씬 잘 와닿았다”며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 [견학 3]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첫 날은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젤라또에 대한 기본 이론과 기술, 젤라또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점심을 먹은 이후 녹차 라떼, 바질 토마토, 순두부, 홍시, 요거트 맛 젤라또를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레시피에 맞는 재료들을 계량해서 넣고, 젤라또 제조기로 압력, 온도를 조절하여 원료를 젤라또화 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만든 이후 급속 냉동고에 넣어 보관한 후의 젤라또를 모두 시식해보았는데, 만든 직후에는 공기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 매우 부드러운 반면, 보관 후의 젤라또는 평소 사 먹는 젤라또와 같이 쫄득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실습 이후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진행하는 사업과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에 대해 들었는데, 시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공간과 23가지의 다양한 기구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품 관련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일차에는 기능형제형센터에서 고형제 제형에 대한 이론 수업을 들었습니다. 과립, 분말, 캡슐, 정제 등 제형에 대한 설명과 제조 방법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점심식사 후 복숭아맛 츄어블제를 만드는 실습을 하였습니다. 먼저 츄어블제를 만드는 원료들 각각의 맛을 보고, 각 원료들의 맛 특징들을 참고해서 원료들의 배합량을 임의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배합비에 따라 원료를 정확하게 계량하고 혼합하여 체에 거른 후, 타정하는 과정을 거쳐 츄어블제를 완성하였습니다. 실습을 진행하면서 충전 두께와 최종 두께를 서로 다르게 설명하며 단단한 츄어블제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맛을 보았을 때 츄어블제의 제작에서 두께와 강도가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에 녹는 속도를 측정하고 식약처 규정을 위해 코팅을 하는 등의 방법도 배웠습니다. 평소 흔히 보이던 알약, 비타민 등의 제형을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이 인상깊었고, 특히 배합비에 따라 원하는 맛을 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견학을 통해 젤라토를 만드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고, 나아가 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라는 생소한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실습으로 식품 산업에서 식품의 맛만큼이나 안전성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 이에 대한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느꼈습니다.

# 동행 이야기

*Epis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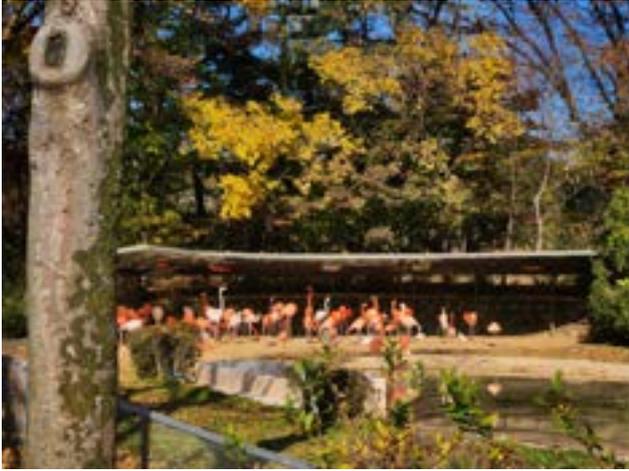
# 동물원



2025. 11. 15. 서울대공원, (왼쪽부터) 이지찬, 김규민, 김현준, 고명학, 김민환, 최수민, 정석원, 김다운, 하채호, 이찬, 마예은, 조서연, 강민서

2025년 11월 15일, 초겨울의 기운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하던 날, 저희 식품·동물생명공학과 동아리 '동행'은 서울대공원을 찾았습니다. 찬 바람이 불기 전, 동물들이 계절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직접 관찰하기에도 좋았고, 구성원들이 함께 걸으며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기에도 적당한 시기였습니다. 이번 탐방은 단순히 동물원을 둘러본다고 하기보다는, 부원들이 함께 웃으며 자연 속에서 작은 힐링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오후 1시, 4호선 대공원역 2번 출구에 모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티켓을 발권하여 동물원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서울대공원에서 운행하는 코끼리 열차를 타고 이동했고, 지도를 펴서 동선을 간단히 정한 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점심을 먹지 않은 상태로 만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동물들을 구경하기에 앞서 배를 채울 간식을 먹었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찾은 동물원이라, 간식을 먹는 도중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기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동물원을 곳곳을 구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저희를 맞이한 동물은 고운 분홍빛 깃털을 가진 홍학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색이 더 선명했고, 그 색이 먹이 속 카로티노이드 색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영양이 외형적 특징으로 발현되는 대표적 사례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자연스럽게 현장과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들른 원숭이 사육장에서는 크고 작은 무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인원관 내부에서 만난 원숭이는 투명한 원통의 뚜껑을 돌려 열고 있었는데, 사람만큼이나 정교한 놀동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부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우와" "와" 감탄하며 관람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곳은 레서판다 전시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에서 본 것처럼 레서판다는 소음과 사람 움직임에 민감한 편이라, 저희가 찾았을 때도 은신처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의 고유한 특성과 신기한 사실들을 현장에

서 직접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맹수류 사육장에서는 대부분의 동물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어 관찰이 쉽지 않았습니다. 낮 시간대 활동이 적은 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으나, 아쉬움을 넘어 '이들이 과연 행복할까'라는 근본적인 의문도 들었습니다.



견학을 마친 뒤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며 늦가을 서울대공원의 풍경을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서울 도심과 가까이 있는 숲의 경계를 바라보며, 문득 동물의 서식지가 얼마나 파편화되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후 근처에서 함께 식사하며 오늘 보았던 동물들,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 그리고 각자 느낀 점을 나누며 이날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서울대공원 탐방은 동물들을 눈으로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공 지식과 실제 생태를 능동적으로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각 동물이 지닌 고유한 특징과 적응 방식, 그리고 멸종 위기 종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확인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시각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아리 '동행' 구성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동자

Album



# 관악산 등산



2025. 11. 29. 관악산, (왼쪽부터) 하채호, 이영표, 김현준, 추채윤, 이진현, 박희원, 서지현, 양준현

한 시간 반 정도 걷다 보니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석 옆에 모여 단체사진을 찍은 뒤, 잠시 머물며 관악산에서 내려다보이는 주변 경치를 둘러보았습니다. 맑게 트인 시야 속에서 늦가을의 서울과 캠퍼스의 풍경을 감상하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낙엽이 거의 떨어진 11월 말, 동행 부원들은 늦가을의 관악산을 올랐습니다. 추울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날씨가 풀려서 부담 없이 등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산을 내려오던 길에 작은 개울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쉬면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등산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등산을 마친 뒤에는 낙성대에서 점심을 먹고 봉어빵도 먹었습니다. 기말고사를 치르기 전에 올랐던 관악산은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긴장을 풀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며, 부원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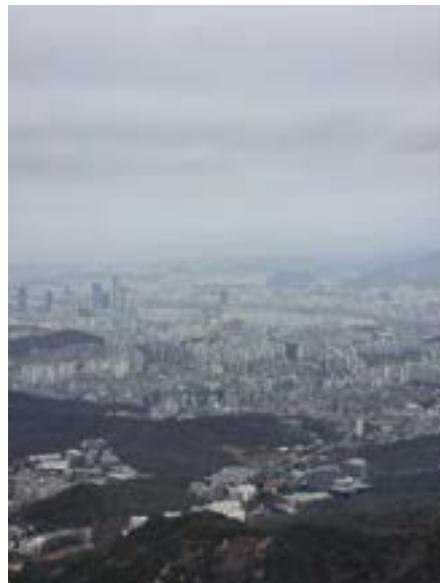


산 입구에서 간단히 준비 운동을 한 후 본격적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중간중간 쉬어 가며 천천히 올라갔고, 돌탑을 쌓으며 소원도 빌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동자

Album



# 겨울 여행



2025. 12. 20.

동행 20호를 함께한 부원들이 경주로 다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겨울에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경주의 날씨는 마치 선선한 초가을처럼 포근했습니다. 오전 9시에 서울역에서 모인 뒤 다 같이 경주로 향했습니다. 설렘을 안고 출발한 기차는 어느새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한 뒤 황리단길에 있는 식당으로 가 뜨끈한 만둣국으로 든든히 배를 채웠습니다. 든든한 만둣국부터 부원들과 오간 수다까지,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점심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삼삼오오 나뉘어 황리단길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행 부원 중에는 유난히 잘 먹는, 예비 먹방 유튜버라 불려도 손색없는 인원들이 많아 경주의 다양한 명물들을 빠짐없이 맛볼 수 있었습니다. 황리단길의 유명한 간식인 황남 쫄면과 경주 얼굴 빵, 십원빵을 함께 나눠 먹으며 거리를 따라

걸었고, 먹거리를 즐기는 동안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 들러 지난 대학 생활을 돌아보며 추억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후 황리단길 바로 옆에 있는 대릉원으로 이동해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경주의 풍경 속에 추억을 남겼습니다. 각자의 모습과 순간을 담아주며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리단길에서의 자유시간을 마친 뒤 숙소로 돌아와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해 삼겹살과 오겹살을 즐겼습니다. 정성스럽게 구워진 고기는 하루 동안의 피로를 잊게 할 만큼 맛있었고, 함께 나눈 식사 덕분에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소화를 겸해 첨성대까지 천천히 걸으며 산책했습니다. 선선한 저녁 공기 속에서 배부른 몸으로 나란히 걷던 산책로는 유난히 분위기가 좋았고, 그날의 낭만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침성대에서 진행되는 미디어아트를 감상하고, 월정교의 야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다음에는 동궁과 월지까지 함께 걸어 이동했습니다. 계속해서 걷는 일정이었지만, 경주의 풍경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져 걷는 모든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동궁과 월지에 도착해 마주한 야경은 특히 아름답고 인상 깊어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이곳에서도 자유 시간

이 주어져 부원들은 산책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고, 음악을 함께 듣거나 수다를 나누며 여유로운 밤의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동행의 밤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 치킨을 야식으로 즐기며 다시 한번 자리에 모였고, 수다를 나누고 장난을 치며 늦은 시간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피아 게임을 하며 분위기는 더 달아올랐습니다. 부원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보며 놀랐습니다. 마피아와 경찰 사이의 치열한 눈치 싸움과 열정적인 역할 수행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동행의 밤은 뜨겁게 깊어져 갔습니다.





2025. 12. 21. 경주월드

다음 날 아침, 동행 부원들은 이른 시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날의 일정이 경주월드 방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동행 부원들은 유난히 놀이공원을 좋아하는 편으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즐기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스틸 넘치는 놀이기구로 유명한 경주월드는 이번 여행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려 주었고, 기대 속에 곧바로 경주월드로 향했습니다.

마침, 방문 당시 경주월드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았고, 여러 부원이 함께 한 번에 놀이기구를 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주월드에서 무섭기로 유명한 드라켄과 크라크를 탔는데, 놀이기구 자체의 강한 스틸도 인상 깊었지만, 탑승 후 지친 표정으로 내려오는 부원들의 모습 또한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평소 놀이기구를 무서워하던 부원들까지 함께 도전하며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웃고 즐긴 이 시간은 이번 여행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편안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활동해 온 부원들과 일상을 벗어나 나눈 시간은, 앞으로 2026년 동행 활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기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업과 다양한 일정으로 바쁜 일상에서, 이번 경주 여행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사진으로 보는 동자

Album







# 동행 20호를 만든 사람들



- |          |                         |
|----------|-------------------------|
| 국장       | 이진현                     |
| 부국장      | 서지현                     |
| 교수님 인터뷰팀 | 조서연 김다운 박민권             |
| 졸업생 인터뷰팀 | 이영표 김민환 유혜인             |
| 학부생 인터뷰팀 | 고명학 추채운 황은규             |
| 모교방문팀    | 송강 권재운 김규민 이지찬          |
| 견학팀      | 조형준 강민서 김현준 마예은 이건호     |
| 기업팀      | 조현성 박가현 양준현 최수민 하채호 허세희 |
| 토크콘서트팀   | 박여은 고솔비 박희원             |
| 동자행사팀    | 민채울 김시온 변지민 이서연         |
| 동아리팀     | 이찬 정석원                  |

# 부원들의 한마디

9월부터 12월까지, 13명의 동물생명공학전공 신입생과 22명의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신입생이 정성을 가득 담아 동행 20호를 만들었습니다. 동행 20호를 준비하는 한 학기 동안 인터뷰, 모교방문, 견학, 토크콘서트뿐만 아니라 경주 여행, 동물원 방문, 관악산 등산 등의 활동을 통해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특히 2학기에는 부원들이 이전보다 큰 책임을 갖고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이번 동행 20호는 부원 모두에게 남다르게 뜻깊은 소식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원들의 한마디'는 이렇게 동행 20호와 함께한 서른다섯 부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 이진현

동행 19호 그리고 20호가 없었다면 2025년을 이렇게 보람차게 마무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상 많은 도움을 주고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부국장 지현이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또, 일 년 동안 많은 추억을 남겨 준 모든 부원들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아끼는 25학번 친구들이 이끌어갈 2026년의 동행도 따뜻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지현

20호 동행이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부국장으로서 더 잘할 수 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2년간 동행에서 활동하면서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동행 덕분에 동자과에 대한 애정을 더욱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준 부원들 모두 수고 많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동행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강민서

벌써 동행과 함께한 한 학기가 지났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2학기 신입생으로 처음 들어온 동아리였는데, 덕분에 동자과에 대해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경험해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새롭게 알아가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선배님들, 동기들과 함께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국장님과 모든 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명학**

동행 활동이 마무리되니 정말 한 학기가 끝났다는 것이 실감나네요! 이번 동행 활동을 통해서도 정말 다양한 추억을 쌓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자과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게 되어서, 정말 후회 없는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다들 동행 20호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다들 2026년에는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고솔비**

벌써 저의 두번째 동행이 끝나가다니 믿기지 않네요. 1년동안 저의 새내기 시절과 함께한 동행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동행 20호를 함께 꾸려나간 부원들에게 모두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년 2026년 동행도 기대할게요 :)



**권재윤**

동행 첫 활동을 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팀별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부원들이랑 더 친해지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행 20호 잘 읽어주시고 다들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민**

6개월 동안 동행에서 이야기를 쓰고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초고를 쓰면서 문장을 고민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기록이 생각보다 꽤 신중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다들 바쁜 와중에도 계속 함께해 줘서, 동행은 그냥 활동하는 동아리라기보다 같이 경험을 쌓아가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수고 하셨습니다!!



### 김다운

두 번째 동행을 마치며 이번 활동이 제 대학 생활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인터뷰를 준비하며 전공과 진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볼 기회를 얻었고, 부원들과 함께 활동하며 서로에게 한층 가까워진 점도 정말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학기 속 여러 순간들과 여행에서의 경험까지 어우러져 오래 기억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김민환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많은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번 학기도 동행에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동행에 참여하진 못하지만 나오면 가장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21기 동행도 파이팅하십쇼~



### 김시은

동행과 함께한 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고들 말하지만, 함께했던 순간들만큼은 영원을 믿고 싶어 질 만큼 소중했습니다. 스무 살의 기억을 동행 20호 소식지에 남길 수 있어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지난 1년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행복합시다~



### 김현준

제가 앞으로 100만 개의 동아리에 들어가도 동행만큼 제 대학 첫 시절을 빛내준 동아리는 없을 것 같아요. 멋진 선배님, 동기들 만나 값진 경험 남겨줘서 고마웠고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을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행 파이팅!!



**마예은**

대학 입학 후 처음 들어온 동아리 ‘동행’! 바로 신청했던 게 정말 다행이고 덕분에 좋은 경험 많이 해서 감사해요. 그 덕분에 한 학기 동안 활동하며 학과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고, 좋은 추억도 정말 많이 쌓았어요 :) 챙겨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민채율**

벌써 2026년이 이렇게 가까워졌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ㅎㅎ 저의 세 번째 동행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 되었네요!! 동행을 통해 정말 많은 경험과 우정을 쌓았는데, 모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나와 함께해준 모든 동행 부원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2026년도에도 파이팅 해보아요!!!



**박가현**

1년동안 동행 활동 하면서 교수님도 만나뵙고 선배님도 만나뵙면서, 동행이 제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며 후배들이랑도 가까워지고 동기들과도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어 정말 즐거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동행이라는 동아리를 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수고해준 동행 부원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2026년도 다들 즐거운 한 해 되세요!!



**박민권**

소중한 선배님들과 동기분들 덕분에 1년 동안의 동아리 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동자과에 대해 하나도 모르던 제가 1학기에는 축산의 날, 국담 행사에도 참여하고 2학기에는 신입 교수님 인터뷰도 하면서 동자과가 무엇인지, 무엇을 가치로 삼고 있는지 등 동자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선배님, 동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행 사랑해!!



**박여은**

1년 동안 동행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추억과 유익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번 학기 토크 콘서트 인터뷰를 맡았는데 기사가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동안 함께한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행복하길 바랍니다!



**박희원**

벌써 동행을 한 지 1년이 되었네요!! 선배님들과 동기들과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어갑니다 ㅎㅎ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다들 동행 활동 수고하셨습니다!! 저희의 추억들이 예쁘게 담겨 있는 동행 부원들 모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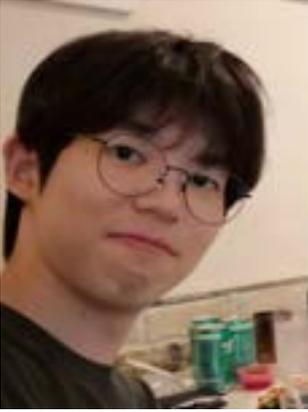
**변지민**

동행을 1년간 하면서 선배, 동기들과 너무 좋은 추억 많이 쌓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함께한 모든 시간이 좋았지만 특히 강릉 여행가서 다같이 수영하고 놀았던 시간은 대학 졸업 후에도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서 더욱 즐거웠고, 다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6년에도 함께해요!!!!



**송강**

어느새 저의 4번의 동행 활동이 마무리 되었네요! 마지막 동행이라니 아쉽기도 하고 그동안 여기서 선후배 동기들과 쌓인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동행 20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양준현**

저에게 신입생 길라잡이 역할을 해줬던 동행에 들어온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네요. 금번 동행 활동의 일환으로 다녀왔던 여러 기업 견학들처럼 동아리에 들어와 진행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절 대학생 티가 나도록 키워줬던 것 같습니다. 한 해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혜인**

2년간 동행을 하면서 재밌었던 일도, 힘들었던 기억도 있었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제가 동행과 쌓아온 추억에 뿌듯함을 느끼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기들 그리고 25학번 친구들과 2025년 한 해 동안 좋은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뜻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동행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건호**

벌써 두번째 동행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덕분에 1학년동안 많은 추억 쌓고 좋은 인연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더불어 동자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것을 접하고 경험하게 된것 같아 영광이었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서연**

눈 깜짝할 사이에 동행의 두 학기가 지나갔네요. 한 학기 동안 주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피드백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팀워크의 힘을 깊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겨울 여행과 같이 지금의 청춘이기에 누릴 수 있는 경험들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두 학기 동안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영표

동행 20호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만남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졸업생 인터뷰 팀으로 활동하며 선배님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동행이 만들어 온 시간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한 동행 20호 부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2026년에도 함께 좋은 기억을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지찬

비록 한 학기만 참여했지만, 동행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공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활동 하나하나가 대학 생활의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함께한 분들 덕분에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찬

이번 동행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후배들과도 많이 친해져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번 동행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좋은 추억 많이 쌓게 되어서 좋았고 동행을 하게 된 것이 잘한 선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과방이나 수업에서 만났을 때 서로 반갑게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겨울 잘 보내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 정석원

새내기 생활을 동행과 함께해서 더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1년동안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고 좋은 조언도 많이 받아 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2025년 동행을 위해 힘써주신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2026 동행도 화이팅!!



### 조서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행 활동을 하면서 동기들과 후배들과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 것 같아 아쉽네요TT 이번 소식지도 너무 기대되네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행 앞으로도 파이팅:)



### 조현성

첫 동행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네번째 동행활동을 마무리 한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동행 덕분에 2년동안 선후배와 많이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뷰와 견학 등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든 부원들에게 감사의 말 전하며, 이 글을 읽는 모두가 2026년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 조형준

저의 3번째이자 마지막 동행이 끝나가네요. 동행 18, 19, 20호 활동을 하면서 전공과 관련된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선후배들과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대학교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한 동아리였던만큼 애정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 동행 20호 활동을 열심히 한 모든 부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최수민

동행과 함께한 두번째 학기를 마치며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정말 좋은 선배들, 동기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모든 부원들과 더불어 각종 활동, 기사 작성, 여행 모두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힘써준 국장 진현언니와 부국장 지현언니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그랬듯 내년 신입생, 재학생들에게도 뜻깊은 경험 줄 수 있는 21호 동행도 기대하겠습니다:)



**추채운**

지난 1년간 동행 부원으로서 알차고 즐겁게 활동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와 달리 이번엔 인터뷰 팀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이 제 두번째이자 마지막 동행이 될 텐데, 내년부터는 후배들이 만들어갈 동행을 응원하겠습니다. 동행 20호 다들 고생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파이팅!!



**하채호**

제 1학년과 함께 두 번째 동행 활동도 벌써 끝나가네요. 동행 덕분에 재밌는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어요. 경주를 다같이 여행한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파이팅입니다!



**허세희**

작년 1-1 이후로 오랜만에 하는 동행인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질문지를 준비하고 직접 진행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동행 20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행복한 2026년 되세요!-!-!



**황은규**

동행에 참여하게된지 벌써 4학기째인데, 이번 동행 20호가 저의 마지막 동행이 된다고 하니 그동안 너무나 즐겁었던 기억이기에 조금 아쉽네요. 동행 17, 18, 19, 20호와 함께하며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쌓아서 좋았습니다! 이번 20호도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 도움을 주신 분들

한 학기 동안 동행 활동을 진행하며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인터뷰를 해주신 김명후 교수님과 권기현 선배님, 동행 1호 국장단 김도경, 권태성, 김수지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토크콘서트 초대에 흔쾌히 응해 주신 이성준 선배님 덕분에 정규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탐방 및 직무별 인터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카길, 선진, 한국마사회 선배님들과 김유용 교수님, 김명후 교수님, 2025 동자과 회장단께도 감사드립니다.

## 2025년 1학기

하종규 교수님	300,000원
김유용 교수님	300,000원
백명기 교수님	200,000원
98 권기현 님	300,000원
07 강혁중 님	100,000원
08 정재학 님	100,000원
09 송지은 님	100,000원
10 박승주 님	100,000원
14 한상현 님	200,000원
15 이상민 님	100,000원

## 2025년 2학기

윤철휘 교수님	100,000원
유경록 교수님	300,000원
99 문정현 님	300,000원
03 김영주 님	100,000원
11 이상목 님	110,000원

동행은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도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자 분의 성함과 후원 금액은 명단에 1년 간 게시됩니다.

후원 계좌 토스뱅크 1002-3416-5375 (고솔비)  
문의 번호 010-2549-0141 (고솔비)  
문의 이메일 solsolb06@snu.ac.kr



# DONGHAENG



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 소식지 동행  
후원 | 토스뱅크 1002-3416-5375 (고솔비)  
문의 | 010-2549-0141  
| [solsolb06@snu.ac.kr](mailto:solsolb06@snu.ac.kr)